

- 02 갤러리 용인 | 뜨거운 열기속으로 / 이상엽
- 04 초대시 | 카페 同人 1985 / 한정우
- 06 용인의 창 | 문화 르네상스에 길이 있다 / 이상일
- 10 용인의 예술혼을 깨우다 | 백남준의 생애와 예술세계 / 김장환
- 24 문화예술인물 인터뷰 | 빨래판 작가 오성만의 추상적 조형과 소박하고  
질박한 한국적 미 / 박숙현
- 29 기획특집 | 문화도시용인 간담회 \_ 용인 문화도시 어디까지 진행됐나 / 편집부
  - 40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특례시 수원 / 이선옥
  - 48 시민을 기억하는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 / 백정희
  - 55 110만의 멋진 시민-다정한 이웃이 깃든 용인 / 전지영
- 62 특집 | 문화특례시 용인으로 가는 길 \_ 특례시 수준의 문화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 이인영
- 73 비지정 문화재 소개 |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걸쳐 대를 이은 충신  
윤섬 · 윤계 정려 / 김정희
- 77 용인의 역사스토리텔링 | 소가 우는 마을 소우리 우명동 / 이은성
- 81 책과 문헌 | 풀뿌리 문학으로 자리매김한 『용인문학』 / 박기정
- 88 세대공감 | '어린왕자'를 다시 보다 / 남기주
- 94 사라져 가는 것들 | 생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우리의 소리-상여소리 / 김도영
- 103 휴 & 힐링 | 장욱진 고택 / 김명수
- 107 문화원 프로그램 소개 | 용인문화원 한시교실 / 김미숙
- 110 전국역사문화기행 | 구미 · 선산편 / 김운화
- 117 문화원 · 문화계 소식



12



39



104



용인 르네상스 용인특례시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이 'The amazing future(놀라운 미래)'를 주제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됐다. 개최식 테마는 'Shinning tomorrow(빛나는 내일)'로 개막식장에서 '용인르네상스'가 빛을 밝혔다. 민선8기 용인특례시의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는 전염병을 극복하고 창의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일궈내고자 하는 용인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반도체산업을 기반으로 첨단도시형의 산업경쟁력과 주거, 교통, 일자리, 교육, 보육 등 '행복생태계' 마련과 도시 활력을 높이고자하는 목표를 압축하고 있다. | 글 : 사진 : 김종경

**발행인** 심언택 용인문화원장    **편집인** 정양화 용인문화원 부원장/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박숙현 용인문화원 이사    남기주 용인학연구소 이사    김정희 용인스토리텔링연구소장  
**기획/행정** 이현구 이설아  
**발행처** 용인문화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문화예술원 1층  
**전화** 031.324.9600    **팩스** 031.324.9634    **이메일** ycc50@hanmail.net  
**제작** 북앤스토리 031.336.8585





## 카페 同人 1985

한정우

한 풍경이 흘러갔다

담쟁이가 주인 없는 담을 넘는다  
별건 속살을 드러내던 능소화  
올여름에는 피지 않았다

역병이 길어지는 동안  
우리들 방학도 길어지고  
일몰의 그림자도 짙어졌다

시 창작 수업 후 同人에 모여 따뜻했던 시간들  
턴테이블이 멈추고  
긴 탁자에 놓였던 어묵탕 국물도 식은 지 오래,  
제자들 그윽한 풍경을 온몸으로 품었던  
노시인의 따스한 의자도 더는 볼 수 없어

사람들을 기다리던 대문은  
세 번째 봄을 넘기지 못하고 아주 잠겼다  
나무 빗장 밖에는  
아직도 꺾지 못한 발길들이 서성이는데

우리는 역병을 예기치 못하고  
길어질 방학을 예기치 못하고  
추억의 몰락도 예기치 못했다

무언의 더딘 세월이다

그 많았던 풍경들  
담쟁이 담 밑에 고이 묻혔다

© 한정우

강원도 춘천 출생 / 2019년 제2회 남구만신인문학상 수상 / 현 용인문학 편집위원

## 문화 르네상스에 길이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정신’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포은정신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포은 정몽주(1337~1392)는 개성 선죽교에서 순절했습니다. 1406년 용인시 처인구 모현에 그 묘소를 옮겼지요. 포은의 후손들은 천하길지로 유명한 이곳에 종종 묘를 내립니다. 포은은 “백골이 진토되어 낮이라도 있고 /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라며 가차없는 충절의 기준을 세우고 돌아갔습니다.

일편단심은 바로 국가(공동체)와 개인 삶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오롯한 마음의 한 조각이 아닐까요. 문화는 먹고 사는 나머지의 장식품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 삶의 수준’이며 ‘변성의 힘’입니다. 모든 시민의 마음 속에 저 아름다운 일편단심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문화도시 용인’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절해야 꽃이 피며, 무엇이든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장 취임 이후, ‘용인르네상스’를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목표에 대한 과장이나 수식적인 미화가 아닙니다. 저 말 속에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도시역량’을 꽃 피우고, 새로운 용인으로 나아가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용인을 최첨단도시로 이끌 산업기반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시민이 삶의 가치를 향유하는 문화적인 대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는 문화는, 요즘 지자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 축제나 국제행사의 유치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용인다운 ‘삶의 양식’이자 ‘공동체의 브랜드’가 되는, 바로 포은의 ‘일편단심’같은 그 문화입니다.

문화는 결코, 의욕만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호응하고 호흡하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멋진 공연장을 지어놓아도 곧 빈 집이 될 뿐입니다. 이상적인 것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너무 현실적인 것에서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편단심’이 생겨나야 모닥불이 만들어집니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나 문화단체들의 유기적 협력체계, 각종 문화 기반시설들 같은 환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 용인을 묶는 문화브랜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브랜드는 지속가능해야 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즐거기와 가치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인이란 이름이 참 소중한다고 여깁니다. 삼국시대 용구현(龍駒縣)과 처인현(處仁縣)이 합쳐지면서, 용구현의 앞 자와 처인현의 뒷 자를 따서 용인(龍仁)이라는 지명이 나온 것입니다. 용구(龍駒)는 용처럼 날랜 말이나 어린 용을 가리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명은 아주 활달하고 진취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반면 처인(處仁)은 착하게 살라는 의미를 풍깁니다. 어질게 처신하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공자의 핵심 사상을 지명에다 넣어놓았으니, 반듯한 삶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취적인 용(龍)과 사랑을 실천하는 인(仁)이 한 지명에 들어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뜻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와서 '용인'이란 이름은, 이 도시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즉 용(龍)은 세계로 날아오르는 반도체산업의 기운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인(仁)은 이제 우리가 충실하고 깊이있게 갖추고자 하는 문화가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화가치는 공동체를 포용하면서 시민이 저마다 삶을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와 더불어 하위영역처럼 다뤄지는 무엇이 아니라, 그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위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용인르네상스는 용(龍)의 르네상스와 인(仁)의 르네상스를 결합한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화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용인시는 바야흐로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발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60~70년대까지는 기본적 의식주 문제가, 80~90년대에는 지역개발을 통한 산업화가 중심이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대응적

도시설계 시급한 과제였다면, 이제는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용인은 L자형 반도체벨트의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2026년까지 소재 부품 장비 기업까지 집결한 산단을 구성기로 하였습니다. 이 도시디자인과 더불어 문화도시 디자인을 조화롭게 융합해야 합니다. 이 디자인이 바로 용인의 미래청사진이며, 위대한 미래입니다. 문화는 큰 돈을 들여 건물이나 시설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마음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참여가 일어나고 공동체의 결속이 이어져야 '문화'가 됩니다.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너무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지역에 잘 맞는 것,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환경에 어울리는 것들을 중심으로 난상토론이 이뤄지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행해져야 합니다.

문화도시 디자인은, 현재의 용인을 재정의(再定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혹은 소수의 문화브랜드로 용인이 국민을 비롯해 세계인의 마음 속에 브랜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인내심과 신념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신중하고도 대담하게, 문화정책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적 기반이 약한 많은 도시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고장 특산물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지역의 문화자원들을 개발하여 관광 콘텐츠로 활용해왔습니다. 돈 되는 것에 몰리다 보니 지자

체의 고유성이 결여된 획일적 문화이벤트나 축제가 난립해 사람들의 외면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좌충우돌 속에서 자기 문화를 찾아서 제대로 정체성을 갖추고 부가가치를 올리며 자생력을 찾는 성공적인 지자체도 있었지요. 용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길을 모색하는 시도도 많지 않았습니까. 정책적 측면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 문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인구급증과 도시화, 산업기반 조성에 힘입어 성장한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화는 오히려 위축된 감이 있습니다.

용인은 역사상 오랜 문화적 자부심을 지녀온 곳입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 용인문화가 퇴색되어온 감이 없지 않은 까닭은, 도시 생태계와 역학구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도시인 용인은, 인구 스푼 오버(Spill-over) 현상으로 급속한 개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방행정이 수요 공급의 경제논리에 매몰되면서 ‘난개발’이란 오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느라 주거와 도로를 비롯한 도시 인프라를 갖추는 일도 벅찼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재정 자립도가 전국 상위권이 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간 용인시는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법정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 문화환경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현하여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이죠. 2018년부터 올해까지 30곳(1,2차 12곳이 지정됨)을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도시 특성을 고려해 연간 20억 원씩 최대 100억 원까지 사업비

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원을 했고,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도시 지정 자체가 도시의 ‘문화’전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 말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문화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큰 그림으로서의 용인문화가 그려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용인르네상스는 용인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유럽이, ‘삶’의 아름다움과 활력을 재설계하는 문예적 부흥으로 나아갔듯이 코로나 이후의 이 땅에서도 그런 문화의 흥행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의 K-웨이브가 글로벌을 사로잡는 현상들 또한, 지금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시대의 새로운 발흥기라는 생각을 돕습니다.

특히 금년 1월, 수원 및 고양, 경남 창원시와 함께 우리 용인시가 광역 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시 승격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전국 기초 지자체들 중 가장 앞서가는 선진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기반시설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특례시’가 갖춰야할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용인특례시는 지금 ‘문화특례시’로 발돋움하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어떤 문화도시를 구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창조의 양상은 유사하게 보일지라도, 각 국가별, 지자체별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

면 전통문화 유산에 강점이 있는 이집트와 그리스가 있고, 현대문화가 돋보이는 미국과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 중에서는 전통문화에 강점이 있는 경주나 부여, 전주시가 있는가 있고, 현대문화가 돋보이는 부천이나 포항시가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경우 전국 어느 지자체 못지않은 전통문화 요소들이 풍성하게 용해되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현대문화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문화 선진도시들의 특징이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전통문화 유산과 현대문화가 두루 녹아있는 우리 용인시야말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용인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도시를 시민 친화적으로 만들고, 걷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논리에 얽매어 도시경관에 대한 고민 없이 자동차 중심의 도로구조를 형성하다 보니 도심이 너무 삭막하고 걸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병풍처럼 들어선 아파트가 시야를 가리는 등 자연의 상당 부분 그 아름다움을 잃었고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조화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정비하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숲과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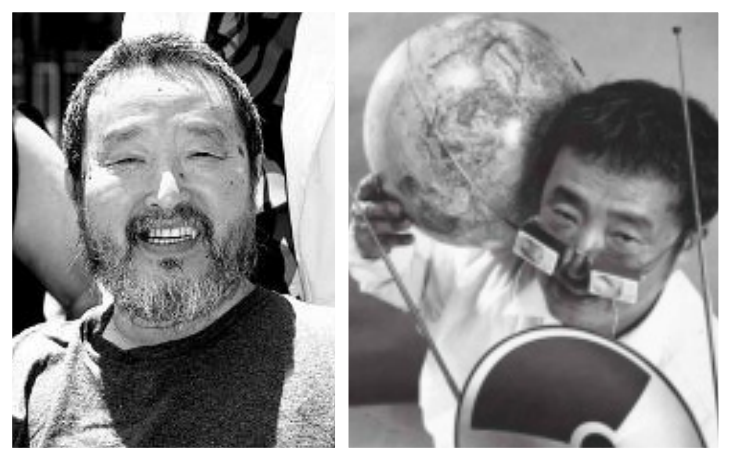
또 용인은 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입니다. 삼국시대의 유적으로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들은 그 자체로서 발굴되고 보

존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단순히 유적, 유물로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박물관 건립, 각종 민속놀이 복원, 문화재 정비 및 콘텐츠 개발도 구체적인 방향으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보다, 문화 인프라가 분야별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장르별로, 즉 각종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같은 공연장이라 하더라도 순수예술 공연장에서부터 지역 거점 공연장, 그리고 아마추어나 동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두루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진도시, 일류도시는 덩치만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문화적 토대를 갖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인시는 인구의 규모로는 전국 10대 도시에 해당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초고속 성장이 이루어진 탓에 문화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어려웠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서비스도 타 도시에 비해 월등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인구 규모에 맞게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향수 기회를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일류도시 ‘문화도시 용인’의 면모를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백남준의 생애와 예술세계



김장환 \_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 I. 백남준의 생애

### 1. 어린시절 - 피아노를 배우고 독서를 즐기다

백남준은 1932년 7월 20일 서울 서린동에서 백낙승과 조종희의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한국 최초의 '재벌'로 불렸던 그의 아버지 백낙승은 해방 후 최대의 섬유업체인 태창방직의 사장이자 홍콩을 오가는 무역상이었다.

백남준은 1938년 애국유치원을 졸업하고, 1939~1944년 수송국민학교에 다녔다.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어린 시절부터 백남준은 예술을 비롯하여 과학 체험을 갖는 기회가 많았다. 애국유치원을 함께 다닌 이경희는 백남준이 '고단샤노 에흥'(講談社の 그림책)을 즐겨 보았다고 한다.





또한, 누나 덕분에 백남준은 유치원 때부터 음악을 접할 수 있었다. 아버지 백낙승은 집안에 피아노를 마련해놓고 딸딸 백희득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도록 했다. 해방 전이었던 당시 상황에 피아노를 소유하고 딸에게 개인교습을 받도록 하는 집은 그리 흔치 않았다. 어린 백남준 역시 피아노가 신기하고 좋았다. 큰 누이가 레슨을 받는 동안 그 주위를 맴돌면서 어깨너머로 피아노를 배웠다. 누이가 피아노 연습을 할 때면 그도 귀를 쫓긋 세우고 악보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혼자 쳐보곤 했다.

그의 사촌 동생 고수균은 백남준의 부모가 자녀들과 영화관과 과학관에 자주 다녔다고 회고한다. 더욱이 백남준의 집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집에 흔치 않은 라디오가 있었고, 백남준은 라디오를 장난감처럼 다루었다.

1945년 백남준은 경기공립중학교에 입학했다. 백남준의 사촌 조자원은 백남준이 중학생 때 메이지(明治) 문학전집, 타이쇼(大正) 문학전집 등 다양한 서적을 다독했고, 장난치고 노는 것 보다 혼자서 책을 읽거나 기계를 만지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기억한다. 전쟁으로 대부분의 일간지조차 폐간되던 시기였지만, 백남준은 어렵지 않게 잡지,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접할 수 있었다. 청년기 백남준은 다독(多讀)하는 습관으로 한국을 떠나기 전 이미 아방가르드에 관한 문헌과 글을 통해 자신의 전위적인 성향을 구축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백남준이 정식으로 음악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도 중학 시절인 1946년부터이다. 이 시기 백남준은 피아니스트 신재덕(1917~1987)과 월북 작곡가 이진우(1917~1988)에게 음악을 배운다. 신재덕은 백남

준에게 음악의 기초와 피아노를 가르쳤다. 이진우는 작곡을 가르쳤고, 백남준에게 첫 뮤즈였던 쇤베르크의 음악을 전파했다.

일제 강점기 한국에서 음악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일제 강점기 엘리트 교양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에게 서양음악은 꼭 알아야 할 필수조건이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외국 음악=근대적=품위 있음=교육 받은 사람들의 음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서양음악=엘리트’라는 사회적 인식은 백남준이 어린 시절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 엄격히 훈계한 그의 부친이 음악가로서의 길을 택한 백남준의 요구를 허락한 배경조건이었을 것이다.



## 2. 홍콩 · 일본 유학 - 쇤베르크와 현대음악을 만나다

백남준은 1949년 홍콩으로 간다. 그의 아버지가 홍콩 내 인삼 수출 총대리인으로 임명되고, 백남준은 아버지의 통역을 맡았다. 그는 홍콩에서 반년 동안 로이덴스쿨(Royden School)을 다녔다. 백남준은 이때 중국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조카 백

일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그는 전쟁을 피해 가족들과 일본으로 이주한다.

1951년 일본 동경대 교양학부 문과에 입학한 백남준은 1954년 동경대 문학부 미학 미술사학과에 진학하여 아놀드 쇤베르크 연구(1874~1951)(A Study of Arnold Schoenberg)라는 논문을 쓰고 1956년 졸업한다. 일본에서 5년 동안 백남준은 예술사와 미학에 관한 다양한 서적을 읽었고, 특히 음악미학과 작곡 공부에 몰입했다.

1950년대 초반 일본음악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전후 일본의 음악계는 여전히 18, 19세기 독일음악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하이든, 멘델스존, 슈만, 슈베르트가 특집으로 다루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두드러진 변화상에서 현대음악과 관련한 내용이 이전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현상이다. 일본은 현대음악에 관한 정보가 많았고, 당시에 몇몇 음악가들에 의해 실험 음악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1년 타케미츠 도루(1930~1996), 유아사 조지(1929~ )와 같이 전후 일본의 대표적 현대 음악가들이 '실험작업장'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당대의 서구 아방가르드 음악을 자기화하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구체 음악(Musique concrète) 및 전자음악의 실험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일본의 미술계 역시 실험적 예술을 추구하는 흐름이 뚜렷이 나타났다. 패전 이후, 젊은 미술가들은 '전위미술회', '청년미술가연합', '일본전위미술가협회' 등의 그룹을 결성하며 새로운 형태의 예술에 경도되어 있었다. 낡은 사상을 파괴해야 새로운 예술을 추

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젊은 예술가들은 서구의 전위사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예술을 위한 그룹을 결성하였다.

### 3. 독일 유학 - 존 케이지와 플럭서스를 만나다

음악공부를 지속하기 위해 백남준은 1956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다. 1950년대 후반 독일 음악계는 1910년경 아놀드 쇤베르크(1874~1951)와 이고리스트라빈스키(1882~1971)의 실험음악을 이은 전위음악, 전자음악 같은 현대음악이 다름슈타트를 중심으로 부흥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술계의 경우 1955년부터 카셀에서 《도큐멘터》가 개최되었지만, 나치에 의해 이른바 '퇴폐 미술 (Entartete Kunst)'로 낙인찍힌 '모던 아트'의 재수용과 복권이 주요 화두였다.

독일에서 백남준이 가장 처음 정착한 곳은 뮌헨이다. 루트비히-막스 밀리안스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한 그는 2년(1956~1957) 동안 철학, 예술사,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수강한다. 그러나 뮌헨대학의 수업내용은 주로 고전 예술이 중점이었다. 아방가르드 음악가 쇤베르크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백남준은 현대음악을 쫓아 다름슈타트에서 열린 <신음악을 위한 국제 여름 코스>에 1957년, 1958년 두 차례 참여한다. 전위음악의 메카였던 이 도시는 1951년 쇤베르크의 <황금송아지를 둘러싼 무용 음악>이 연주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던 곳이다.

다름슈타트에서 백남준은 여러 지인을 만난다.

1957년에 만난 프로그램의 책임자이자 작곡가인 볼프강 포르트너(1907-1987)는 백남준에게 쾰른 프라이부르크 고등음악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제안한 사람이다. 또한, 그는 1958년 백남준이 실험 음악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쾰른의 서부 독일 방송국 소속의 전자음악 스튜디오에서 일하도록 도와주었다. 같은 해 독일의 전자음악 작곡가인 칼 하인츠 슈톡하우젠(1928~2007)과도 만나게 된다. 백남준은 슈톡하우젠에게 전자음악을 배웠고, 그가 기획한 <오리기날레>에서 매년 공연하면서 친분을 이어갔다. 1963년 미국으로 백남준을 부른 사람도 슈톡하우젠이었다.

1958년에는 음악에 동양적 정신을 끌어들이며 ‘불확정성의 음악’ ‘우연성의 음악’을 주창한 존 케이지(1912~1992)와의 만남도 갖게 된다. 백남준은 케이지의 공연 관람 후 ‘음악의 시각화’에 관심을 갖고, 전자음악에서 행위음악(Action music)으로 작업 성향을 전환한다. 케이지의 영향은 1959년 11월 뒤셀도르프의 화랑 22에서 있었던 첫 공연인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Homage a John Cage)> 초연에 나타났다.

1961년에는 플럭서스 운동의 창시자 조지 마키unas(George Maciunas, 1931~1978)를 만나 독일 플럭서스(Fluxus) 멤버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머무르면서 백남준은 주로 ‘행위음악’이라는 행위 예술을 공연했고, 플럭서스 멤버들과 합동 공연을 진행하였다. 독일에서 백남준의 마지막 활동은 1963년 3월에 부퍼탈의 파르나스 화랑에서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텔레비전>>을 개최한 것이다. 그는 이 전시에서 1962년부터 실험해 오던 실험 텔레비전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다.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경의)를 준비 중인 백남준, 1959



<총체 피아노>, 1963

전시가 끝난 후, 백남준은 형의 권유로 텔레비전 실험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가 잠시 머문다. 1963~64년 일본은 당시 전자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중심에 서 있었고, 소니(SONY)사에서는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출시되고 있



음악전람회-전자 텔레비전, 1963

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백남준은 다양한 정보를 얻고 여러 기술자의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특히 전자기술자로 도움을 줄 아베 슈야를 만나 컬러텔레비전 조작을 시도하고, 텔레비전의 화면을 자유롭게 변형하고 채색할 수 있는 장치도 고안하게 된다. 백남준은 일본에서 첫 공연도 가진다. 그는 1964년 3월 초월회관에서 1959년 그의 데뷔작이었던 〈존 케이지에게 바침〉을 공연하여 일본의 음악계를 놀라게 했다.

#### 4. 뉴욕에서의 활동 - 전위 예술가로 활동하다

1964년 백남준은 공연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다. 첼로 연주가 샬롯 무어만(1933~1991)과 미술가 앨런 카프로(1927~2006)가 〈오리기날레〉의 공연을 위해 미치광이 역할을 찾고 있었고, 슈톡하우젠이 백남준을 추천하였다. 〈오리기날레〉 이후 백남준은 무어만과 그룹을 결성한다. 그들은 1964년 〈성인을 위한 첼로 소나타〉(1964)를 초연했고, 무어만이 더 이상 첼로를 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기 전까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다.

뉴욕은 처음에는 잠시 방문한 것이지만, 백남준은 자신의 전위적 예술이 독일보다 미국에서 더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후 정착하게 된다. 1960년대 뉴욕은 전 세계의 예술가와 학자들이 전쟁을 피해 이동해 왔다. 더욱이 존 케이지에 영향을 받은 많은 예술가들이 다채로운 행위예술을 선보이고 있었고, 그 중 라몬테 영(La Monte Young, 1935~)과 같은 음악가들이 최소한의 재료로 최소한의 소리를 내는 미니멀 음악(Minimal Music)을 시도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재즈와 뉴에이지 음악, 록, 팝송 등 다양한 대중음악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뉴욕



〈랜덤 액세스〉,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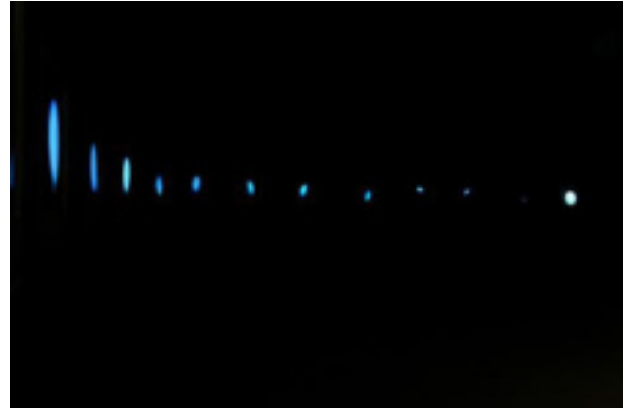
〈TV 부처〉, 1974

플럭서스 그룹도 있었기에 백남준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미술의 경우 1950년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팝 아트를 이어 새로운 경향의 그룹들이 나타났는데, 미니멀리즘, 네오-다다, 해프닝, 환경미술, 개념 미술 등이 그 양산이다.

첫 비디오 예술은 1965년 백남준이 소니사의 포타팩 카메라로 촬영한 교황의 미국 방문을 카페 오 고고(Café a GoGo)에서 상영하면서 시작했다. 그 이후 두 번째 개인전이 뉴욕의 보니노 화랑에서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미국에서의 첫 개인전이자 첫 비디오 예술 전시였다.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와 장치된 텔레비전 등을 이용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작품들을 선보인 자리였다.

1968년에는 아베 슈야와 함께 비디오 합성기 신디사이저를 만들면서 다양한 영상 조작이 가능해졌다. 1969년 9월부터 1970년까지 백남준은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다. 행위예술의 동료로 지내 온 앨런 카프로가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장으로 취임한 뒤 이곳에 비디오 학과를 만들겠다고 그를 부른



〈달은 가장 오래된 TV〉, 1965

것이다. 당시 캘리포니아에는 백남준 외에 딕 히긴스(Dick Higgins, 1938~1998), 앨리슨 놀스(Emmett Williams, 1925~2007), 에멧 윌리엄스(Emmett Williams, 1925~2007) 등 많은 플럭서스 예술가들이 초청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1971년 백남준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 작업을 시작한다. 비디오 테이프 작품을 처음 선보인 회고전은 1974년 1월 짐 해리타스가 뉴욕 에버슨 미술관에서 열렸다.

## 5. 다시 독일로, 세계로 - 비디오 아티스트로 세계적 명성을 얻다

2년 후 1976년에는 쾰른 예술협회 주최로 첫 번째 독일 회고전을 개최했다. 뒤셀도르프 예술대학장이자 백남준의 오랜 친구인 독일 조각가 노어버트 크리케(Norbert Kricke, 1922~1984)는 1977년 학교에 새로 개설될 비디오 학과 교수 자리를 백남준



〈글로벌 그루브〉, 1973



〈TV 정원〉, 1974



〈비디오 물고기〉, 1975



〈땅에 끌리는 바이올린〉 1975

에게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백남준은 1978년부터 1987년까지 10년간 독일 생활을 시작했다. 1977년부터 이 기간이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예술 세계가 활짝 꽃을 피우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시대이다.

1977년 독일의 《도큐멘터》에 초대를 받아 출품한 〈TV정원〉은 유럽 미술계의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1978년 파리 퐁피두 센터 전시에 이어 1982년 휘트니 미술관에서 대형 회고전을 열 수 있었다.

1984년은 생방송으로 미국과 프랑스에서 동시적으로 촬영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굿모닝 미스

터 오웰〉이라는 위성중계 공연을 성공시킨다. 이 작품은 한국에도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그 후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명성과 작업세계가 국내에 알려졌다.

작품이 방송된 6개월 후, 백남준은 34년 만에 고국을 방문했다. 그 이후 백남준은 여러 차례 한국에서 공연과 전시를 가졌다. 국내 백남준의 첫 전시는 1984년 2월 1일~2월 10일까지 원화랑에서 열린 《백남준 판화전》이었다. 1988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전시실 중앙에 설치한 〈다다익선〉이 완성되었고, 같은 곳에서 1992년에는 국내 첫 대규모 회고전 《백남준 비디오매 비디오땅》이 개최되었다. 또한 그는 국내의 미술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95년 제1회 《광주 비엔날레 INFO art》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같은 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설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전 1993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 작가로 초대되어 최고 전시관 부문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었다. 이 전시에서는 ‘일렉트로닉 슈퍼하이웨이(전자 초고속도로)’라는 주제로 북방 유라시아의 유목 문화를 배경으로 한 〈징기스칸의 복권〉, 〈마르크폴로〉, 〈훈족의 왕 아틸라〉, 〈스키타이의 왕 단군〉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신시내티와 한국을 촉박한 일정 속에 방문한 1996년, 평상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백남준의 건강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결국, 한국을 다녀온 다음 날인 1996년 4월 9일 그는 저녁 식사 도중 심하게 재채기를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왼쪽 반신이 마비된다. 병원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백남준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재활 치료를 통해 몸이 조금 회복되면서 다시 작업에





〈다다익선〉, 1987~1988



〈비라미드〉, 1982



〈굿모닝 미스터 오웰〉 세계 위성중계 영상, 1984

착수한다. 몸이 쓰러지기 전인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를 참관한 구겐하임의 관장 토머스 크렌스(Thomas Krens, 1946~)가 백남준에게 2000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자고 제안했었기 때문이다. 백남준은 이 회고전을 자기 작품세계의 정점으로 삼겠노라며 별러왔었다고 한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그는 자신이 창조해 낸 비디오 예술을 넘어 바야흐로 레이저 예술이라는 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자 했다. 작품의 방향은 이미 당시 최첨단 전자기술이었던 ‘레이저’로 구상되어 있었다. 백남준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레이저 예술을 제작하여 〈동시변조〉 〈삼원소〉 등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성공적으로 2000년 회고전 《백남준의 세계》를 개최했다.

전시 후 기력이 많이 쇠진해진 그는 따뜻한 기온을 찾아 계절에 따라 뉴욕과 마이애미를 오가며 드로잉과 글쓰기에 매진했다. 그리고 2006년 1월 29일 마이애미에서 타계했다.

## II. 백남준 예술의 시기 구분

작곡 활동에서 시작하여 항상 새로운 최첨단 매체를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한 백남준의 예술 세계는 다양한 방면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본 백남준의 생애를 바탕으로 시대에 따른 예술적 발전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족적(생애)과 연계하여 읽으면 백남준의 예술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제1기

먼저 제1기는 백남준이 한국과 일본에서 음악에 대한 이해를 습득해 가는 시기이다. 이 기간의 특징은 백남준이 자신의 예술을 서양의 고전 클래식을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음악의 기초를 학습한다.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서 서양음악은 주로 클래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백남준은 일본 유학하면서 당시 유행하고 있던 현대음악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독일의 전위음악가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에게 심취하기도 했다.

## 제2기

제2기는 실험 음악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백남준은 1956년 독일에 유학하면서 텔레비전을 선보이기 전인 1962년까지 한 명의 전위음악가로서 자신의 작품성향을 구축했다. 당시 독일은 1910년경 쇤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의 실험 음악을 이은 현대음악이 부흥하고 있었다. 그리고 쾰른의 서독 전자 음악 스튜디오에서 슈톡하우젠을 중심으로 전자 음악에 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 시기 백남준의 음악은 3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전자 음악이다. 그는 녹음테이프에 소리를 담고 다시 구성하는 전자 음악에 빠져 있었다. 두 번째는 행위 음악이다. 존 케이지의 공연을 관람한 후 음악에서도 행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음악의 시각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럭서스 활동으로 더욱 확고해진 '삶과 예술의 융합'이다. 실험음악가로서의 여정에서 백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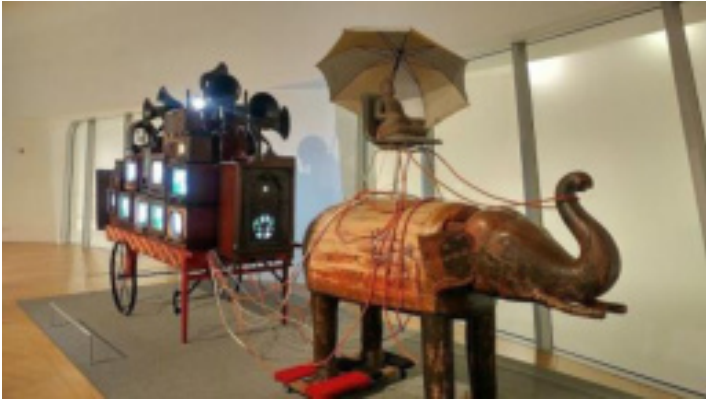


〈히드라 부처〉, 1984

준은 비물질적인 시간예술인 음악을 시각적으로 물질화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음악을 시각화하는 시도까지 감행하기에 이른다.

## 제3기

제3기는 예술작품으로 텔레비전을 도입하여 실험한 시기이다. 백남준은 2기에서 습득한 '시간의 물질화'라는 아이디어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실현한다. 그는 음향과 영상이 공존하는 텔레비전을 조작하고 변형하면서 다양한 영상을 연출했다. 1963년 독일 개인전에 처음 공개한 텔레비전 조작은 1964년 일본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며, 1969년 〈참여 텔레비전〉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텔레비전 실험은 내부 회로를 변경시켜 방송 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자석으로 전자기적 전자 흐름을 변경하여 브라운관에 움직이는 추상적 선묘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텔레비전의 조작을 순전



〈코끼리 마차〉, 1991



김용옥과 백남준, 1992

히 기계적 과정에만 의존하여 예측할 수 없는 비결정성(indeterminacy) 이미지를 만들었다. 초기 비디오 예술을 제작하는 방식 또한 이러한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신디사이저가 발명되기 전까지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은 텔레비전 방송을 재료로 영상을 대부분 자기장으로 일그러뜨렸다. 또한, 그는 1964년 만난 샬롯 무어만과 공연을 하면서 음악과 섹슈얼리티를 결합하고자 했다.

## 제4기

제4기는 작품세계의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1969년부터 1979년까지로 비디오 예술의 주요한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일단 작품을 몇 단계로 분류하자면, 비디오 예술, 행위예술이라는 샬롯 무어만과의 새로운 형식의 예술 장르를 구축한다. 무어만은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브라〉(1969)를 비롯하여 〈TV 첼로〉(1971), 〈TV 안경〉(1971) 등의 장치를 착용하고

백남준과 공연을 했다. 이때 TV에는 공연장을 실시간으로 비추거나 실제 진행 중인 방송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그리고 다른 장치들로 인하여 텔레비전의 영상은 왜곡되었다.

1969년에는 비디오 영상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신디사이저가 완성된다. 〈전자오페라 No.2〉(1970), 〈비디오 간담〉(1970)과 같은 비디오테이프를 변형한 초기 단채널 비디오 예술이 만들어지고, 1973년 〈존 케이지에게 바침〉, 〈글루벌 그루브〉와 같은 대표작들이 형성된다. 또한 1974년에는 폐쇄회로 장치를 이용한 〈TV 부다〉, 그리고 비디오 설치작품 〈TV 정원〉이 발표되어 많은 인지도를 얻게 된다.

## 제5기

제5기는 1980년부터 타계한 2006년까지로 작품세계의 확산기이다. 백남준은 테크놀로지의 기술적인 발전과 다른 첨단 매체의 발전들을 모두 수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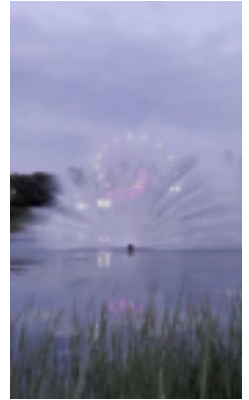
〈마르코 폴로〉, 1993



〈레이저 콘〉, 1987



〈동시변조〉, 2000



〈올림픽 레이저 워터스크린〉,  
2001

작품 일부를 구성한다. 먼저 비디오 예술은 스펙타클한 다채널비디오 설치로 나아간다. 4기에서는 텔레비전의 대수가 많아도 단채널이었지만, 여기에는 2채널과 3채널이 기본이 된다. 1995년도에 〈메가트론/매트릭스〉는 215대의 텔레비전으로 8채널을 구사했으며, 〈슈퍼 하이웨이〉는 313대의 텔레비전으로 47채널을 보여줬다. 텔레비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1988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다다익선〉으로 1003대의 텔레비전이 활용된 3채널 작품이다. 그리고 영상의 방향 또한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해졌다.

1986년부터는 조형성이 강한 로봇조각과 조형물들이 등장한다. 물론 1970년대 초반 〈TV 침대〉(1972)와 같은 조각 작품들이 있긴 했지만, 이는 장식성이나 조형성이 없이 텔레비전을 나열하고 그 위에 플렉스 글라스를 덮어 놓은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제작된 비디오 조형물들은 조형성과 장식성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표면적 장식성은 다양한 오브제의 부착으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다.

1989년부터 백남준은 비디오 조형물에 반도체,

회로, 전선, 네온을 부착하여 시각적으로 화려한 조각들을 만든다. 그리고 또 다른 첨단 매체에 대한 실험도 이어나간다. 그중 비디오 프로젝션을 활용한 작업과 레이저 작업이 있다. 먼저 프로젝션이 사용된 작품의 첫 발표는 1982년으로 〈지구상의 중국인보다 하늘의 별이 더 많다〉와 〈달걀 프로젝션〉이다. 그리고 1988년의 〈촛불 하나〉, 1990년 〈보이스 프로젝션〉 등 텔레비전 대신 프로젝션을 활용한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제작된다.

레이저의 경우 처음 시도된 작품은 1980년도의 〈레이저 비디오 공간 I〉이다. 백남준은 몇몇 글에서 앞으로 레이저 예술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레이저 예술을 연구하여 2000년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취지로 기획된 구겐하임미술관의 전시에서 〈동시적 변조〉, 〈삼원소〉와 같은 걸작들을 발표한다.

백남준은 1996년 쓰러진 뒤 몸을 혼자서 겨누기가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다채로운 모습으로 확장해 나갔다.

# 빨래판 작가 오성만의 추상적 조형과 소박하고 질박한 한국적 미

박숙현 \_ 작가





얇은 빨래판, 계란판, 폐목재, 폐콘크리트덩어리에 예술성이 깃들어있는 것일까. 하찮고 버려지는 물건을 예술작품으로 승화해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는 오성만 선생.

오성만 선생은 재료와 매체에 대한 고민과 성찰, 그리고 부단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오브제를 능숙하고 자유롭게 다루면서 독창적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철학적 성찰과 예술적 감수성으로 물성의 본질을 거스르지 않는 순리적 구조와 과욕을 부리지 않는 중도적 표현으로 소박한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낡고 버려지는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고 스펙트럼이 깊고 넓은 추상적 조형 세계를 펼쳐보임으로써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오성만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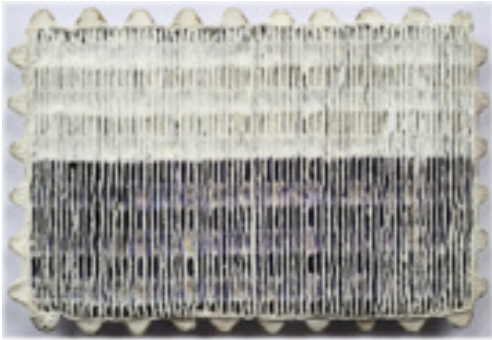
“감각적 본능이에요. 보잘 것 없는 사물에서 예상치 못한 작품성을 발견하는 거죠. 심미안이 발현된다고 할까요. 일상적 오브제를 현대적 조형 언어로 변용하여 창조적 유희를 통해 자유롭게 실험하고, 심상이 담긴 조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나의 작업은 특정한 형식이나 전형에 얽매임이 없이 자유

분방하고 매혹적인 표현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택 이전에는 버려진 부목이거나 흔한 돌덩이일 수 있으나, 특별한 이유로 내게 교감(선택)되어진 순간 이미 돌이나 부목이 아닌 것이죠.”

오성만 선생은 재료의 물성에 몰입해서 사유를 증폭시키고, 하찮은 재료에서 미적 충동을 느껴 자신만의 상상을 더해 색깔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말하자면 삶에서 마주하는 일상의 하찮은 물질에서 가치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반추하여 오성만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평범한 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통찰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 화업 34년

빨래판 작가로 불리는 오성만 선생은 화업 34년이 됐다. 30년 넘게 빨래판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그는 빗살무늬 재질을 미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면서도 오브제의 재질감을 자연스럽게 살려내 마음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의 작업은 빨래판을 쪼개어 붙이거나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형상화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적인 재료에서 벗어나 새로운 매체에 대한 탐구를 통해 표현적 특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빨래판, 계란판, 돌, 한지, 청바지 등 고유의 성격을 그대로 지닌 사물들이 작품 속에 어우러져 성숙한 조형성과 회화성 짙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편의성에 따라 사용되었던 다수의 사물들을 발견하는 것은 세대를 아우르는 즐거움이다. 그의 빨래판은 일상적인 재료를 오브제로 도입하여 평면, 입체, 정형과 비정형이 자유롭게 조화를 이뤄 그림과 조각이 분리되지 않는 조형을 이룬다.

“흔한 사물을 소재로 선택해 물감을 입히고 혹은 서로 혼합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재창조하고, 또 다른 풍경으로 그려내는 것이죠. 이미 사용되고 소비된 일상의 사물이 나의 손을 거쳐 작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은 익숙하면서 낯선 감정의 교차를 불러일으키겠죠. 내가 표출한 작품을 보며 소재에 대한 나의 숙고와 선택, 영혼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한국적 정서가 배어있다. 자연 형태의 단순화, 부드러운 원색의 강조, 오방색 계통의 회화적 요소가 빨래판 위에서 조형적 언어로 펼쳐진다.

청년의 열정으로 빨래판을 선택했던 그는 환갑을 넘긴 요즘도 변함없이 빨래판 사랑을 과시하면서 세탁기에 밀려나 찾아보기조차 힘들어진 빨래판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머지않아 빨래판으로 자동차를 덮어볼 구상을 하면서 중고자동차를 한 대 구입해 봤다.

“이제 저도 환갑을 넘기다보니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 갈수록 수월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고되고 힘들지만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땡 뚫린 것



처럼 허전하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가 있음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마다 새로운 시도가 짜릿하기에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 컴바인 페인팅으로 표현한 작품 세계

오브제는 현대 미술의 출발점이다. 현대 미술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 가운데 하나가 재료와 매체의 확대다. 오성만 선생은 물감과 같은 전통적인 재료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물들을 변용하고 재해석해 무궁무진한 작품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오성만 선생은 하찮은 일상의 재료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풀어내 멋진 작품으로 완성해 내고 있다.

오성만 선생이 추구하는 재료는 작업 내용의 메시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의 한 부분으로 작품 속에서 내면의 정신성을 나타내고, 표현된 조형언어는 컴바인 페인팅(combine painting)적 표현을 추구하고 있다. 컴바인 페인팅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전통적 방식이 아닌, 일상의 모든 사물과 버려지거나 파기된 물건을 조합해 콜라주 형식으로 완성하는 기법이다. 컴바인 페인팅은 2차원, 혹은 3차원적 물질을 회화에 도입한 것을 말한다. 캔버스나 종이 화면 위에 그림을 그리는 보편적인 표현 방식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사물과 물질을 도입해 표현하기 때문에 일종의 확대된 오브제 혹은 콜라주라고 할 수 있다.

컴바인 페인팅에 쓰이는 팔래판이라든가, 한지,



청바지 같은 오브제는 이미 우리가 익히 보아왔거나 알아왔던 사물이 아니다. 서로 결합되고 융합돼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작가의 관심과 상상력에 의해 특별한 조형언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오성만 선생이 취한 재료의 물성에 깃들여 있는 메시지는 작가의 내면세계와 어우러져 정취와 형식을 드러내는 이미지로 표출된다.

“재료마다 메시지가 깃들여 있죠. 내가 굳이 뭔가를 제시하려들지 않더라도 저절로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은 감상자의 몫이죠.”

작가가 선택하고 추구하는 재료는 메시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인 셈이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의도하는 내면의 울림이 이미 재료에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오성만 선생은 독특한 기법으로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빨래판에 삶의 이야기를 담아왔다. 독자적인 재료 실험에 몰두하면서 빨래판의 물성을 담아내는 공간 구성의 미학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빨래판 외에도 한지(韓紙), 계란포장지, 향아리, 철사 같은 생활주변의 술한 재료와 매체에 대한 부단한 실험과 연구가 이어져 왔고, 보다 넓고 깊은 스펙트럼의 조형언어를 구축해 왔다.

오성만 선생은 한지 한 장을 앞에 놓고 기존 방식에서 해각(解角) 하기 위해 고민에 빠져들고, 빨래판을 자르고 붙여 퍼즐처럼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무아지경에 빠져든다.

오성만 선생은 이같은 재료와 작업을 통해 한국적 추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절묘하게 결합된 평면·입체 공간 속에 독창적인 무한 세계를 펼쳐내고 있다. 어느 한 장르에 갇히지 않고 모든 조형적 요소를 보여

주며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 현대적 조형미를 추구하고 있다.

외형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는 오성만 선생의 작품에는 고졸하고 질박한 아름다움과 독특한 감성의 한국적 미가 깊게 흐른다. 늘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추구하면서 ‘그림 한 점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을까’를 화두로 삼는 오성만 선생.

“한국인의 정서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지나친 조작을 멀리하는 거죠. 고졸하고 단아한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게 내 작업의 주안점이에요. 말하자면 조작적인 기교(技巧)와 교졸(巧拙)함을 걷어내고 소박하고 질박한 고졸(古拙)미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성만 선생은 긴 시간을 인내하고 수행하는 구도자와 같다.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의 인식 한계 내에서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변형시키고 재구성하는 힘은 작가의 마음속 내면세계에서 생기는 창조적 상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마음의 영감을 자극하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작품 의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교 및 테크닉에 의해 그려지거나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감성과 영감으로 표출되는 작업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용인문화원 주최 용인 문화도시 간담회

# 용인 문화도시 어디까지 진행됐나?

정리\_ 편집부



용인시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제 5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참여, 9월말 예비 문화도시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용인시는 1년간 자체 예산으로 예비 사업을 추진한 후 실적 평가와 심의를 통과하면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된다.

용인 문화도시 응모는 지난해 4차에서 탈락한 후 수개월만의 재도전이다. 법정 문화도시의 핵심 키워드는 민·관 거버넌스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문화예술계가 배제된 상태로 진행됐다. 올해 용인 문화도시 사업 공모의 핵심 키워드는 도시숲, 생태숲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역내 문화예술계 관

계자들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이에 용인문화원은 지난 7월 25일 긴급 간담회에서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한 용인시의 운영 방향과 입장, 민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의원, 시청 공무원, 언론인, 그리고 사실상 문화도시 공모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이 참석했다.

- **참석자**(가나다순)
- **진행** : 김종경 용인신문 발행인
- **토론** :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박숙현 용인문화원 이사  
박은선 용인시의회 의원  
이명희 용인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전지영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정양화 용인문화원 부원장  
최현석 용인예총 사무국장
- **일시** : 2022년 7월 25일 오후2~4시
- **장소** : 용인문화원 회의실

● 김종경 : 현재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5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이 사업은 민관거버넌스 일환으로 추진 중이지만 용인지역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은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도시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

됐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한다. 따라서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의 설명을 먼저 듣고자 한다.

● 전지영 : 지난 3월 센터장에 발령받아 6월 공모사업 제출까지 3개월밖에 없었다. 지난해 떨어진 사유가 시민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과 언어로 이뤄진 점, 일반 시민과의 접촉이나 거버넌스 지점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였다. 작년 보고서가 지나치게 전문적인 언어와 특정 몇 개 단체만 꾸릴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됐다. 또 문화예술이 아닌 시민운동 차원의 내용이 부분이었다는 것이 아쉬웠다.

올해 예비 문화도시는 시민 설문조사와 프로젝트 시행 등 급하게 시민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작년에 이어진 것이라 잘한 것은 두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작년 계획서는 정책 연구집이었을 뿐 정서적 어필이 부족했다. 3개월간 서사 구조 이야기를 담아냈다. 문화 마실이라고 해서 환경, 청년, 장애 등과 간담회를 10차례 했다. 카테고리 중 문화예술이 마지막에 있어 아직 못 만난 것이다. 작년 검토서가 환경운동, 시민운동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문화예술 접촉점이 없어 올해는 문화도시 계획서 조성범위 안에 거리박물관 조성 등 도시정책사업,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보완했다.

● 김종경 :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듣기로 하고, 3개월

간 추진했다는 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 전지영 : 센터장이 6개월 동안 공석이였다. 센터장 공모에 당선돼 3월부터 근무했다. 실제적 텍스트 만들어내기 위해 문화마실 등을 통해 300여 명을 만나는 등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시민과의 미시적 만남을 통해 시민 마음 받아들이는 디테일을 만들고 싶었다.
- 김종경 : 3개월의 짧은 시간은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에도 급조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 문화예술과 입장은 무엇인가.
- 이명희 : 올해 1월에 와서 내용을 사실 잘 모른다.
- 김종경 : 지난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문화예술계가 배제되고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특정 시민단체들만이 참여했다. 5차 문화도시 신청 역시 어떻게 진행됐는지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은 공유하지 못해 아무도 모른다. 참석자 순서대로 질문해 달라.
- 김장환 : 용인문화원은 2014년부터 ‘문화도시 용인’을 위해 리플렛까지 만들기 시작했다. 문화에 관심이 없던 용인시가 문화정책으로 문화도시 지향을 표명한 것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다. 작년 2, 3월 짧은 시간에 법률 조례제정, 전문가 특강을 했으나 기대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은 몇 년씩 준비했는데 워낙 시간이 짧았다. 올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올해 5차 법정 문화도시 추진에 대해 엄밀히 얘기하면 행정체계에서 평가와 피드백이 중요하다. 지난해 안된 이유가 뭔지,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의정부, 수원, 군포 등 선정된 다른 지역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참고했어야 한다. 다각적 측면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진행됐어야 한다. 올해 용인문화재단이 작년에 이어 문화도시 센터까지 설립해 추진했는데 작년과 다를 게 뭔지 의구심이 든다. 작년에도 3개월 추진해서 6월에 신청했고, 올해도 결국 같은 전철을 되밟은 게 아닌가.

또 하나, 작년 실패 원인은 전문가 용역사업처럼 추진했기 때문이다. 올해 시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수십 년 용인의 문화를 연구하고 문화계에서 밥 먹고 산 전문가들을 전부 배제한 게 큰 문제였다. 그런 분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다.

- 최현석 : 우리의 가장 불만은 소통 부재다. 문화도시 관련 정보나 문헌, 영상, 어떤 파일도 비공개로 되어 있다. 이는 소통의 부재를 넘어서 용인시와 문화재단의 문화정책이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홈페이지에서 용인문화정책을 검색하면 포럼, 설문조사, 위촉식 등 행사 소식만 나온다.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해 수원·고양·성남·부천·한국예총 등의 홈페이지엔 정관이 공개돼 있다. 용인문화재단만 규정이



나 정관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른 데는 규정집부터 인사규정과 복무규정까지 다 올라가 있다. 결국, 용인문화도시 추진 과정이 폐쇄적이고, 공유하지 않는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아닌가 싶다.

- 김종경 : 문화재단 운영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참고하고, 반영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정보 공유 부분에 대해 문화도시센터장이 답변해 달라.
- 전지영 : 시와 재단 등 운영기관이 올해 공모사업에 내겠다고 결정한 이상 최선의 방식은 많은 분을 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다. 수원시는 문화도시사업 이전에 생활문화사

업을 10년 이상 해온 도시다. 용인에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고민해온 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문화예술이 빠졌다고 생각했다. 용인은 시민문화가 더 세다고 느꼈다.

- 김종경 : 앞서 지난해엔 보고서 자체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코드가 그쪽으로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문화도시임에도 거기에 문화예술 전문가가 끼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 전지영 : 작년 보고서에 문화예술분야가 거의 없었다.
- 김종경 : 법정 문화도시는 역사, 전통, 예술, 문화,

사회문화 등 분야별 융복합이고, 그 기초는 문화예술인데 배제됐다는 것이다. 오늘이 자리는 센터장이 3개월 동안 일하면서 느낀 대로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5차 문화도시 공모 당락 여부를 떠나 용인 문화도시가 되려면 문화도시센터 구성부터 민관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용인의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단체장들이 문화도시센터 조직 구성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데, 센터장 혼자 고민했다는 말은 납득이 안된다. 센터장의 견해는.

- 전지영 :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아니 찾아뵙지 못한 거다.
- 김종경 :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다.
- 전지영 : 제안을 주면 잘 반영하겠다.
- 김종경 : 결국, 민간이 배제된 상태의 거버넌스 추구 아닌가?
- 전지영 : 문화도시팀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과정이 있다.
- 김종경 : 과제만 있는 거 아닌가. 실제 활동을 같이 하는 분들은?
- 전지영 : 팀장 1명과 프로젝트 매니저(외부기획자) 1명, 직원 6명이 있다. 다른 도시에 비하면 시 규모에 비해 소규모다.
- 김종경 : 시청 문화예술과는 어떤 형태인지, 위탁인가?
- 이명희 : 협력이다. 시에서 행정지원하고 있다.
- 김종경 : 2014년부터 용인문화원이 문화도시를 주창했다. 그런데 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단체를 배제하고, 문화

재단에 위탁 추진 결과가 현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 전지영 : 문화원은 문화예술에 더 방점이 있다. 문화도시사업 정부조례에서는 예술가나 특정 단체 지원은 하지 않는다. 예술가 지원사업은 이 틀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술가 지원사업은 기존 문화예술 지원사업 구조로 한다. 이 사업은 시민이 온전히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사업이 기초다.
- 김종경 : 그 부분이 역차별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닌지. 법정 문화도시 자체가 역사, 전통, 문화예술분야가 다 들어가 있다. 기본이 문화예술 아닌가.
- 전지영 : 기본이 문화예술을 말하지는 않고 있다.
- 박은선 : 덧붙여 말하자면 시민이 주도하는 것은 맞는 얘기다. 용인에 살고 있는 예술가도 용인시민이고, 시민주도하에 우리 예술가들이 매개자가 돼 중간에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지영 : 100% 공감한다. 모든 사업은 매개자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
- 박은선 : 문화재단에서 민간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를 끌어안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 정양화 : 문화도시를 할 때 문화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지 일부 계층이나 대상자만 칭하는 개념은 아니잖나.
- 박은선 : 우리 문화예술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문화도시가 반쪽짜리 아닌가.
- 김장환 : 문화도시 사업은 말 그대로 시민 중심이

맞다. 시민이 중심이 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과 관, 민관 거버넌스가 그런 개념이잖나. 문화도시 지향점을 공유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문화도시 사업은 지원사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광부에서도 요구하는 게 민간과 지역 문화예술전문가들과 관이 함께 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말 그대로 그 지역 전문가는 다 배제된 거다.

- 전지영 : 맞는 말이지만 작년에 전문가가 배제된 트랙은 아니다. 시민문화단체, 생활문화단체 단체장, 느티나무 도서관장 등 그런 분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다.
- 김장환 : 지난 얘기지만, 느티나무 도서관은 시민단체 영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민예총, 예총, 문화원은 다 배제됐다. 아무도 참여 안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관심 있다. 심지어 문화원 원장은 작년에 “도대체 여기가 전문가인데 여기 다 배제하고, 어떻게 추진하는 거냐?”고 질문했다.
- 전지영 : 저도 올해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 박숙현 : 앞에서 올해 문화예술 분야를 보완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나?
- 전지영 : 특성화 사업이 있고, 일반사업이 있다. 일반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적인 유산 소재를 발굴, 관찰하고 재창조하는 일이다. 그걸 하려면 예총, 민예총이 문화유산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도시엔 어떤 재원이 있고

무얼 할 수 있는지 자문이나 매개자 역할을 하기 위해 트랙에 들어와야 한다.

- 김종경 : 이 자리는 시와 센터를 공격하는 자리는 아니다. 문화원, 예총 입장이나 관계자들 입장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 바란다. 오늘 시간이 비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 (…중략…) 본론으로 들어와서 용인시가 5차 법정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핵심 키워드는?
- 전지영 : 일반 시민들과 토론할 때 지역 특성화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 문화도시로 작년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결정했다. 도시숲 페스타라고 해서 용인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대도시성이 도농복합적인 것을 용인 특성화의 가장 큰 키워드로 봤다.
- 김종경 : 생태숲, 도시숲과 관련된 공감대 형성은 어떻게 했나?
- 전지영 : 시민 여론 수렴 1순위를 키워드로 뽑은 거다.
- 김종경 : 자연공원에 대한 욕구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다. 이것과 용인 문화도시와 얼마나 (친밀한) 공감이 되는지 차례대로 밝혀달라.
- 박은선 : 여론 설문 몇 명 정도 했고, 연령대는?
- 전지영 : 4000명 정도이고, 30~40대가 제일 많았다.
- 박은선 : 4000명이 생태도시에 공감했다는 게 놀랍다. 그런데 저는 생태도시가 약간 와 닿지 않는다.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 역사, 반도체라면 납득이 될 것 같은데.
- 정양화 : 다 좋은데, 과연 차별화되고 용인을 특징





지워주는 게 될 수 있을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라고 본다. 공감은 별루다.

- 박숙현 : 도시숲, 자연, 인간의 조화 이런 거는 다 좋은 말인데, 그건 지역에 특화된 문화 자원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것에서 키워드를 뽑아낸다고 생각한다. 용인은 문화자산의 보고인데 이걸 놔두고 용인의 특성화, 문화도시의 특성화를 끌어냈다는 게 좀 이해가 안된다. 자연이나 인간 등은 전국 보편적인 것이라고 본다.
- 김장환 : 그것이 문화도시의 지향점이거나 비전으로서의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살아온 터전으로서 모습을 돌아볼 때 생태적 자연환경이 용인의 키워드로 내

세울 수 있을 만한가에 대해 상당히 거리가 있다.

- 이명희 : 4000명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받아 들였다. 도출하기까지 석달 동안 많이 노력했다. 키워드 선정까지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 박숙현 : 용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나. 거의 외지에서 이주한 분들이 대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설문조사의 공신력이 몇 프로나 될까.
- 최현석 : 같은 입장이다. 5차 예비도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재단 관계자에게 지역문화예술인 소외 이유를 물으니 지역 문화진흥법에 근거를 둔 문화도시 사업이

므로 여기는 시민문화, 생활문화가 중심이라고 했다. 또 그는 그전에 시민주도 사업들이 관이 뒷받침을 안 해줘 문화도시 사업이 망가진 게 많다. 그래서 관이 주도하거나 깊이 간여하는 식으로 평가가 풀렸다. 그래서 시와 재단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 중심으로 간다고 했다. 그게 맞는지, 아니라면 왜 그런지 우리가 진단하고 넘어가야 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가 우선인가?

- 전지영 : 우선 문화도시 사업은 생활문화 중심사업이 맞다. 문화도시에서 예술가나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서의 내용은 가져가지 않는 다라는 기초를 밝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문화도시 조성을 문체부에서 말할 때 문화예술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생활문화 중심 기초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일단 예산이 생기는 문화도시 사업구조 안에서 이해관계로서 접근하는 분이 일단 많다. 그것 때문에 조심스런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의견수렴도 어디까지 시민으로 지정해야 할지가 어려운데 일반 시민부터 접근해야 한다. 오랫동안 살고 계신 대표 시민이 역사와 문화 소양을 가졌지만 도시가 30년, 50년 되면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편협할 수 있고, 그분들만의 내용일 수 있다. 지금 실제 살고 있는 도시민들, 지금 100만의 인구들이, 혹은 20대 친구들이 이 도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까가 중요하다. .

- 김종경 : 정리하자면 5차 법정 문화도시 키워드 컨셉은 도시숲인 셈이다. 그런데 아까 밝힌 생활문화 부분은 문체부 법정 문화도시의 기본적인 그림 5가지 중 한 가지인 사회문화분야의 한 부분이다. 여가와 생활문화 쪽이다.
- 전지영 : 우리가 지역 특성으로 냈기 때문이다.
- 김종경 : 큰 카테고리가 5개인데 그중 용인시는 생활문화쪽을 찾은 것 같다. 실제로는 문화도시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다.
- 전지영 : 문화도시는 유형별로 지원하게 돼 있다. 전통분야로 지원할 거냐 예술 분야로 지원할 거냐.
- 김종경 : 전통, 문화, 예술, 사회문화, 지자체 자율형 등 그중에 용인에서는 생활문화 쪽으로 이해하면 맞는 것 같다.
- 최현석 : 그렇기 때문에 전문 예술인이나 전통문화, 역사는 맞지 않다고 한 것이다.
- 김종경 : 여기 오신 분들은 도시숲에 공감을 많이 못해 주셨다. 센터는 시민 여론조사를 내 세울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원주민들, 토착민 이야기가 더 무게 중심에 실려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 전지영 : 작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갔다.
- 김종경 : 작년에 잘못됐기 때문에 똑같이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는 거다. 현재는 원주민, 전통 부분이 많이 배제됐고, 외부에서 새로 이사온 분들이 많다 보니 시민 욕구

에 대한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다. 과연 용인에 문화콘텐츠가 없을까. 역사, 전통, 예술, 문화 등 다양하다.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 최현석 : 문체부 담당 사무관에 의하면 지금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1차 신청 접수서류의 방향성과 객관적인 것들이 흐트러지면 안된다고 하는데.
- 전지영 : 그렇지 않다.
- 김종경 : 그건 이번에 1차 서류 심사가 되고 나서 얘기고, 지금은 과연 용인에 어떤 문화콘텐츠가 있는지 들여보자는 거다.
- 전지영 : 일반사업으로는 용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 재조사, 재창조 하자는 의견이 있다. 또 비전 안에서는 사람, 자연, 일상이 어우러진 문화 공생도시라고 했을 때 결국 문화예술적 가치로 공생하는 도시로 만들자는 게 비전의 핵심이다. 일반사업의 큰 트랙은 산재된 문화예술자원을 구심력 있게 시민이 관심 가지고 모아 재구성하자는...
- 박숙현 : 용인은 수많은 문화유산자원이 있는데 그걸 뒤로 빼놓은 채 이번 5차 의제로 상정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꾸로 캐내자, 이는 원론적으로 애초에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질적으로 지역을 정확하게 알고 진단하고 개발할 사람이 포진돼야 한다.
- 김종경 : 민관협력 방안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 참여자 면면을 보면 지역 전문가가 배제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 최현석 : 지금 현재 5차 법정 문화도시를 신청한 것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문화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가.
- 전지영 : 생활문화중심 시민 주도형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나. 교육도 받고 이해도도 가지려면 선배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매개자로 들어와 함께 멘토링도 해주고 가이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일차적 문화도시의 트랙이다. 문화시민 발아, 양성이다.
- 박은선 : 큰 그림에서 70%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니 1차 통과되면 지역예술인이 참여할 계획 돼 있나?
- 전지영 : 예술가 지원사업처럼 돈을 주고 사업하라는 건 아니다. 시민이 거리박물관을 조사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멘토, 매개자로 들어가서 교육하는 거다.
- 김종경 :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정보 공개가 안 돼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다. 선정 후라도 민관이 협력하는 문화도시로 간다면 금상첨화겠다.
- 최현석 : 빼놓고도 갈 수 있다. 재단에 버스킹, 아트리너, 생활예술인 등이 있어서 가능하다.
- 전지영 : 그렇지 않다.
- 김종경 : 문화도시로 선정된다면 민관협력이야 당연하지만 지금 당장 센터에 민간이나 지역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문화정책과에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이제 돌아가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자.

- 정양화 : 80년부터 문화원에서 활동해 40년 지났는데,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말자. 아까 박물관 없다고 했는데, 있다. 경기도박물관. 또 미술관이 없다고 하는데 있다, 호암미술관. 역대 시장들이 말한 거다. (그렇다면)경기도박물관 없애고, 임대아파트 지어서 분양해도 된다. 서울 국립박물관이 한 시간밖에 안걸리는 데 뭐가 필요하겠나. 또 용인은 박사, 교수 아니면 안 시킨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문적 성취는 있을지 모르지만 용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다. 몽땅 달라는 게 아니고, 같이 조인해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 김장환 : 근본적으로 문화도시가 모든 사람이 숙원하는 미래상인데 왜 이런 혼선이 초래되는가. 용인시의 5년, 10년, 50년 뒤를 내다보는 문화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정책이 있다면 이렇게 논란할 필요가 없다. 로드맵만 따라가면 된다. 문화재단도 문화정책 개발 기능은 못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생활문화, 전문예술인 부분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법정문화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5년 동안 2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차후엔 예산 배정의 문제, 이권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돈이 결부돼 생활예술 아마추어랑 전문예술인이 경쟁했을 때 누가 이길까, 전문예술인이 이긴다. 그런 걸 차단 시키기 위해 생활예술로 간다는 측면도 있다. 저변 확대를 위해 풀

뿌리 문화에 방점 두고 갈 필요는 있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 다른 지역은 문화도시센터 내에 시민문화배심위원단을 만들기도 한다. 예산 운영과 정책사업을 시민이 심의 심사하고 결정 내리는 거다. 심도 있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운영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다. 이런 제도를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최현석 : 아까 70%가 문화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논의 과정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 전지영 : 작년에 논의 구조를 충분히 거쳤다고 저는 생각했고, 올해는 작년에 논의하지 못한 것을 했다.
- 박숙현 : 문화정책이 잘된 도시였다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 등 수많은 콘텐츠 자원을 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갖춰졌을 거다.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런 것부터 조사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시민들이 나와서 창의적, 주체적으로 놀수 있다고 본다. 글로컬 시대에 용인을 하나의 문화예술 공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용인은 문화적, 세계적 도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정 문화도시가 되는 게 첫 번째 바람이고, 이번에 안된다면 다시 생각하는 용단도 필요하다고 본다. 되더라도 적극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박은선 : 서류가 1차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모임 있다는 게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자

리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다. 집행부, 시민, 문화예술인 중간에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불거졌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에서 더 많이 신경 써서 모든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다 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문화도시 되든 안되든 이걸 매개로 문화가 붙었으면 좋겠다. 용인에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인력 누수 현상이 굉장히 많다. 이걸 매개로 되든 안되든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고, 용인에 오면 신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올해는 자치과, 도시재생과, 관광과가 다 같이 협력해 문화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노력 많이 하겠다.

- 김종경 : 문화도시 센터장께서 정리 답변 바란다.
- 전지영 : 시민분과 등 그 밑으로 한 열 개정도 구성하고, 시정책 담당관이 한 분씩 들어오는 책임 소재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용인 정도의 도시라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어느 도시건 재단은 정치 중립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이해관계 아닌 감정적 이슈 없이 돌아가고 있는 도시여야 한다. 센터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의견 듣고 종합하면서 어떡하면 문화예술적 방향성을 도시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하는 구조인 것 같고 이는 시가 정책 차원의 문화정책 틀을 갖춰서 정치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쪽 이어

지는 꾸준히 갈 수 있는 체계가 세워졌어야 한다는게 저의 종합분석 내용이다.

- 김종경 : 오늘 이 자리는 용인 문화도시를 염원하며 문화예술계를 대변하는 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좋은 의미로 용인 문화도시를 위해 첫발을 내딛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모두 수고하셨고, 좋은 의견 감사드린다.

#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특례시 수원

2021년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16개 도시 중 수원을 포함한 6개 도시가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2022년부터 5년 동안 국비, 시비 포함하여 최대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의 비전을 구체화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회를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삶의 터전인 우리 도시의 현안에 대해 시민 스스로 대화하고 실천하며 개인의 삶과 도시의 문화적 전환을 시도하는 문화자치의 바탕을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선옥 \_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 문화도시, 시민에 의해 결정되는 도시의 운명

올해도 4차 법정문화도시, 5차 예비문화도시를 많은 지자체가 준비 중에 있다. 문화도시를 향한 지자체의 관심과 경쟁 속에서, ‘왜 문화도시인가?’ 본질적 질문을 던져본다. 문화도시는 기존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규모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대형 이벤트 등 일회성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전체를 바라보며 문화적 상상을 하되, 일회성 단기사업이 아닌 5년 이상을 내다보는 도시문화정책이다.

추진과정 또한 기존의 중앙 주도, 관 주도의 하향

식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시민들의 자율과 참여의 상향식 사업구조를 지향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문화도시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가 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자치분권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자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도시가 가지게 될 문화 브랜딩 효과 등으로 여전히 많은 도시들이 문화도시를 열망하는 게 아닐까 싶다.

## 문화도시를 향한 10년의 여정

수원은 이미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2011년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

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화했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현재의 문화도시 지정 이전에 이미 기초 단위 조례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문화도시로의 지향을 선언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2013년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삶이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비롯한 풍부한 문화 인

프라를 가지고 있는 인구 120만의 광역급 대도시 수원은 모든 것을 갖춘 듯하지만, 광역급 기초도시가 가진 성장의 딜레마와 역차별 속에서 도시 내부의 불균형과 결핍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1990년대 영통·정자지구, 2000년대 광고·호매실지구 등 원도심 외곽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는 지속적으로 팽창해왔고 이 과정에서 원도심과 신도시, 서수원과 동수원의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 팽창으로 공동체의식과 문화적 동질감 약화, 입주민 갈등, 문화 인프라 부족, 환경 및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도시 문제들에 직면해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재정 악화, 문화생태계 위축, 돌봄 공백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문화도시를 향한 과정은 시민들과 함께 이러



2021 수문장(수원형 문화직거래 장터) 참여브랜드



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그리는 작업이다.

문화도시 수원을 향한 여정은 2018년 문화도시 마중물 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된다. 2020년 말, 41개 도시 중 최종 10개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면서 2021년 예비단계 사업을 진행했다. 2021년 3월 수원문화재단 내 문화도시 센터를 설립하고 총 18억 예산으로 문화도시 주체-공간-특화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 핵심인 시민협의체 수원 나우어스(SUWON X NOWUS) 구성, 광역급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내 동행공간 23개소 지정, 씨티메이커스(대화모임)와 씨티플레이어(실천모임)로 이어지는 시민주도 R&D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수원다운 로컬에 주목한 다양한 도시여행 콘텐츠 개발과 지역 브랜드 발굴 및 수문장(수원형 문화직거래 장터)을 통한 유통, 인문도시 특성화 사업으로 인문도시주간과 수원공공예술 등 총 20개 사업을 펼치며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만명이 넘는 시민들을 다양하게 만났다.

2021년 예비단계의 다양한 사업 성과와 추진역량을 인정받으며, 수원의 강점인 풍부한 문화 인프라와 시민주도 거버넌스를 엮어 대도시 문화도시 모델을 제시하면서 수원에는 제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받게 되었다.

2022년은 5년차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향후 5년간 추진될 ‘법정문화도시사

업’ 1년차를 진행하면서 문화도시를 향한 10년의 여정 증반에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로를 살피고

###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문화도시 수원의 비전은 역사적 가치로부터 출발한다. 수원은 1796년 정조에 의해 건립된 계획도시이자 신도시로 효 사상과 함께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정신을 기초로 하며 실학을 통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구현된 도시이다. 정조의 애민사상에 기반한 위민도시(爲民都市) 수원에 주목하여, 사람을 위한 도시로서 ‘서로를 살피는’ 문화도시 수원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 실학을 바탕으로 조성된 계획도시 수원화성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부터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을 동시대적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수원의 도시건립 이념과 도시가 지닌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 인문에 기반하여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의 비전이 도출되었다. 이는 시민의 삶에 중심에 두고 현실의 여러 문제에 맞서 능동적으로 문화적 해법을 찾아 실천하는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다. 나와 타인을 존중하며 우정과 환대, 돌봄과 배려가 있는 ‘서로를 살피는’ 문화도시, 도시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주도하며 새로운 삶의 양식을 실험하고 꿈꾸는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의 문화도시 비전은 역사적 가치에서 출발하되,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시민적 역량과 창조적 역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담고 있기도 하다.



[ 문화도시 수원 비전 및 핵심가치 ]



[ 문화도시 수원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사람 중심의 도시 철학에 기반하여 돌봄과 배려, 존중과 환대로 '서로를 살피는 도시', 생활권별 불균형과 생태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맞서는 도시'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민, 마을, 지역, 생태가치를 핵심가치로 삼고 16개 추진과제를 끌어냈다.

'수원은학교', '수원은실험실'을 통해 시민의 성장과 사업 참여구조를 만들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실천을 모색하는 느슨한 연대와 교류의 거점으로 동행공간이 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원이 가진 풍부한 역사자원과 지역문화자원의 다양한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콘텐츠화하여 지역 안에서 문화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래서 수원이 오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를 꿈꾼다.

## 지금(NOW) 우리(US)가 만들어갈, 문화도시 수원(SUWON)

문화도시를 만드는 문화자치의 시작과 끝은 결국 시민의 문화적 역량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원 시민들은 문화자치 거버넌스의 핵심인 시민협의체 '수원 나우어스(SUWON X NOWUS)'에 참여하면서 생활권별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하면서 지역문화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 수원의 영문 SUWON을 뒤집으면 NOW US(지금 우리)가 되는데, '수원 나우어스'는 기존의 행정이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구조를 뒤집어서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예비단계에는 주제별 3개 분과 시민리더 모임으로 이루어졌다면, 2022년 법정문화도시 원년에는 대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했다. 수원 '나우회원(문화도시에 관심 있는 '어스회원' 중 2018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부터 현재까지 문화도시 사업에 1회 이상 참여 경험이 있는 회원)'의 투표로 수원화성권, 북수원, 서수원, 영통, 광교 등 총 5개 생활권역, 47명의 시민리더, 5명의 분과장을 선출했다. 이들은 월별 정례회의를 통해 생활권역의 이슈를 이야기하고 문화적 실천 활동을 펼친다. 또한 문화도시 사업 모니터링, 주요사업 예산심의 참여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2022 문화도시 수원 시민협의체 '수원나우어스' 시민리더 발족

## 문화도시 수원의 특성화 전략 '인문도시'

수원은 민선 5기 이후 인문학중심도시 조성을 도시 비전으로 설정하고 10여년 간 꾸준히 추진해왔다. 1단계 인문학 기반조성(2011-2014), 2단계 인

문학 대중화(2015-2018), 3단계 인문학 생활화(2019-2022)로 이어지면서 도서관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인문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일정한 성과도 이루었지만 한계도 나타났다. 시민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화된 점, 문사철 중심의 인문학 강좌와 문화유산 중심의 과거지향적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 점, 문화시설 확대만으로는 도시 삶에 필요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들 수 있겠다. 인문도시 10년의 성과를 이어받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도시 수원은 자율적인 시민 주체의 주도성 발현, 일상 속 돌봄과 배려 그리고 존중과 환대의 실천, 도시 공동체 문제에 대한 문화적 해결을 추진 방향으로 수립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인문 상상과 실천이 가능한 인문도시를 지향한다.

특성화 사업으로서 ‘인문도시’는 문화도시 수원의 비전인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도시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사람 중심의 도시 수원

은 돌봄과 배려, 존중과 환대의 정신으로 ‘서로를 살피는’ 인문도시이다.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 실버계층이 돌봄의 대상이자 또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는 ‘다정한 문화이웃’(문화 돌봄) 프로그램,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 양극화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좋은 인생 실험실’(문화 활력) 프로그램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차이를 차별과 혐오가 아닌 도시 다양성을 견인하는 창의로 인식하고 새롭고 낮은 이웃들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성숙한 문화시민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120만 인문 레시피’(인문적 학습과 실천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수원은 도시 개발과 팽창에 따른 공동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하며 새로운 삶의 양식을 실험하고 꿈꾸는 ‘문제에 맞서는’ 인문도시를 지향한다. 도시 현황 분석과 시민 의견 수렴 결과, 도시 압축 성장에 따른 불균형 문제가 가장 주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도시 생활권별 불균형 문제는 도심 외곽 대규모 아파트단지 구성에 따른 아파트 커뮤니티 층간 소음, 주차 문제, 유희공간 및 공유공간의 배타적 이용, 인근 타 공동체의 심리적 박탈감 등 다양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반면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 커뮤니티 활동 등 대안적 도시 공동체로서 잠재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와 가능성에 착안하여 아파트 공동체 갈등 요소를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해 나가는 ‘네모의 상상 6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상권 이동으로 화성 생활권을 포함한 원도심 쇠퇴와 노령화 가속화가 도



2021 인문도시주간 사전프로그램 ‘문화도시 실천실험’

시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원도심의 수원화성 등 대표문화유산, 근현대 문화인프라, 도서관·독립서점·동네책방·카페·소극장 등 다양한 인문적 자원들을 동시대 감각으로 엮어 새로운 인문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고 청년문화 및 로컬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오! 수원 로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도시의 경계를 넘어 전지구적 문제로 부각된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문제에 직면하여 공유문화, 플라스틱바이바이, 제로웨이스트, 자원 리사이클링, 도시농업, 팜투테이블 등 다양한 생태친화적 도시 라이프스타일을 실험하고 공유확산하는 '도시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무해한 일상' 프로젝트를 펼칠 예정이다.

인문도시로서 문화도시 수원이 지향하는 인문적 가치를 실현되고 작동되는 기본 구조는 '인문클럽'이다. 돌봄과 배려, 존중과 환대의 인문적 가치에 대해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실천하는 단위는 공공과 민간의 인문공간을 매개로 하며 다양한 경로로 대화, 학습, 실천, 활동하는 시민공동체와 예술인, 문화기획자 그룹이다. 인문적 가치와 도시 공동체 이슈에 대해 관심 있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 시민들의 느슨하고도 긴밀하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통해 인문도시는 구체화되고 도시 전체는 인문도시 캠퍼스가 된다. 구체적 의제와 프로젝트를 계기로 대화와 실천, 만남과 마주침의 경험들은 시민의 자산으로 쌓이고 이 경험들은 인문도시주간과 수원공공예술을 통해 증폭되



2022 오! 경기 문화도시 포럼

고 확산되며 새로운 반응과 실천, 나아가 도시의 문화적 브랜드로 형성된다.

## 경기권 이웃도시들의 일상적 만남을 꿈꾸며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수원은 인적 물적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서울 집중도를 완화하고 상생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용인, 화성, 오산, 성남, 평택, 안성 등 경기 남부권 도시들과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의 기획을 하면서 경기남부 문화벨트가 형성되도록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 수원과 용인은 이웃도시로서 대도시의 고민을 나누며 함께 문화적 해법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문화도시 의정부

2021 경기북부 최초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의정부!  
문화도시 의정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 시민을 기억하는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의정부는 특별하다.  
뭐가 특별하지?

백정희 \_ 의정부문화도시센터 사무국장

우리 의정부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란 모토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에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다.

한 번의 실패와 또 한 번의 도전을 해왔던 3년의 시간 동안, 미군기지로 대표되는 군사 도시의 이미지를 문화로 풀어보고자 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이에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이란 비전을 세웠고, 시민력의 연결과 협업을 통해 2021년 의정부는 예비 문화도시라는 결실을 맺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도시는 목표가 아니라,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통해 우리만의 색과 브랜드를 찾아 변화해 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 (법정)문화도시 지원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의정부만의 문화를 성장시켜 가는 것이 문화도시라 생각한다.

그 과정을 우리는 문화도시 의정부에 담으려 노력했다.

##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의정부는 서울과 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관문도시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안보도시였다. 때문에 81.54km<sup>2</sup>의 작은 면적에 8개의 미군부대가 자리해 있던 도시였다.

그 역사적 특성으로 기록과 기억이 인정되지 않은 도시. 그래서 우리 시에는 기록관, 박물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보라는 목적으로 탄생했고, 개발이란 이름으로 변해가면서 시민보다는 행정이 먼저였던 도시.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가 필요에 의해 떠난 미군부대는 매년 인구의 30%가 이동하고 있는 우리 도시의 모습과 닮아있다. 이렇듯 우리 도시는 필요에 의해 생겨난, 머물다 떠나는 도시가 되어있었다.

이런 우리 시의 모습에서 '기억'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기억'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 경험, 지식 등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기능으로, 단순히 기록,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꺼내어 활용할 때 기억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란 시민의 문화 활동을 단순히 기록,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도시의 문화가 발전되고 성장 되길 희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기억'하려는 행위 속에는 관계에 대한 존중이 내포되어 있다. 이때 기억은 단순히 죽은 퇴적층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실천적 행위로 연결될 것이다. 즉 도시가 시민을 기억한다는 건 시민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도시를 행정과 같은 선상에 두고, 도시와 시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을 문화로 풀어보고자 한다.

기록과 기억이 인정되지 않던 의정부의 '기억'은 출발을 의미하다.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 도시의 짧은 역사를 기억하고자 한다. 우리 도시의 환경, 역사, 시민, 그들의 활동을 기억하고자 한다.

이렇게 쌓인 우리 도시의 기억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 기억은 미래의 기억을 만드는 토대가 되어, 우리 의정부시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경기북부 문화관문도시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 나의 도시를 재미있게 바꾸는 쓸모있는 실험

문화도시 의정부 조성계획에는 시민의 생각과 고민이 우리 도시의 정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위한 사업은 물론, 시민의 힘으로 다양한 문화실험을 실천함으로써 자생하는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문화 실험 사업, 그리고 경기북부 문화관문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 자원, 사람을 기억하고,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담겨 있다.

올해,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행해 보고 있다.

그 중, 시민의 힘으로 자생하는 도시 문화를 만드는 46만 문화실험실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실험실의 사업은 개인의 아이디어로 도시를 재미있게 바꾸기 위한 실험인 <100만원 실험실>과 이를 심화, 확장해 도시의 사업화로 만들기 위한 실험인 <문화도시 실험실> 사업이 있다. 개인의 소소한 문화실험과 실천의 경험이 나로부터 출발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나로부터 출발해 도시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고 있다.

<100만원 실험실>은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부 최초의 무정산 공모사업으로 의정부 시민의 다양한 도전과 문화적 실험에 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처음 시작된 <100만원 실험실>은 타 도시들에서 많은 문의와 관심을 받았던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21년에는 무정산, 무탈락을 키워드로 49개의 개별, 협업 실험이 진행되었다면, 올해는 아이디어 워크샵, 당사자 심사를 키워드로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 접수 전에, 사업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워크샵을 진행해 개인의 관심사와 필요에 대한 욕구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으로 실행되기까지의 단계를 함께 고민하는 생각확장 워크숍을 통해 상호학습토론을 하여 운영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의 프로젝트가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러한 실험들은 5, 6월간에 의정부의 다양한 공간에서 39명의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험이 끝나고 난 후, 지난 7월 16일 실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진행되었다.

〈100만원 실험실〉은 1인 요리교실부터, 작곡 해보기, 비건 식당을 찾는 비건 탐험대까지 너무나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시민 문화실험은 환경, 청년, 관광&탐방, 문화이벤트, 세대공감, 인권, 주민공동체, 지역예술, 지역자원 등 9개의 주제로 분류될 수 있는데 21년보다 2개의 주제가 늘어나는 등 시민들의 문화다양성과 도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과공유회를 통해 시민들이 뽑은 재미있고 쓸모 있는 문화실험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예술가 〈레드카펫〉** : ‘우리가 설 레드카펫은 우리가 직접 깔아보겠습니다.’는 취지의 의정부독립영화제이다. 의정부에서 처음 시도된 독립영화제인 만큼 많은 출품작이 있었지만, 선정을 통해 〈영화란 무엇인가?〉, 〈자퇴생과 양복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e back home〉, 〈기생〉, 〈틔밭〉, 〈지하병커〉, 〈용덕마을〉, 〈블루시티서울〉, 〈무지개색양파〉 총 10편을 상영했다. 우리 시에는 없었던 독립영화제란 실험은 그 의미만큼 〈100만원 실험실〉의 실험지기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은 실험이었다.

**#인권 〈점자 오류, 알고 개선하자〉** : ‘우리 시의 점자 블록, 알고 찾고 개선하자.’란 목표로 우리 시의 점자 오류 찾기 실험을 진행했다. 성인과 아이들, 청소년

**안전신문고**  
 알림해 도록  
 처리결과

안전신문고 신고(SPP-2206-2205478)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검토중  
 ○처리내용 : 안전신문고를 통해 무리공사로 인한 위험(신문고:1AA-2206-069915)에 대한 답변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추가적인 필요사항은 <https://info.korail.com/mbs/news/jsp/voc> 를 통해 접수받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고객서비스 담당자 권미리(02-3149-2224)입니다.  
 담당부서 : 서울고객서비스팀

**점자오류**  
 알고 찾고 개선하자

점자블록 불량, 점자블록 미설치, 점자블록 손상

**점.오 - 서영진**

안전신문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번호(복사)  
**SPP-2206-2606563**

○ 2022.5.1 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주정차 신고는 마일리지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의 마일리지 혜택 건의하여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에서 결정  
 ※ 비회원인 경우, 로그인 페이지에서 신고번호대신한 확인 후 조회하실 수 있으신 신고

들을 대상으로 민락동 송산사지 근린공원 근처와 의정부역 근처에서 시민들과 점자 블록에 대해 알아보고, 점자블록의 의미도 배우고, 잘못 설치된 것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실험했다. 그리고 단순히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청과 국민신문고에 문의 및 의뢰,

제안하는 후속 활동들까지 진행하여 순차적 정비를 약속받았다. 개인의 문화실험이 소외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발적 활동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실험이었다.



**#소통 <당신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 ‘내 이웃, 친구, 동료를 소개해 주세요.’를 통해 이웃과 함께 시간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문화실험이었다. 의정부의 주택 유형은 70% 이상이 아파트이다. ‘아파트도 마을이다’란 컨셉에서 출발하여 실험 지기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봄별 작은 도서관에서 협력으로 추진한 문화실험이었다. 이웃, 친구, 동료를 소개해 달라며 주민들의 사진을 공유받아 아파트 공원에 전시회를 열고, 아이들의 물놀이, 에어바운스 등 놀이터를 만들고, 사진을 공유해 준 주민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낯선 주민들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실험이었다.

**#여성 <갈라진 앞머리>** : ‘운동에서 떨어진 일상 회복하기, 함께해요 팀운동’을 통해 의정부 여성들의

팀운동 경험을 확산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점점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게 되는 현실, 성인이 되어서도 단체보다는 개인운동 활동으로 축소된 여성들의 운동 활동 한계를 확대해 보고자 ‘태그 럭비’를 선택했다. 의정부의 운동 인프라를 활용해 서로 부딪히고 땀을 흘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의정부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는 실험이었다.

<100만원 실험실>은 7월에 하반기 사업이 공고되었는데, 이번에는 당사자 심사과정이 추가되어, 시민들 스스로, 타인의 아이디어 실험이 우리 도시에 필요한지에 대해 평가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0만원 실험실>의 다음 단계로 설계된 <문화도



시 실험실)은 실험실 참가자를 ‘체인지 메이커’로 명명하고 실험을 심화, 확산해 가는 사업이다. 체인지 메이커란 도시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에는 8개의 개인 실험과 2개의 단체 실험이 선정되어 하반기에 문화실험 활동을 펼치기 앞서, 7~8월에는 이들의 문화실험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실무역량 강화 워크샵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갈 예정이다.

올 해, 선정된 실험은 상반기 <100만원 실험실>의 성공으로 심화 과정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팀운동 활동을 위한 <갈라진 앞머리>, 1인 요리교실에서 마을의 요리장인과 함께하는 <혼자 라이프 요리교실>, 의정부지역 보드게임의 확장 <의정부로-마블>, 문화활동가의 네트워크를 위한 <낮가리는 작곡가의 도전기>의 4개 실험과 의정부의 이야기를 활용한 영화제작 실험, 작은 도서관 3곳을 문화로 연결하는 실험, 세대별 즐길 수 있는 소셜믹스 실험, 공동육아신문 제작과 네트워크 실험, 의삼동길의 브랜드화를 위한 골목 아카이빙 실험의 새로운 5개 실험이 추진되며, 작년 문화도시 실험실의 <도돌이표 플라스틱> 실험이 연속지원을 받아 한 층 강화된 문화실험에 도전한다.

또한 <문화도시 실험실>에서는 의정부 문화도시 지원협의체인 16개의 유관기관들과 매칭 타임을 통해 실험의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공한 문화실험은 문화도시 추진과정에서 문화도시의 기획사업으로 추진되어 연속 지원을 하고, 향후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추진하

여, 도시의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성과로 21년 <문화도시 실험실>의 사업 중 청년의 강의경력 한 줄을 만들어 주는 <백메이커 만들기>와 병뚜껑 재활용을 위한 <도돌이표 플라스틱> 사업은 문화도시 실험이 끝난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실험이다. <백메이커 만들기> 실험은 올 해 의정부 평생학습원과 청년센터에 강의를 개설하여 활동하는 사업이 연계되었고, <도돌이표 플라스틱> 사업은 의정부 몽실학교에 적을 두고 지금도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며 그리너 마켓, 의정부음악극축제 등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하여 지구 환경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직 의정부의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와 활동을 위해, 서울로 떠나고 싶어 한다.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에 태어난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었지만, 이제 내가 살아갈 곳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문화도시 의정부의 성공적인 추진이 우리 도시를 사는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기억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

3. 문화도시  
용인

# 110만의 멋진 시민-다정한 이웃이 깃든 용인, 문화롭게 공생하는 도시문화를 꿈꾸다

전지영 \_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용인의 역사와 전통, 시민 문화를 살피며 지역 문화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온 용인문화원에서 [문화도시 용인]이라는 새로운 제호로 반연간지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앞선다. 1954년 창립 이래 용인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묵묵히 달려온 문화원의 노력과 행보가 [문화도시 용인] 발행을 시작으로 지역과 도시를 넘어 더욱 문화롭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편 용인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제 5차 법정예비도시 지정 관련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관련하여 현재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이하 문화도시센터)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도시 용인'에 대한 내용은 정책에 맞



춘 초기 구상 단계로, 앞으로도 수차례의 자문과 협의를 통해 보완해나갈 부분이다. 그러기에 새로이 개편하는 의미 있는 본 호에 부족한 내용을 펼치기가 여간 조심스러우나 마중물을 올리는 시기에 대한 너



른 이해가 있으리라 믿으며, 금번 제 5차 법정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담은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과 비전을 중심으로 용인 문화도시 추진 현황 소개를 갈음하고자 한다.

## 2022년, 제 5차 법정예비문화도시에 도전하는 용인특례시

110만 용인특례시는 2020년 문화도시 조성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문화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문화도시 조례 지정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용인문화재단 내 문화도시 센터를 설치하는 등 용인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담긴 도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하여 용인의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는 지역 안에서 꽤 오랜 발아 과정을 겪어왔다. 일례로 2012년 전국 158개 기초 시군 가운데 문화인프라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4년 용인

600년을 기념한 대규모 사업을 펼치면서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용인'을 표방해오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의 문화도시 정책의 근본 취지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색'과 '지역 주민 주도의 문화적 삶 확산'에 있는 바, 시민 주도형 공동체 문화 예술 활동이 그 어느 도시보다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용인은 이미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다각적으로 갖추고 있는 특례시이다.

## 용인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도시 기본 종합 연구 및 진단

한편 용인의 문화도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현재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법정문화도시 추진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에 문화도시센터에서는 법정문화도시 추진을 염두한 도시 현황 및 문화진단 자료를 종합 분석해왔다. 관련하여 시 협조를 통해 용인의 지리적, 자연환경적 특색 및 인구 및 주거 현황, 산업 경제 환경 등 기본 도시 연구 내용을 종합



하고, 2022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용인비전 2025 중장기발전계획 등 정책 상위 계획의 기본 취지 등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용인시 문화 자원 및 문화 환경 연구를 통해 용인에 퍼져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 인력, 시민 주체 문화네트워크 등 휴먼웨어 자원들을 종합하고, 처인성 문화제를 비롯한 전통문화 축제 및 행사, 시 주관 문화 행사, 시민주도형 문화 행사, 도농복합적 특성을 살린 기획 등 도시 속 문화 소프트웨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지역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문화적 하드웨어로서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다양한 문화 기반 시설 및 활동 그리고 문화적 재조명이 필요한 문화 유적지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지 등을 확인하면서 도시가 지닌 문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였다.

한편, 정부에서 시행하는 문화도시 정책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생활문화와 일상 문화를 아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여론조사 플랫폼을 만들어 용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 속 문화 키워드, 일상 속 문화 자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였고, 원탁회의, 워크숍, 포럼 및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간담회, 문화마실 같은 소그룹형 시민 소통의 장을 통해 문화도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도시 현황 분석진단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정리해 본 용인의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용인의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첫째, 문화성 발아를 통해 도시 성장에 견줄 수 있는 성숙한 도시 문화를 조성해가고자 한다.

즉 수도권 개발도시가 갖는 문화적, 정서적 한계를 인식하고 도시의 하드웨어적 필요를 넘어 도시 속 문화 소프트웨어를 돌아봄으로써 도시 구성원의 정서적 풍요와 성숙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신(新)정주의식 창출이 필요하다.

용인에는 예로부터 수도와 지방을 잇는 길목으로서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들고났던 지역이다. 그러한



지역적 영향에 비추어 지금 용인은 다양한 인프라 시설로 시민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고자 애쓰고 있지만 21세기 디아스포라 현상과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도시를 관통하는 시민 생활문화 중심의 가치를 들여다보고 자부심 깃든 도시 정주의식을 새롭게 가꿀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도시를 통해 백만 시민의 가치를 하나로 융합하여 도시 발전의 구심점을 삼고자 한다.

2020년, 인구 백만을 넘는 대규모 도시로 거듭난 만큼 도시를 구성원의 목소리와 영향력도 방대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경제 부흥과 개발은 여전히 하향식 실행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시민들과의 공감대 조성이 어려운 바, 이제는 성숙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에 문화예술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대안적 도시 변화를 모색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종합해본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은 바로 가꿈이 부족한 도시 문화에 있다.

용인은 예로부터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혜 자연을 지닌 지역으로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이처럼 숲, 공원, 하천 등 녹지가 많고 자연이 풍부한 도시 환경을 갖추었으나 재건축, 재개발 후 관리 소홀과 방치로 인해 정작 인구 대비 누릴 수 있는 생태 환경은 부족하다. 또한 장육진 가옥, 심곡서원,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근현대 문화예술인 등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보존과 활용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용인이 가진 오롯함과 잠재력을 관찰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화예술 발자취를 해석하여 함께 가꾸어가는 공생의 태도가 도시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문화도시 용인 비전 체계와 주요 추진 내용

**멋진(龍騰) 시민, 다정한(仁人) 이웃 정신으로  
사람·자연·일상이 문화롭게 어울리는 문화공생도시를  
실현하다!**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과 우리 용인이 가진 문화적 동력을 바탕으로 문화도시센터에서 정리한 용인의 문화도시 비전은 바로 용인의 문화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공생’의 가치로 집약할 수 있다.

즉, 도시의 역사와 생활 전통에서 도출한 다양한 문화적 상생과 자연 생태계 보존 노력, 그리고 시민의 일상을 생각하는 문화도시 정책 비전을 종합함으로써 사람, 자연, 일상이 문화롭게 연결되고 어우러지는 공생의 가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구현할 동력과 지향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도시 용인의 동력은 바로 백만의 용인(龍仁) 정신이다.

문화란,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며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공유하는 삶의 습관하기에 문화도시 용인은 백만인의 용인 정신에서 출발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용인의 문화 정신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설정하였는데, 탁월한 적응력과 함께 힘을 모아 살아내는 강한 시민력, 외부 유입에 대한 유연한 대처력과 다문화적 수용의 폭넓은 성품, 개개인의 문화예술적 역량과 살아가는 실천에 대한 탁월한 의지, 고착된 지역성이나 편협성이 없어 다양한 수용과 종합이 가능한 성향이 그것이다. 이에, 비전어로서 용인이라는 지역 한자명의 뜻(용龍; 탁월한 사람, 인仁; 어

질다)을 차용하여 백만의 ‘멋진 시민, 다정한 이웃’을 문화도시 추진 동력으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백만의 용인정신을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는 문화도시의 가치 비전은 바로 ‘사람·자연·일상이 문화롭게 어우러지는 문화 공생’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결을 지닌 백만 시민이 개개인의 경험치와 생각을 드러내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유와 공감으로 협치해가는 문화 상생적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사람 연결을 통해 21세기 디아스포라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주·이주 문화의 특성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단절된 지역들의 상생과 균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급격한 인구 팽창과 개발로 방치, 매몰, 소외된 마을 단위의 소중한 일상, 도시에 흩어진 유무형의 문화예술자원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살피는 과정을 통해 도시의 기억과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신(新)정주의식을 세워가고자 한다. 이것이 삭막한 대도시성을 극복하는 신선한 에너지원이 되도록 하고, 일상이 즐거운 도시 가치 공동화를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도시의 편의성은 가져가되 용인의 자랑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자연생태계와의 공생 문화 조성 및 도농복합의 특성화 모색으로 ‘초록 대도시 용인’만의 품나는 자연친화적 환경 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적 원천이자 발원지인 용인의 5대 수계 중심 녹지를 도시 환경 문화 자원으로 설정하고, 문화, 예술, 경제, 생태, 교육, 마켓, 축제가 융합되는 일상 속 문화 플랫폼을 구축해갈 예정

이다. 또한 도시재생, 환경정비 정책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자연친화적 도시 문화, 문화적 태도를 인근 개발도시에 전하는 선사례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 마무리하며

올해 들어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 바로 ‘용인은 왜 문화도시를 추구하는가?’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될 수는 없겠으나 한가지 느끼는 바가 있다면 지금 시대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과 동경을 너머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가치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장소가 지닌 문화적 태도와 가치를 살피며 삶의 터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볼 때, 백만 인구가 사는 용인이야말로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지닌 주민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공동의 도시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닐까. 용인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이유는 어쩌면 말랑말랑한 문화예술적 소통과 연결을 통해 용인에 거주하는 백만 시민이 정겹게 어울리는 ‘공생 문화’와 新정주의식을 창출하고자 함에 있다. 무엇보다 도시 곳곳 흩어져있는 민간의 자발적인 실천을 발굴, 연결, 확산하여 도시의 오롯함을 품은 기억과 서사를 다시, 새롭게, 문화롭게 창조하는 도시, 이를 통해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고 싶은 지속 가능 도시, ‘백만 시민의-시민에 의한-시민을 위한’ 삶의 실천이 묻어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 문화도시센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민들과 만나고 문화적 실험과 실천을 모색하는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펼쳐질 문화도시 용인의 행보에 비하면 작은 마중물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문화도시는 일개 기관이 펼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현재 문화도시센터에서 문화도시 조성 관련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며 문화도시 조성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어쩌면 센터의 더 중요한 기능은 앞으로 용인의 다양한 문화 자원과 가능성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용인이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더 방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바로 도시를 지탱하고 있는 저력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이 매개자로 함께 서주는 것과 더불어 시민 스스로가 도시 문화를 견인해야 하는 주도적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울러 성숙하고 아름다운 시민성, 삶의 태도, 문화적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기다려주어야 하고, 환경의 가치를 다양한 관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예술적 개입과 견인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음을 아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바라기는, 용인에 흩어져있는 개별성이 다양하지만 조화로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생겨진천 사후용인이 아닌 생겨용인이 되어, 인생 중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백만 시민들이 오래도록 어울려 살아가는 자부심 서린 도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금번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펼쳐진 다양한 경험치들과 만남들이 앞으로 용인특례시의 아름다운 도시 문화 조성에 소중한 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 사업 모델 및 기본 개념

### 비전

멋진(龍翁)시민, 다정한(仁인)이웃

사람·자연·일상이 어우러진 문화공생도시

핵심 가치

추진 목표

6 대 전략 17 개 기본 사업

3 대 전략 5 개 특성화 사업

#### 다채로운 표현

문화예술적 성찰을 통한  
백만의 문화시민력 강화

#### 조화로운 연결

문화다양성·공동가치를 결합한  
문화 실험과 실천

#### 문화로운 공존

생태 용화를 통한  
문화자족도시(新정주의식) 조성

백만의 문화 인식과 참여로  
도시 문화를 수호하는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문화 공유로 지역·계층·세대 연결 및  
문화다양성 기반 도시 문화콘텐츠의  
창조적 재생

상호돌봄의 가치를 살린 도시  
쇄신을 통해 살기 좋고 정다운 필(必)  
환경도시생태계 구축

#### 문화시민 발아

만만한 테이블 도시를 즐겁게 할 시민  
들의 아이디어 발굴 및 다양한 시민 주  
체 찾기

문화마실 도시 내 다양한 시민 주체가  
주제별로 모여 함께 나누는 동네마실/  
시민네트워크 구축

문화살롱 백만 시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하는 소셜 살롱

#### 도시문화 콘텐츠 발굴·재생

##### OO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만만한테이블에서 발견된 다양한 상상을  
실천하는 나만의 문화도시 정책화  
실험

문화로 어게인 로컬 스토리텔러가 발  
굴한 자산을 커뮤니티 아트를 통해 구  
현해보는 예술 활동 지원

####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용인 문화도시 포럼 문화도시 조성사업  
가치 확산과 공유

도시 브랜딩 공감대 높은 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한 도시 가치의 지속적인 발  
신과 종합

아카이브 용인 용인의 문화 유전자를  
정리·보존하여 지속적인 연구 데이터  
로 활용하는 아카이브 체계 구축

#### 활동가 성장 지원

도시 기록가 도시 곳곳의 의미있는 문  
화적 가치를 관찰·기록하는 활동가 성  
장 지원

커뮤니티 디자이너 여러 주체의 연결·  
협력을 돕는 매개자 성장 지원

로컬 스토리텔러 용인의 특성이 담긴  
도시 서사를 새롭게 창작해가는 활동  
가 성장 지원

#### 문화플랫폼 활성화

동네문화기지 100+13 다양한 주제,  
취향이 반영된 동네 규모의 문화거점  
발굴 및 지원

온라인 플랫폼 하나로 모이는 용인의 문  
화 콘텐츠 - 공유와 확장의 온라인 플랫폼

커뮤니티 활성화 컨설팅 지원 다양한  
시민주체들의 활동을 복돋우기 위한  
전문 멘토 지원

#### 문화도시생태계 조성

용인문화도시센터 운영 문화도시 운영  
체계 구축 및 관리, 기초적인 시민 교  
류 플랫폼 공간 조성

정책 연계 도시생태계 활성화 지원  
정부 및 광역, 도시 내 관련 사업 연계  
통한 문화도시 생태계 조성

용인 문화도시주간 문화도시 용인 성  
과 공유 및 동네문화기지 별 축제가 이  
루어지는 주간 조성

## 하나뿐인 지구, 자연과 공생하는 멋진 시민·다정한 이웃

### 생태 가치 재발견: 다시, 초록

어린이 지구살림장터 도돌이장  
참여를 넘어 직접 여는 장꾼/놀이꾼들  
의 자원순환 장터

생태 전환 예술교육 청소년, 교사, 우  
리 동네 공원지킴이 대상의 생태/문화  
다양성 이해 예술교육 및 워크숍

### 사람과 자연의 상호돌봄

우리동네 가지가지 공원 모두 다른 모  
양의 사람들(우공지)이 가꾸는 가지가  
지 동네공원

가꾸미 프로젝트 환경 활동가와 문화  
기획자가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모  
임,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고민하는 시  
민들의 유쾌한 문화×생태 실험실

### 도농복합 문화자족

도시숲 페스타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문화·생태·경제 자족 프로젝트 /  
지역의 도농복합적 특색과 필요를 반  
영한 문화공생 프로젝트

문화특례시 용인으로 가는 길

# 특례시 수준의 문화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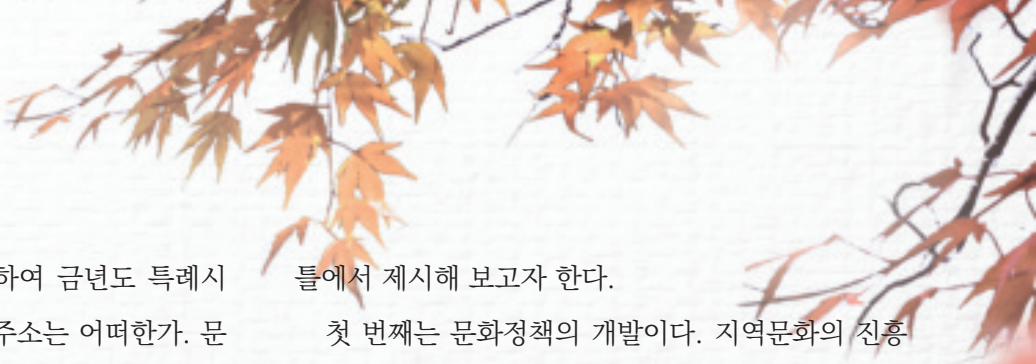
이인영 \_ 전 용인문화원장/처인구노인회장

## 1. 용인시 문화정책의 방향



포은아트홀

오늘날 지역발전의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문화적 역량과 예술적 수준이 매우 중시되는 문화예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특히 선진국형 산업 구조의 개편과 초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정서함양, 여가선용, 자기계발과 같은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문화예술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여 금년도 특례시로 지정된 용인시의 문화예술 현주소는 어떠한가. 문화예술 인력은 물론 기반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30여 년 전에 비하면 놀라울 만큼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용인포은아트홀이 문을 열고 전통예술 공연에서부터 각종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유수의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는가 하면 각종 전시와 문학 행사도 빈번하다. 게다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또 아트트럭(Art Truck)과 같은 이동 공연 차량이 등장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처인구 읍면 지역에까지 공연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이다.

그렇다고 용인이 문화예술의 도시라 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용인의 문화예술은 이제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 각 부문의 양적 성장에 비례하여 질적 수준 향상 방안도 고민해야 하고 세대간, 지역간 문화적 격차 해소 방안,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방안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업들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이 그려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역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용인에 과연 문화정책이 제대로 입안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화정책 개발이 전제되지 않은 문화 행정은 주먹구구식이고 매우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본인이 오랫동안 행정 및 문화계에 종사하면서 목도한 용인시 문화예술의 다양한 현상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용인특례시가 추진해야 할 몇 가지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문화정책의 개발이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함께 장기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 민선 시장 제도하에서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 전담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지방 분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지방 행정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문화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거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도에 ‘용인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었지만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때문에 지역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는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이다. 용인시는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임에도 오랫동안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향토문화는 가장 고유성이 많은 문화자원인 동시에 가장 활용성이 높은 문화산업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고유성과 배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용인도 향토문화 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를 콘텐츠화 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은문화제, 처인성문화제, 백중문화제 등 지역 기반의 각종 문화 행사를 적극 활성화하고 키워나가야 한

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용인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이다. 한 지역의 문화수준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이다. 오래 전부터 문화계 인사들이 용인시립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의 필요성을 역

설해 왔지만 인구 100만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그런 염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이 ‘용인시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명칭에 걸맞는 내용과 규모를 갖춘 진정한 시립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날의 박물관·미술관은 작품을 단순 전시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학제적 연구의 공간, 시민들의 교육 및 문화체험의 공간, 문화교류의 공간, 작가와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그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용인시에는 부족하지만 <용인포은아트홀>을 비롯한 유형의 공연장과 전시장이 구비되어 있다. 그나마도 수지구와 처인구에 편중되어 있고 인구가 가장 많은 기흥구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아예 없다.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



용인문예회관

해서라도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에 이제는 적극 나서야 한다.

금년에 특례시로 승격된 용인시의 위상에 맞는 창의성 있는 문화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발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글에서 필자는 정책적 관점에서 지역 박물관이 왜 중요한지, 시립 미술관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논하고자 한다.

## 2. 박물관은 그 도시의 얼굴

빛의 천사, 헬렌 켈러는 자신의 수필에서 3일 동안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날은 스승과 친구들, 그리고 대자연을 볼 것이고, 둘째 날에는 인간이 살아온 궤적을 확인하기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을 것이고,

셋째 날에는 출근하는 일상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본 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관람하겠다고 했다.

헬렌 켈러가 빛을 볼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 박물관을 찾겠다고 말한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가 인간의 삶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박물관을 찾겠다고 한 것은 그녀 자신이 한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박물관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으로 박물관이 왜 존재해야 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말이다. 그런 만큼 많은 국가에서 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나아가 박물관의 수는 한 국가의 국력을 반영하기도 하고 문화적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박물관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유무형의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정보센터의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인식되면서 각종 역사와 문화,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하는 박물관들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인구 110만에, 특례시라는 광역도시 급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용인시에 제대로 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하나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용인시는 고대 청동기시대부터 근현대에



용인시박물관(구. 용인시문화유적전시관)



수원화성박물관

이르기 까지 역사문화자원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고장으로 손꼽힌다. 이런 자원들이 발굴되고 수집되면 어디로 가는가? 지금까지 발굴된 대부분의 유물과 문화재들은 외지 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으로 옮겨져 주인을 잃은 채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특히 서리백자요지나 처인성, 할미산성과 같은 유

적을 발굴하면 발굴 작업을 진행한 해당 대학이나 외지 박물관이 발굴 유물을 소유하게 된다. 때문에 추후에 용인시립박물관이 설립된다 해도 이들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용인에서 발굴되거나 수집된 국보급 문화재 등 소중한 유물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경기도박물관 등 상당수의 외지 박물관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민간인이었던 모현면 오산리의 오희문(吳希文) 선생이 9년 3개월에 걸쳐 쓴 피난일기인 쇄미록(瑣尾錄, 보물 1096호)은 국립진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고, 모현면 초부리에서 발굴된 청동거푸집과 포곡읍 유운리에서 발견된 청동검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또한 용인이라는 지명을 관적으로 하는 토성이면서 고려 초부터 1000년을 이어온 명문가인 용인이씨(龍仁李氏)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박물관에 875점의 유물을 기증했다. 용인시립박물관이 있었다면 당연히 용인의 문화자산으로 보전하고 후세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임에도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

용인이씨와 마찬가지로 용인에는 수백 년 동안 세거한 문중들이 있고 문중마다 찬란한 문중사를 전래하면서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초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용인시립박물관을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물론 전국에 10만도 안 되는 작은 지자체들까지 지역의 역사와 향토색 짙은 고유한 특성의 박물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박물관을 가리켜 그 도시의 얼굴이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 용인은 어떠한가?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을 용인시박물관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은 2002년 용인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동백지구에서 발굴된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구석기 문화층을 이전, 복원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오랫동안 시립 박물관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필자로서는 이러한 명칭 변경이 단편적인 눈가림 행정이 아니라 진정 용인을 상징하는 시립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걸음이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도시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명칭에 걸맞는 내용과 규모를 갖춘 진정한 시립 박물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3. 시립 미술관은 왜 중요한가

지식 기반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지역의 미술관은 더 이상 이전의 기능과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매력적인 상품으로서 재평가 받고 있다. 동시에 지역민의 심미적 욕구충족과 문화복지 향상에 있어 그 수요를 담당할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도시가 비대화되면서 도시 기능도 다양화 되고, 이러한 다양화된 도시 기능 중에서 문화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도시의 문화



기능 중에서 공공미술관 기능은 미술작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미술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미술관은 도시의 문화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술관은 도시의 주변부 시설로 인식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도시에서 점차 제조업이 퇴출되는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폐허 혹은 공지로 남아있던 공장부지에 문화예술 활동이 들어서고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되면서 미술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미술관은 이제 단순히 대도시의 구색 맞추기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도시 이미지 창출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심지어 지역 미술관이 지역 건축문화의 척도가 되었고, 동시에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미술관이 도시성장의 주요 동인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글로벌(세계화) 사회의 도래가 크게 작용하였다. 글로벌(세계화)의 이면에는 로컬(지방화)이 존재하며, 글로벌과 직접 대면하는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특성이다.

즉, 세계화(Global)와 지방화(Local)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컬(Glocal) 사회에서 도시의 독특성과 차별성을 통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가 축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공간이 바로 박물관·미술관으로 공간에 뿌리를 내리며 도시 정체성과 이미지, 독특성과 차별성을 창출하는 도시 기본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의 중심도시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단순히 경제활동과 산업인프라 때문만은 아니며 글로벌 중심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뉴욕이 오늘날 현대도시의 대표도시로 인식되는 데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과 뉴욕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등 세계 3대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며, 워싱턴이 미국 정치의 중심도시에서 창조도시로 불리어지는 이유는 스미소니언 뮤지엄(Smithsonian museum)이 입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파리가 세계의



경기도 미술관



오산시립미술관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문화중심 도시로 일컬어지는 데는 루브르, 오르세, 퐁피드 센터로 연결되는 박물관 클러스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런던이 문화도시로 인식되는 데는 대영박물관과 더불어 최근에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시립 미술관은 공공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고 건축적 상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작과 향수의 매개 기능을 통해 지역문화를 크게 발전시키고 있다. 관람객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발시킴으로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경쟁력 있는 미래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특히 도시재생이나 도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시립미술관 건립은 단순히 지역의 문화 활성화 차원을 넘어 도시 디자인과 도시 정체성, 도시 미래비전 수립의 핵심 비즈니스가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시립 미술관을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 그

입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공공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기능을 넘어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위한 공간(문화강좌, 세미나, 회의, 클럽 및 문화카페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술관이 이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에 입지하여야 하고, 예술인들이 밀집하여 입지함으로써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집적의 효과를 창출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전국의 대부분의 공공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은 대부분 독립적 입지 행태를 보이며, 클러스터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청계산 자락에 입지하여 시민들의 상시 접근을 제약하고 있다.

공공 미술관이 중심지에 입지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며, 정책결정자(시장)의 안목과 취향에 따라 도심 중심부에 자리 잡기도 하고, 비워있는 변두리 공지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서기도 한다. 시장이 문화예술에 높은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 중심부에 공공미술관을 배치하겠지만, 문화예술을 주변부 활동으로 인식하는 시장은 값비싼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도심 중심부에 미술관을 입지시킬 가능성은 낮다. 그나마 시립 미술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해야 할까?

오스트리아의 예를 들어 보자. 오스트리아가 지금과 같은 문화 선진국이 되는 데는 시민과 정부의 문화마인드, 문화시설과 활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2차 세

계대전에서 파괴된 비엔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 부청사 보다도 오페라 하우스에 대한 우선적 복구를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문화에 대한 높은 인식과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미술관이나 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입지가 중요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한국의 문화수준, 도시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개인이 커피 전문점을 오픈할 때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입지를 꼽는다. 그런데 중요 공공문화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화에 대한 마인드와 관심이 얼마나 부재했는가를 보여준다.

이런 사례는 과천 청계산 자락의 국립현대미술관, 청량산 자락의 인천시립박물관, 대구 대덕산 자락의 시립미술관 등에서 관찰될 수 있다. 공공미술관의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이후 관람객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관이 개관되기 이전에는 현대미술관 관람객이 100만 명 정도였는데, 2013년 서울관이 개관된 이후 관람객은 2배를 넘는 235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 미술관 운영의 성공 여부가 소장품이나 프로그램, 재정력에 연유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입지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입지가 우수한 공공미술관은 시민들에게 만남의 광장, 소통의 공간, 도시의 랜드마크로 기능하지만, 입지가 불량한 공공 미술관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소외된 유휴 공간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 4. 정책 결정자의 마인드가 중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1 전국 문화 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은 모두 900개이고 미술관은 271개로 나타났다. 이들 박물관·미술관 중 일부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일부는 지자체나 대학,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우리 용인은 현재 14개의 박물관과 6개의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공립 박물관이 3개, 사립은 7개, 그리고 대학 박물관이 4개이다. 미술관은 공립이 1개, 사립이 5개이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용인은 서울에서 가까운 입지 조건으로 인해 박물관·미술관이 많이 설립되었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 둘씩 줄어들기 시작하여 지금은 당시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든 상태이다.

그럼에도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의 수만 보면 분명 용인시는 문화의 불모지는 아닌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인구 100만이 넘어선 용인시에 제대로 된 시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하나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날 용인시는 특례시 승격과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 시티 등 첨단 산업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수도권 중심 도시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사회 경제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 디자인과 문화 분야에서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용인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로 진입하고 한 단계 도약하여 미래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분야, 특히 시립 미술관·박



장육진 고택



양주시립장육진미술관



용인시문화예술원

물관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은 자기 지역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자원들을 발굴하여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거나 심지어 연고도 없는 대가들을 끌어들이며 지역의 문화명소로 가꾸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용인시는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넘겨준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장욱진미술관이다. 화가 장욱진(1917~1990) 선생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서 말년을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 지금도 그가 살던 고택이 남아 있는데, 조선 말기에 지어진 민가(民家)로

서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한옥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장화백의 가족은 20여 년 전부터 화백의 체취와 흔적이 남아 있는 고택에 화가의 미술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미술관 설립을 용인시에 제안하며, 미술관이 건립되면 선생의 작품을 모두 기증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용인시가 미술관 건립비 부담 등을 내세워 거절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러자 남양주시가 옛 덕소 화실 일대에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제안했고, 양주시도 천경자 미술관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바꿔 장욱진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양



백남준아트센터



한국미술관

주시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에 <양주시립장육진미술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용인시는 용인에 미술관이 세워지기를 희망했던 장 화백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것이다. 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에 대해서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사이 문화시설 유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넘겨주고 만 셈이다.

용인시 최고 정책 결정자에게 말하고 싶다. 문화는 더 이상 도시성장에 따른 부산물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성장을 위한 중심 기반시설로서 새롭게 인식해

야 한다고. 다른 정책들은 대부분 임기가 끝나면 잊혀지지만, 한 번 세운 박물관·미술관은 두고두고 업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문화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 박물관·미술관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설립한다면 어디에, 어떤 박물관·미술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합리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책 결정자의 문화 마인드와 미래지향적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남원 윤씨 사당 정면

용인의 비지정문화재

##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걸친 대를 이은 충신 윤섬 · 윤계 정려

김정희 \_ 용인스토리텔링 연구소장

한 가문이 크게 번성하려면 영의정이나 대제학 등의 벼슬을 한 큰 인물이 나오고, 더불어서 가문에서 충신과 효자, 열녀가 등장하면 한층 더 가문의 위용을 드높일 수 있었다.

남원윤씨 가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시기에 대를 이은 충신이 나오면서 큰 가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는데, 용양부원군(龍陽府院君) 윤섬(尹暹), 충강공(忠康公) 윤형갑(尹衡甲), 충간공(忠

簡公) 윤계(尹槩), 충정공(忠貞公) 윤집(尹集) 등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이 남원윤씨 가문에서 나왔다.

용인시 기흥구 구성2로 62 윤용운 씨 댁 사당 처마 밑에 용양부원군 윤섬과 그의 손자 충간공 윤계의

정려문 현판이 나란히 걸려있다.

남원윤씨 사당의 정면 오른쪽에 위치한 ‘용양부원군 윤섬’의 정려문 현판은 붉은색의 나무판에 글씨를 음각을 한 뒤 흰색으로 덧칠한 모습이다.

有明朝鮮忠臣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 領議政 龍陽府院君文烈公行翰  
 忠翼謨修紀光國功臣通訓大夫 弘文館校理尹暹之門 崇禎紀元後 乙酉 九月 日 重修  
 유명조선충신 증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 영의정 용양부원군문열공행수  
 충익모수기광국공시통훈대부 홍문관교리윤섬지문 승정기원후을유 구월 일 중수



용양부원군 윤섬 정려문

용양부원군 윤섬(尹暹, 1561~1592)의 자는 여진(如進), 호는 과재(果齋)로 윤우신의 아들이다. 1583년(선조 16)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 지평 등을 역임하다 1587년(선조 20)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가서 왕실의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1590년(선조 23) 광국공신(光國功臣) 2등에 책록되고 용양부원군(龍陽府院君)으로 봉군(封君)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 1538~1601)의 종사관으로 종군하다 상주에서 전사하였다. 서거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

는 문열(文烈)이다. 부인은 원주 원씨(原州元氏)로 정경부인으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원래 광주(廣州) 구천 냉정리에 매장하였다가 김포 영사정 세장지 윤유묘 아래로 이장하였으며 쌍분으로 조성되어있다. 전란이 끝난 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여 의관(衣冠)으로 장례를 지냈다고 한다.

사당의 왼편에 위치한 충간공 윤계의 정려문 현판도 윤섬의 정려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충간공 윤계 정려문

有明朝鮮忠信 贈資憲大夫吏曹判書龍原君諡忠簡公行 通訓大夫  
 弘文館應教 尹啓之門 崇禎紀元後 乙酉 九月 日 重修  
 유명조선충신 증자현대부 이조판서 용원군익충간공행 통훈대부  
 홍문관응교 윤계지문 송정기원후 을유 구월 일 중수

충간공 윤계(尹槩, 1603~1636)의 자는 신백(信伯), 호는 신곡(薪谷)으로 윤행갑의 장남이다. 1627년(인조 5)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와 홍문관 교리 등을 지냈다. 1636년(인조 14) 남양 부사 재임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하여 남한산성으로 진군하려던 중 갑자기 청나라 군대가 들이닥쳐 남양부중에서 사로잡혔으나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다가 죽었다. 이조판서로 추증 및 용원군(龍原君)으로 추봉되고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묘소는 김포 영사정 세장지에 모셔져 있다.

문열공 윤섭과 충간공 윤계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이다. 문열공 윤섭의 아들은 윤행갑으로 윤행갑은 장남 윤계와 차남 윤집을 두었다. 윤행갑(尹衡甲, 1585~1618)의 자는 임지(任之)이며 1610년(광해군 2) 문과에 급제하여 부안 현감, 서흥 현감 등을 역임

하였다. 장남 윤계와 차남 윤집 두 아들이 병자호란 때 순절하자 이조판서로 추증되었고 시호를 충강(忠康)이라 하였다.

현재 남원윤씨 사당과 정려문은 윤섭의 후손인 윤경호씨가 관리하고 있는데, 용인에는 7대조 전에 이주하였다고 한다. 온양군수를 지냈던 윤염의 묘소를 포함하는 남원윤씨의 세장지가 범화산 남쪽 줄기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아 1800년 전후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남원윤씨 사당과 정려문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피난을 다녀 와보니 정려문의 현판만 남고 다 부서졌다고 한다. 그래서 사당을 새로 마련하고 정려를 걸어놓았는데, 살던 곳이 아파트 택지로 개발이 되면서 바로 옆으로 이사하여 사당을 다시 짓고 정려 현판을 사당 좌우에 걸어 놓았다.

병자호란의 결과로 청나라에 끌려 가서 돌아가신



남원 윤씨 사당 측면



윤섬에게 내린 교지(남원윤씨 종손 소장)

삼학사인 홍익한, 오달제, 윤집, 이들은 청나라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척화의 대의를 끝까지 밝히다가 모두 선양성 서문밖에서 처형당했다. 이후 조정에서는 이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정문을 세웠으며 홍익한에게는 충정(忠正), 오달제에게는 충렬(忠烈), 윤집에게는 충정(忠貞)이라는 시호를 주었고 모두를 영의정으로 추증했다.

용인은 삼학사 중에서 추담 오달제가 태어나고 묘소가 있는 곳이다. 또한 병자호란으로 인한 충신인 남원윤씨 가문의 정려가 있는 곳으로 예로부터 충절(忠節)의 기개가 드높은 곳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남원윤씨 사당과 정려는 후손인 윤경호씨가 관리하고 있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이지만 문화

재로 지정받지 못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이 있다. 이러한 비지정문화재는 세인의 관심과 보호가 소홀한 틈으로 무너지거나 도난되거나 이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비지정문화재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 살펴보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가치있는 비지정문화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겠지만, 향토문화재가 안되더라도 넓은 범위에서 모든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전설 따라 돌아보는 용인 한 바퀴 |

소가 우는 마을

소우리 우명동

이은성 \_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에는 <우명동>이라는 자연 마을이 있다. 우명동은 능원2리에 속하며, '소가 우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소우리, 소울이, 한자로는 우명동(牛鳴洞)이라 부른다. 70년대까지도 소에게 풀을 먹일 때 이곳에 메어놓고 먹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 그렇게 불렀다고도 한다. 마을은 윗소리와 아랫소리로 나뉘어 있는데, 이곳은 예로부터 바로 옆 오산리 골짜기와 더불어 청덕동으로 넘어가거나 서울로 가는 지름길로 통했다. 그런데 <소우리>라는 독특한 이름만큼이나 이곳에 얽혀져 내려오는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롭다. '장사로 태어난 아이

를 콩가마에 깔려 죽게 했더니 소가 울면서 산을 내려갔다는 이야기'와 '게으른 농부가 내기바둑에서 이기고 감투를 쓰게 되면서 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소가 등장 설화는 우명동에 얽힌 두 설화 외에도 <소가 된 농부>. <소가 된 잠꾸러기>. <소가 된 게으름뱅이>. <소가 된 게으른 농부> 등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얽혀 다양하게 전해진다. 이러한 설화는 때론 두세 개가 합쳐지기도 하고, 지역에 맞게 변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대체적으로 '게으름뱅



이가 소가 되어 힘들게 일하다가 무를 먹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는 데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런데 왜 하고많은 동물 중 하필 소일까? 이는 불교의 윤회사상과 관련이 있다. 즉 게으름뱅이를 소로 환생시켜 업을 닦고 생을 반성하게 한 다음,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근면함의 상징인 소는 과거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일꾼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 밭을 갈던 소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게으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본받길 바라는 뜻에서 ‘소가 된 게으름뱅이’란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명동에 얽힌 설화는 여타 설화와는 달리 ‘감투’가 등장한다는 데서 차별점을 갖는다.

설화에 등장하는 감투는

‘정자관’으로 정자(程子; 정호·

정이 형제. 정자는 북송의 유학자이며 이정二程의 학문은 남송의 주희에게 이어졌고, 이후 주희(주자)는 북송 5현의 학문을 집대성하여 성리학을 완성했다.)가 썼던 관(冠)의 이름에서 연유한 건(巾)이다. 과거 충렬서원 등지에서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던 능원리 일대에는 영일정씨, 연안이씨, 해주오씨 등 집성촌이 있고, 이 때문에 우명동의 소 이야기는 ‘감투 쓰고 소가 된 농부이야기’로 탈바꿈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 우명동에 전해 내려오는 〈감투 쓰고 소가 된 농부〉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부귀와 권세만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 좋은 집에서 태어나 편하게 살고, 또 말 타고 한양에 가서 과거시험도 보는데, 이놈의 팔자는 죽도록 땅만 파고 농사만 지어야 하는 팔자로구나. 부모 잘못 만난 것이 원수로다” 하면서 있는 대로 푸념을 늘어놓았다.

“나도 글줄이나 배웠더라면 과거라도 보았을 텐데,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먹으로만 보이니, 이런 내가 언제 양반들이 쓰는 관을 한번 써 보려나” 하면서 지체 높은 양반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정자관을 한 번만이라도 써 보는 것이 늘 소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인점(店)에 가려고 대치 고개를 넘으려는데 한 노인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둑판을 앞에 놓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이 농부는 다리도 아프고 쉬어갈 겸 가까이 가서 앉으니, 노인이 먼저 말을 건넸다.

“자네 지금 한가한가? 그렇다면 나와 바둑이나 한 수 두세나”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농부는 바둑이라면 내가 누구에게 지지 않는 실력이니 노인에게 내기 바둑 두기를 청하였다. 노인도 이를 흔쾌히 승낙하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지면 내 머리 위에 있는 정자관을 주겠네. 그러니 만일 자네가 진다면 술 한 잔만 받아 오게나”라고 말했다.

농부는 “오호 이것이야말로 양수겸장(兩手兼將)이라. 핑 먹고 알 먹고, 관도 써 보고 소원도 푸는 것이

아닌가? 설혹 진다고 할지라도 연차로 보아 훨씬 윗분이고 게다가 양반 어른이니 별로 자존심 상할 것 없는 일이고, 손해를 본다손 치더라도 고작 막걸리 한잔이면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농사나 짓고 사는 내가 노인을 이긴다면 양반의 상징인 정자관을 얻을 수 있으며, 양반이 고작 이상적인 자신에게 내기에 져서 정자관을 빼앗겼다면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이러나저러나 밀질 것이 없을 것 같았으므로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노인이 놓는 바둑을 보니 포석은 정석이 아니었고, 행마도 제 길을 택하여 놓지를 못하고 있어서 농부는 한 수 위의 실력을 발휘하여 단판으로 불계승(不計勝)을 거두었다. 대국에 이겨 희색이 만면한 농부는

“어르신 약속대로 정자관을 내놓으시지요.”라고 하자 노인은 선선히 벗어 주었다. 농부는 “어르신의 실수이니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라며 정자관을 머리에 써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갑자기 농부의 몸에서 황소 털이 돌어나고 머리에 썼던 정자관은 쇠뿔이 되어 머리에 들러붙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이 점점 커지더니 네발로 서야만 몸을 가눌 수 있



었다. 농부는 갑자기 커다란 황소가 되었는데 노인이 느닷없이 고삐를 씌워 버리는 것이다. 소가 되고 고삐가 씌워지자 움짱 못하고 노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길 가는 사람에게 구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입에서는 음메~~소리 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소가 되어 용인장으로 끌려가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처량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청덕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이르자 <소가 된 농부>는 목놓아 울었다. 그때마다 울음소리는 소 우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는데, 영문도 모르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니 웬 소가 저렇게 극성스럽게 울어?”라고 하면서 바라보며 수군거리기만 했다. 그렇게 용인장으로 끌려간 농부는 어떤 사람에게 팔려 가게 되었다. 노인은 소를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이 소는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만약에 무를 먹으면 그때부터는 소를 부리지 못하게 되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소가 되어 팔려간 농부는 밤낮으로 밭 갈고 논 갈고 짐도 나르며 쉬 없이 일해야 했고, 잠시라도 지체하거나 게으름 부리면 곧바로 회초리로 얻어맞았다. 그렇게 2~3년을 견디며 일했으나 너무 힘이 들었던 농부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빌어먹을 무나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무밭으로 가려고 해도 노인이 미리 치워 두었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해 김장철이 되니 주인이 무를 마당 한가운데에 잔뜩 쌓아놓았고, 소가 된 농부는 때는 이때다 싶어서 밤이 되자 천신만고 끝에 외양간을 빠져나와 마당에 쌓아둔 무를 밤새도록 먹어 치웠다.

그러다 새벽녘이 되자 머리에서 뒤가 ‘툭’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떨어진 것을 자세히 보니 노인

과 바둑 둘 때 얻어 쓴 그 정자관이었다. 그것이 벗겨지니 신기하게도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농부는 그 저주스러운 정자관을 갈갈이 찢어 던지며 “이놈의 감투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한 자신이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권세만 부러워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고,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때 소가 되어 울던 고개 아래는 지금도 ‘소우리’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모현읍 우명동에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이다.

참조 : 내 고장 옛이야기. 이인영

# 풀뿌리 문학으로 자리매김한 『용인문학』

용인문학회, 1996년 창립 후 반년간지 『용인문학』 발간  
시 창작반 운영, 남구만 문학제 신인문학상 공모전 실시

박기정 \_ 언론인



1996년 5월 18일 창립한 용인문학회는 반년간지 『용인문학』을 발간하고 있는 용인지역 대표 문학동호인 단체다. <용인문학 아카데미>에서 '시 창작반'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엔 '시 낭송반'이 만들어졌다. 시 창작반은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ZOOM 영상으로 진행됐다.

용인문학회는 창립 이듬해인 1997년 종합문예지인 『용인문학』 창간호를 펴낸 이후 2022년까지 통권 제38호를 발간하면서 단 한 번도 발간을 거른 일이 없이 매년 책을 펴내고 있다.

용인문학회가 『용인문학』지를 거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 것은 임원진의 노력과 운영의 묘 때문이다. 종합문예지인 『용인문학』은 용인문학회 회원의 회비와 용인시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자체 편집

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또 동호회 속성상 임원진이 바뀌면 휴간되거나 폐간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용인문학회는 회장이 바뀌어도 발행인인 사람이 지속해서 맡음으로써 안정적으로 발간될 수 있었다. 초대작가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다.

용인문학은 매년 1회 발간하던 것을 지난 2009년부터는 일 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를 발간하는 반년간지를 간행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2009



년 상반기호가 반 연간지 1호인 셈이다. 최근 발간한 2022년 상반기호인 38호부터는 인터넷서점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책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 정성을 들여 만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용인문학회는 기획력과 콘텐츠 발굴 능력이 탁월해 다양한 문학콘텐츠 자원을 양산했고 지속시켜 오고 있다. 해마다 종합문학제인 <약천 남구만 문학제>를 연말에 진행하고, <남구만 신인문학상>은 전국 공모전(상금 500만 원)으로 올해가 제5회째다. 회원 자격은 등단, 비 등단 작가 모두 가능해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활동한다. 현재 50여 명의 정회원과 500여 명의 온라인 회원들로 이뤄진 모범적인 지역 문학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 문화 불모지에 뿌리내린 ‘용인문학회’

용인지역 최초의 문학단체는 일제강점기부터 용인시와 인근 안성시 문인들이 함께 결성했던 ‘백구시단’으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 용인향토대전에서도 확

인된 가장 오래된 문학단체로 향토사학자였던 고 박용익 선생을 비롯한 용인지역 원로들의 구술로도 전해져 왔다.

백구시단은 현재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사거리에 있었던 ‘삼일당 한약방’이 근거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곳에 모여 시를 짓거나 노래와 창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작가들의 이름과 생몰연대, 활동 시기와 작품 등은 전해지는 게 없다.

현대에 들어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용인문화원에서 발행하던 ‘용구문화’ 지면에 시를 발표하던 문학 동호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시동인 ‘서정 3세대’가 있었다. 서정 3세대는 박상돈, 임준규, 이종대, 옥빈(장영옥), 노영미가 원년 멤버로 첫 동인지집 <옷을 벗는 슬픔>(책나무)을 발간했다. 이후 김종경, 박경화, 박수자가 합류해 동인 소시집과 2시집을 발간했다. 이들은 용인지역 최초의 카페였던 ‘동인(同人)’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역에서 시문학의 명맥이 이어왔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이 직장을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활동이 중단됐다.

다행히 당시 김종경 시인이 주축이 되어 지역문화회 창립을 준비하며, 명맥이 이어졌다. 현 용인신문과 용인문학 발행인인 김종경 시인은 1980년대 후반 ‘용인문예운동협의회’(이하 용문협)라는 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 당시 지역신문 보도를 확인한 결과 기관지 형태의 무크지 ‘늘 푸른 소리’를 몇 차례 발행했다. 용문협은 지역 문화운동을 기치로 내세웠으나 장기적인 대중화에는 실패했다는 게 훗날의 자체 평가였다.

1996년은 용인군이 인구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시로 승격했다. 용인시는 시 승격과 함께 문화적 욕구가 곳곳에서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때 김종경 시인







이 용문협 문학분과 출신들을 중심으로 (사)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 준비모임을 꾸렸지만, 참가자들은 격론 끝에 순수 지역문학단체인 '용인문학회' 창립에 뜻을 모은 후 용인문학회를 창립했다. 이때 서정 3세대 동인이었던 김종경을 비롯한 멤버 일부와 소설가 김종성 등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용인문학회 창립 다음 해엔 (사)한국예술인총연합회(이하 예술총) 용인지부가 창립되면서 문인협회 용인지부(이하 문협)도 출범했다. 이때 용인문학회 일부 회원들이 문협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용인문학회는 용인지역을 대표하는 자생적 향토 문학단체다. 용인문학회 초창기는 김종경 회장이 맡아 문학상 제정, 문학의 밤, 용인문학아카데미 시 창작

반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함으로써 기반을 다졌다. 그 후 편집주간이던 안영선 시인이 회장직을 맡아 약천 남구만 문학제, 남구만 심포지엄 등 지역 콘텐츠 자원을 발굴하고 축제화를 시키는 등 문학회를 한층 성장 발전시켰으며, 2021년 이원오 현 회장이 취임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시 낭송 반 운영, 용인문학지 전국 판매 등을 시도하면서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자생문학단체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동인지가 발간되다 폐간되는 등 자생력을 갖추기가 힘든 여건이지만, 용인문학회는 굳건한 자생력으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종합문학지 『용인문학』을 선보이며 자생문학단체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 용인문학, 1997년 창간해 올해 상반기 38호 발간

용인문학 창간호부터 가장 최근에 발간된 제38호까지 목차를 훑어보면 용인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다. 즉 용인을 주제로 삼거나 용인을 소재로 한 기획특집, 시·수필·소설·평론 등 향토색 짙은 내용물을 통해 용인을 문학으로 기록하고 있다.

용인문학회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매 호수의 기획과 특집의 방향을 잡고, 초대작가 선정 등에 들어갈 내용물을 결정한다.

1997년 용인문학 창간호에는 창간 특집으로 현 국회의원인 도종환 시인(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역문학과 민족문학’을 실었다. 앞으로 용인문학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방향타가 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초대작품으로 구상, 이기형, 민영, 이윤주, 박범신 씨 등의 작품과 함께 당시 윤병희 용인시장의 수필을 게재했다. 편집부가 ‘지역 시비(詩碑)를 찾아서’를 특집으로 다뤘다. 용인지역에 무수히 잠들어 있는 시인, 작가들의 시비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기록한 특집물로 이 글은 지역 문학 콘텐츠 자원의 발굴이라는 의미와 함께 매우 귀한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용인문학회가 이 같은 작업을 한 것은 지역과 연고를 맺고 있는 선배 작가들을 계승하는 지역 문학단체로서, 지역 문학지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창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민족통일 시인 이기형 고문

용인문학지 초창기 책자를 펼쳐보면 지금은 작고



한 민족통일 시인인 이기형(1917~2013) 시인이 용인문학회와 함께하면서 용인문학을 빛냈고, 회원들에게 큰 힘이 돼 주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기형 시인은 지난 2013년 96세로 작고하기 전까지 용인문학회의 현역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어쩌면 용인문학회는 실향민이자 시인으로서 남으로 내려온 이기형 시인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따뜻한 동지였는지 모른다.

용인문학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등의 작품을 기본으로 하여 중앙문단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초대작품을 함께 게재함으로써 독자에게 입을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해 왔으며 중앙 작가들의 작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지역 회원들의 작품은 지역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매우 많다. 고유한 지역명이나 지역과 얽힌 추억의 시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초대시인 중에서도 특별하게 용인을 소재로 한 작품을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민영의 ‘용인 지나는 길에’, 고은의 ‘용인에서’, 박범신의 ‘용인의 가을’ 등이 예이다. 특히 박범신 작가는 용인 양지면 한터

에서 10년을 거주했었기에 용인에 대해 누구보다 애정과 폭넓은 경험을 한 바 있다.

## 제1회 용인문학 신인상 수상작

1998년 제2호에는 제1회 용인문학 신인상 수상작이 게재돼 있다. 용인문학회는 창립 3주년을 맞아 전국 신인문학상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2018년부터는 ‘남구만 신인문학상’으로 명칭을 바꾸고, 상금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 지역 문학단체가 시행하는 작가 등용문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역의 역사 유적지인 처인성을 다룬 희곡이 게재됨으로써 이를 용인연극협회에서 연극과 뮤지컬 작품으로 만들어 전국 대회에 나가 수상한 것은 물론 그 후 다양한 아류작과 지역 역사에 기반한 연극 작품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용인문화원에서 이를 청소년 만화책으로 만들어 지역 역사 유적지를 알리는 데 이바지하기도 했다.

2000년에 발간된 용인문학 제4호에는 ‘노작 홍사용 탄생 기념 생가를 찾아서’가 기획특집으로 실렸다. 2001년 용인문학 5호에는 지역 초청작가 코너를 만들었고, 회원을 특집의 대상으로 다룬 회원 특집을 신설해 회원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웠다. 이때부터 지역 예술인 탐방 코너도 신설해서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2003년 7호에는 용인문학회가 현재 남구만 문학제로 변경된 용인문학의 밤을 처음 시작했고, 제1회 용인문학의 밤 내용을 특집으로 다뤘다. 이기형 시인이 ‘백발의 시인이 말하는 통일진혼곡’ 외 2편을 게

재했다. 이웃문학회 소개 코너를 신설해 차령문학회와 차령문학회 회원 작품을 게재하기도 했다.

## 용인문학 반 연간지 발행

2006년 제10호는 용인문학회 창립 10주년 특집을 다뤘다. 용인문학 편집부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용인문학의 역할과 반성’을 게재해 용인문학회가 단순하게 문학 활동만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역 문화를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420여 쪽에 이르는 두툼한 책자에 10주년 이모저모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용인문학의 위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2009년부터 반연간지를 처음 시행해 제2의 창간을 했다. 이때 한국 지역문학 심포지엄을 기획했고, 상반기호에 심포지엄 논문을 특집으로 게재했다.

2012년 상반기호인 19호에는 ‘용인문학 순례길을 걷다 I’을 기획특집으로 게재했다. 용인공원묘원, 천주교공원묘원 등 일일이 발품을 팔아 정리했다. 자치단체인 용인시가 방치하고 있는 지역 문학 자원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에 나서면서 이를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지역 실태를 고발했다.

결국, 용인문학회는 용인 곳곳에 잠들어 있는 시인, 문학인들에 대한 일체 정리를 자신들의 소임으로 여겼고, 자체적으로 지역 문학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012년 상반기호는 발간 20호로 지난 호에 이어 ‘용인문학 순례길을 걷다 II’를 기획특집으로 실었다.



용인 문학순례길을 만들어 중요한 문학 자원을 문화 관광콘텐츠로 만들어야 함을 역설했다.

2013년 상반기호인 21호에는 이기형 고문이 작고함에 따라 고문 명단에서 빠졌고 회원 시도 실리지 못했다. 민족시인 고 이기형이 추모특집으로 실렸다. 편집부가 '민족시인 이기형 선생님을 떠나보내며'를 게재했고, 통일시인이 부르는 망향의 노래 등 특집 글이 게재됐다. 이기형 시 5편이 실렸다.

2014년 상반기호인 23호는 지역의 명물인 경전철을 소재로 해 '문학으로 읽은 경전철 이야기'를 기획 특집으로 하여 모든 정거장을 시로 표현했다.

2016년 27호는 용인문학 창간 20주년 특집호로 450여 페이지로 꾸며졌다. 회원들이 용인문학과 맺

은 인연에 대해 추억을 소환하는 글들을 게재했다. 특별기획으로 '제1회 약천 남구만 심포지엄'을 지상에서 다뤘다.

2018년 상반기호인 제30호는 제2회 약천 남구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지상에 게재했으며, 하반기호인 31호에서는 제1회 남구만 신인문학상을 신설해 수상작을 게재했다.

2019년 상반기호인 32호에서는 '용인의 아동문학을 찾아서'를 기획특집으로 실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동문학 작가들의 동시와 동화를 게재했다. 하반기호에서는 두 번째로 용인 거주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의 시, 소설, 수필 작품을 게재했다.

2021년 상반기호인 36호는 기획특집으로 '신(新)

용인 8경’을 노래했다. 회원들이 용인 8경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노래했다. 하반기호인 37호에서는 기획특집으로 ‘문학으로 읽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다뤘다. 대지산, 지곡동, 용인 오일장, 칸나 할아버지, 선봉정, 노루실, 민속촌 등 용인 곳곳을 노래한 회원들의 다채로운 작품이 실렸다.

2022년 상반기호인 용인문학 38호는 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따끈따끈하다. 이번호부터는 인터넷 서점을 통해 전국에 판매를 시도했다. 기획특집으로 ‘우리동네 다문화 이야기’를 다뤄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게재했다. 그들의 시와 수필을 정성껏 게재함으로써 다문화가족들의 문학 저변 확대와 지역 문인들과 함께 글쓰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명사 초대석은 단국대학교 총장 김수복 시인을 이원오 회장이 만났다.

## 용인문학회 미래비전

용인문학 발간 외에도 용인문학회 자랑거리 중 하나는 ‘용인문학 아카데미’의 하나로 2007년 개강한 시창작반이다. 제1기 수료생은 김어영 시인 등 6명이다. 2011년부터는 김윤배 시인이 책임교수를 맡아 한 학기 16주 강좌로 체계화되어 운영 중이다.

2021년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합평반을 운영하며 회원들의 시 창작 열정을 유지했다. 이어 시 창작반은 온라인 ZOOM 수업으로 진행했고, 25기 시창작반은 비대면 수업의 성공적 안착과 첫 작품집을 내기도 했다. 용인문학아카데미 시 창작반은 작가의 산실로서 해마다 한국문학을



빛낼 등단 작가들을 배출하고 있다. 공부하는 문학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용인문학회 회장인 이원오 시인은 “용인문학회가 중앙일변도인 작금의 한국문학의 현실에서 올곧게 향토문학을 추구하는 문학회로 발전하고, 용인의 문화예술을 견인하는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용인문학회는 다양한 직업군이 모인 것은 물론 은퇴자와 문청, 장애우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회원 각자의 문학적 성취는 물론 다문화, 복지시설, 도시 빈민 등 소외된 곳을 두루두루 살펴 문학으로 환기시키는 사회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공감

(世代共感)

# ‘어린왕자’를 다시 보다



남기주 \_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1935년 비행사로 파리-사이공 간을 비행하던 생텍쥐페리는 이집트의 사막에 추락하여 닳새 동안 헤매게 되는데, 이때의 체험을 모티브로 1943년 발표한 <어린왕자>는 소설이라고 부르기보다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보는 편이 어울린다. 여우의 입을 빌려 작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바라보라”, “마음을 다해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라”고 말한다. 이런 관계 맺기는 매우 거북하고 귀찮은 일이기도 하다. 여우는 어린왕자에게 참을성을 요구했으니 말이다.

여우가 밭밭을 볼 때마다 어린 왕자를 생각하며 행복해질 수 있으며, 또 내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또한 행복해질 수 있듯이 이런 친밀하고 특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을 줄 수 있으며, 소중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텍쥐페리(1900-1944)를 소환하는 것은 불후의 명작인 <어린왕자>에 적힌 헌사(獻辭)중 다음 글을 옮기기 위해서이다. 레옹 베르트라는 사람에게 바치는 글인데, 그는 이미 어른이다. 오늘날의 그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그에게 바치는 것이므로 헌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른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으니까(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그다지 많지 않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라고.

‘애가 커서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와 어른(노인)중에 어디에 무게추를 더할 것인가는 큰 의미가 없을 듯 하다. 공감이 어려운 것은 익숙한 것과 관습의 경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한 마디로 ‘노인은 늙은 아이’로 표현하면 형용모순의 매우 불경스런 말이 될까.

우리 모두는 공감 없는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다. 어느 영화에선가 이런 대사가 있었다. “인생은 스케이트장이야, 모두가 넘어지지.” 그렇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옆 사람이 넘어지면 손 내밀어 도와주는게 실상 아니던가. 이러한 까닭으로 <어린왕자>를 앞세워 세대공감을 위한 유사한 예(例)를 짚어 보고자 한다.

- 사전적 의미로 ‘세대’는
- 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
- 나. 부모가 속한 시대와 자녀가 속한 시대가 차이를 가지는 대략 삼십 년의 기간
- 다. 부모와 자식, 손자로 이어지는 대(代)- 이러한 풀이를 가지고 있다.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상호간에 고수(固守)와 좌절, 변화, 수용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또한 억압과 소신이 작용하기도 한다.

## 1. 어른이 인식하는 ‘요즘 아이들’

70대 이상의 어른에게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개 한숨부터 내쉰다. 세대간의 갈등은 사소하게 시작되어 다발적으로 성장하며 확산 속도가 빠르다.

속담에 ‘백정도 칼을 버리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말이 이럴진대 젊은이, 요즘 아이들의 대부분이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다고 도매금에 넘길 수

는 없지 않은가. 장형부모(長兄父母)란 말도 있다. 장남은 부모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어렸을 적에 동생과 다툼이 있으면 어머니는 항상 ‘띠앗머리 없는 놈’이라고 야단을 치셨다. 장남은 언제나 굿보이(good boy)가 되어야 했다. 물론 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세대간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보통 난해한 문제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존중과 배려가 없이 세대간의 갈등은 해결하기 어렵다. 현실에 대한 암울한 염려보다는 묵묵히 걸어 가야 할 일이다. 선조들의 방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즉 선조들은 황소처럼 일하고 꿀벌처럼 모아서 자식을 건사하고 가정을 꾸려왔다. 궁벽한 산간 생활 속에서도 아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였고, 낙도에 살며 딸을 위해 어머니는 거룻배로 바다를 건너 등교를 시키기도 했다. 그렇다고 보답을 바라는 부모는 없다. 자식에게 부모는 영원한 스승이어야 한다. 낮은 곳으로 흘러 흘러서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물처럼, 부모는 항상 낮은 곳에 서야 한다고 앞선 이는 말하고 있다.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게 삶이라 한다. 독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변화는 인정하지만 변함이 없는 것이 먼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옛것을 말하면 마치 퇴화로 규정해 버리는 극단적인 평가는 없으면 좋을 것이다.

## 2. 교류는 하지만 교감은 없다

각 세대는 좋든 싫든 한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상

호 연관성을 맺으면서 교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세대간 상호 교감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류(交流)는 여러 분야에서 이룩된 문화나 사상 따위의 성과나 경험 등을 나라, 지역, 개인 간에 서로 주고 받음이며, 교감(交感)은 서로 접촉하여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함께 나누어 가짐을 뜻한다.

무엇보다도 세대공감을 위해서는 교류를 뛰어넘어 교감을 하는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를 확고히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을 말하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는 더욱 아니다. 다소의 세대공감 사업은 진행 중이긴 하다.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실천을 구체화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다.

‘거꾸로 세계지도’가 있다. 우리가 보아오던 세계 지도를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양을 향하는 출발 점이 되듯이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를 요하는 표현이다. 살펴 볼 일이다.

### 3. 가족의 의미( 평범한 호칭)

추억과 행복의 산실은 가정이며 주축은 가족 구성원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급속히 꺾멸하다시피 하고 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도에 계시던 아버지에게 매일 아침마다 안부전화를 드렸던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는지 궁금하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둘러댈 것인가. 자주 연락을 하고 살아야 할 일이다. 부모는 부초처럼 떠돌고 자식은 소망을 버리고 주저앉는다면 우리사회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자녀는 멋진 아빠와 세련된 엄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그리 될 수는 없다.

1996년 8월에 발간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김정현의 장편소설 ‘아버지’를 돌아 보면 아버지란 호칭은 딸의 편지에서 시작되어 소설의 제목으로 쓰여진다.

죽음을 눈앞에 둔 중년의 남자가 술에 취해 동네 과일가게를 엉망으로 만든 이야기를, 딸이 주인으로부터 듣고 종종 만취해 들어오던 아빠를 기억하고 그 날밤에 아빠에게 편지를 썼다. 아침에 딸의 편지를 받아들고 온갖 상상을 하던 그는 직장에서 딸의 편지를 펼쳐본다. “아버지, 전 지금 당신에게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추신: “아버지, 전 절대 이 편지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수가 또 있을까.

아빠는 정다움을 나타내지만, 아버지는 자기에게 혈통을 이어준 남자로 표현된다.

물론 소설이다.

역으로 2008년 11월에 신경숙이 써낸 ‘엄마를 부탁해’에서 작가는 글쓰기에 진전을 보지 못했을 때 실마리를 찾게된 과정에서 “어느날 ‘어머니’를 ‘엄마’로 고쳐봤더니 신기하게 첫문장이 이루어 졌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친밀감이란 잇기 쉽고 휘발성이 강하였던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가 이에 속한다.

### 4. 남자의 공감능력은 여자의 칠분의 일 수준

남녀간 특히 부부의 경우, 싫어하는 이야기를 가늠



해서 해야하는데 너무 소홀하기가 쉽다. 부부간이면 서로 더욱 인색한 면이 존재한다.

부부싸움의 경우, 화해는 당사자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거기에 제삼자를 동원해 더욱 심화시키는 사례가 있다. 친구나 가족에게 하소연하는 경우에는 과장이 심하게 되며 고정관념이 자리하게 된다. 극단적 언어나 폭력적언어가 마음에 상처를 내게됨은 당연한 결과다.

부부란 감정의 휴지통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배려와 존중이 여기도 전제되어야 한다. 부부간에 완벽(完璧)을 바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남자는 감정 소통에 약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아빠를 두렵게 여기게도 된다. 더욱이 등돌린 아내는 더욱 그렇다. 사랑은 놓아두면 가차없이 녹이 슬고마는 보검과 같다. 낡아도 사랑 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하지 않는가.

이제는 독박육아는 없다. 티비 프로그램중 ‘수퍼맨이 돌아왔다’나 ‘살림하는 남자’가 무엇을 대변하는지 시청하는 사람은 알 것이다. 그것이 단순한 오락성 프로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의 반영임을 잊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또한 중요한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은 가족간에 그 약속을 오래도록 지켜나가는 것이라 본다.

## 5. 밥상머리 교육(격대교육)

격대교육(隔代教育)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키워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세대를 건너서 손자 손녀를 맡아서 교육하는 우리나라 전통 교육 방식이다. 밥상머리 교육도 이에 속한다. 퇴계 이황도 손자와 1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생활습관이나 학습의 태도, 예의범절에 대한 것이라 전한다. 예부터 전통적으로 아이의 교육은 조부모가 행하던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다. 하기는 한자세대에는 초등학교 입학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천자문을 떼고 배우던 아이도 일부 있기도 하였다. 빌게이츠나 버락오바마도 조부모의 영향을 이야기 한바가 있다.

여기에도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이 필요하다. 적정거리 유지가 그것이다. 물론 핵가족 중심의 단점을 보완하고 팽배한 개인주의를 극복하는데 역할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직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이 따른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용서하지 못한다. 회초리와 칭찬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덧붙여서 마음대로 신체를 구속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모든사람은 2시간을 넘게 신체구속을 당하면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한다. 모든 것은 과유불급으로 귀결된다. 조부모는 여유가 있다. 조급하지 않다. 그러나 대개의 부모는 청춘어람을 기대한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앞서 가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는다. 마음의 문을 열면 행복의 수혜자가 다수 생긴다.

신앙을 예로 들자면, 기독교의 경우 공동체의 틀을 다지는데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의 기독교는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신앙 대잇기가

쉽지않고 전도또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조부모나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않다. 일상에서 언행과 판단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로마 신화는 귀히 여겨도 일부는 성경을 목사의 설교자료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신 기기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등이 그들을 매료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신앙에 대한 언급은 지극히 개인적 견해이다.

## 6. 부모의 은혜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은 남해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홀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고대 소설의 걸작으로 불리는 <구운몽>을 썼다. 고금을 통해 자식교육의 전임감사역을 어머니가 도맡아 행하였던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인간의 기초교육을 전담하였으니 말이다. 반면에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의미의 참척지변(慘賊之變)은 공자의 제자인 자하(子夏)가 타지에서 아들의 부음을 듣고 울다 눈이 멀었다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 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프다하여 천붕지통(天崩之痛)이라 하였다.

지금은 드물지만 친상(親喪)을 당하면 대개 상주는 대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의미는 편한 몸 의지 삼으라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 보낸 죄인이니 하늘 부끄러운 줄 알고 허리 구부리고 얼굴 숙이고 다니라는 형구(刑具)의 일종이라는 말이 있다.

효(孝)에 대해 신세대에게 이야기 하면 구닥다리니 유교의 개념을 강요하지 말라고들 한다. 물론 그렇게 말했다고 모두 불효자라고 속단하는 것은 무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효는 대개 보편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으로 우리사회의 평균적인 개념이 되어가는게 사실이긴 하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말하지 않는가.

부모와 자식간에 시비곡직(是非曲直)을 굳이 따질 필요까지는 없을 듯 하나 자식을 부모의 부속물처럼 여겨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옳지않다. 아이는 태어나면 나와 다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에 노력해야하는데 가족간에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듯 살아가는게 더욱 위험해 지는 요소이기도 하다. 불화가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말로 표현해야 알아 듣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저한다. 추측과 직접 듣고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복은 누가 주는가, 서로가 나누는 것이다. 대화의 단절은 가시철망과 같은 것이다. 서로가 끊어 내야 할 일이다.

## 7. 맺음말

현실은 언제나 무겁다. 그리고 갈등이 없는 시대는 없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 그대로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인바, 초면의 서먹한 분위기를 깬다는 뜻이다. 어느 관계에서건, 무엇이든 처음이 가장 어렵지만 시작이 반이다. 농처럼 들리겠지만 ‘먼저

말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자신부터 즐거운 태도로 웃음과 긍정의 언어로 다가가면 싫어할 상대편은 없다. 세기의 명언이 있지 않은가. "웃는 낮에 침 못 뱉는다."라고. 세대간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는 나이나 직급을 떠나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면 훨씬 편해진다. 장애인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 그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한다. 하지만 먼저 묻고 의견을 듣고난뒤 실행해도 늦지않다. 설부른 판단은 금하는게 좋다. 누군가 세대간 소통을 위해서는 다음의 것이 선행되면 좋을것이라 했다. 부정의 언어는 청유(請誘)의 언어로 바뀌 이야기 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일 것이라고.

가령, '뛰지마'를 '천천히 가자'로 하고 '시끄러워'를 '작게 이야기해'라고 하면 어떤가이다. 완곡어법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긍휼(矜恤)한 마음을 가지는 정서가 필요하다.

세대간 공감을 하자면 동행이 되어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생각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한다. 꺼내어 실천하지 않으면 끝내 놓치고 만다.

젊은이는 헬조선(hell+朝鮮=지옥같은 한국)이란 자학적 신조어를 말하고 있으며, 고진감래(고생 끝에 낙이온다)를 웃기는 말이라고 해 버린다. 우리의 토대가 얼마나 척박한 것인가. 그들은 기성세대의 희생과 근성장요를 배척한다. 2030세대는 10대에는 대학입시에, 20대에는 취업에, 30대에는 결혼관계로 지쳐 생활한다. 금수저와 흙수저가 우리 세대에 얼마나 갈라치기의 대명사가 되어왔는지 새삼 말할 필요가 있을까. 젊은이가 이 나라의 기둥이니 반석이니

치켜세우면 뭐할까. 국가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고난과 고통이 언제나 우리 삶의 반쪽을 차지 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다.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어머니가 될 수 없다.' 우리사회 우리 기성세대가 '어머니'가 되어 젊은이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일이다. 언제나 가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덮어 둘 것인가. 젊은이가 희망을 품고 미래가 나아 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뼈아픈 현실자각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성 싶다.

내 주위의 사람을 어여삐 여기고 이해하며 살아 가는 것이 아주 원초적인 해결 방법은 아닐런지도 생각해 보며, 더욱 주목하고 착안해서 발전적 방안을 끊임없이 도출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지성의 그룹이 더욱 확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변확대에 앞장서 주어야 하며, 이제 총체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세대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감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로드맵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진정성있는 실천의 구체화가 바로 그것이라 본다. 세대간 갈등이란 말이 근심처럼 떠도는 오늘날의 어둡한 구름을 날려 보내고, 세대공감을 풍선처럼 띄워 올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아울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랄 뿐이다.

# 생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우리의 소리 - 상여소리

김도영 \_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현대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일생의 통과의례 중 하나인 죽음과 관련된 장례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500년 이상 이어오던 매장(埋葬) 문화는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눈에 띄게 줄었고 화장(火葬)이 주된 장법(葬法)이 되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공간도 180도 바뀌어서 주로 가정에서 친척과 동네 사람이 모여 치르던 장례는 이제 병원이나 전문장례식장에서 치르는 것이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집이 아닌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객사 또는 악사라고 불리던 관습도 더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통적인 예법이 점점 간소화되고 시신을 위생적



포은문화제 천장행렬 (사진-용인시청)

으로 처리한다는 목적에 집중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의를 입혀 염습을 하고 혼을 모시는 등의 전통적인 장례의 맥락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는 유교적인 영향으로 충과 효 그리고 인의 사상이 우리들의 도덕관념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으로 한국의 장례 문화가 아직까지 한국인의 효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암 이재

전통적인 상례라 함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유교적 장례문화를 말한다.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기준이 된 것은 주희가 저술한 『주자가례(朱子

家禮)』였다. 『주자가례』는 고려 말에 도입되었고 15세기에는 국가가 강력히 시행을 장려하였지만 당시만 해도 사대부들조차 아직 불교나 민간신앙에 바탕을 둔 이전의 생활관습에 젖어 있었던 터라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6세기 들어 성리학적 소양을 강하게 지닌 사림(士林)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하여 17세기 후반에 가서야 양반사회에 일반화 될 수 있었다. 그리고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중인이나 평민들도 경제력의 상승에 힘 입어 유교적 장례문화를 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관혼상제를 『주자가례』대로만 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중국과 조선의 풍속이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조선의 풍속을 참작한 예서(禮書)가 저술되어 관혼상제를 행하는 준거가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서가 『사례편람(四禮便覽)』이다.



사례편람(四禮便覽) (사진출처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례편람』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였던 도암(陶菴) 이재(李穡1680~1746)가 관례·혼례·상례·제례에 관한 이론 정리와 실제 적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편람식으로 만든 저술이다. 전체 8권 4책

으로서 권 1에는 관례와 계례, 권 2에는 혼례, 권 3에서 권 7에는 상례, 권 8에는 제례가 수록되었으며 현실에서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마다 필요한 서식이 제시되었고 복식·제구·진찬도 등의 도식도 갖춰져 있다. 주자의 『가례』를 비롯한 여러 학자의 제설을 참고하되 현실적으로 적용에 편의를 줄 수 있는 하나의 통합 모델을 만들고자 한 것이며 상례 부분은 김장생의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위주로 정리·보완하였다. 『사례편람』이 간행된 이후 기호 지역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도 이 책을 많이 참고하였고, 이후 발간된 예서들은 『사례편람』의 편찬 방식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이후 『사례편람』을 보정한 『증보 사례편람(增補 四禮便覽)』이 발간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상(喪)을 당했을 때 시신을 장지까지 나르는 제구(諸具)인 상여(喪輿)라는 단어는 『사례편람』에 처음 등장한다. 사례편람에 따르면 ‘대여를 사용하면 정말로 좋으나 가난한 사람은 쉽게 구비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따라 상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여는 왕가에서, 상여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제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반 백성들도 법적으로 상여를 사용하도록 제도가 완화되었으나 개인이 상여를 마련하기에는 큰 부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마다 공동기금으로 마련하고 관리하였으며 사용 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상여집(=꽃집, 행상집)을 마련하여 보관하였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 사용하였으며 낡으면 마을에서 기금을 다시 모아 장만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여는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반영구적 상여와 한번 쓰고 태워버리는 일명 꽃상여로 구분된다. 조립식 상여는 나무를 조각하고 채색하여 만들기 때문에 웅장하고 무거운 반면 꽃상여는 장강채 위에 대나무로 짠 틀을 세우고 그 곁에 종이꽃을 달아 치장한 것으로 조립식 상여에 비해 가볍고 주로 장의사가 만들어 공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꽃상여는 노동력을 동원할 수 없거나 경제력이 부족한 집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며 산역(山役)을 마친 후 관을 덮었던 덮개 부분은 태워 없애버렸다.

상여를 메는 사람은 상여꾼, 상두꾼, 향도꾼 등 지역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조선사회에서는 양반계층의 성원은 상두꾼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양반계층의 성원이 죽어도 노속이나 주변 하층계급의 성원들이 상두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례였다. 상두꾼의 신분은 원래 상민에 속하였다. 그러다가 갑오경장 이후 신분제도가 타파된 다음부터는 하층민의 의무적으로 상두꾼이 되는 전통이 없어지고 촌락 단위나 친족 단위로 상두꾼을 동원하였다. 지역의 촌락 단위는 대부분 상조회를 조직하여 상호부조 차원에서 상여를 메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조직 내에 정해놓은 제재방식에 따라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으나 상두꾼은 전통적 장례법에서 꼭 필요한 의례 성원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흥사에 대한 협동정신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두꾼의 복장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사회에서는 흰색의 바지저고리에다가 바짓가랑이에는 각반을 차고, 머리에는 흰 띠나 수건을 동여매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각양각색의 작업복에다가 상가에서 마련한 수건을 머리에 두르거나 허리춤

에 차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호상(好喪)일 경우 상두꾼들은 출상 전날 밤에 상가(喪家)에 모여 상두꾼을 구성하고 각자의 위치를 잡아 빈 상여를 메고 풍악을 울리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상여놀이'를 했다. 상여가 나가기 전 예행연습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슬픔에 잠긴 상주(喪主)들을 위로하고 고인이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행복을 저승에서 이루라는 위로 차원의 놀이이다. 이때 '상여'는 노래와 춤을 곁들여 마을 구성원의 협동심을 이끌어 내는 축제의 장을 펼치는데 필요한 도구였던 것이다. '장례'라는 단어는 무겁고 엄숙하고 애절한 느낌을 주지만 '축제'라는 단어의 느낌은 어떠한가? 신나고 즐거운 장면을 연상하게 된다.

장지로 향하는 상여행렬에서 들려오는 상여소리는 고인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슬프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때론 슬픔에 젖어 있는 유족들과 문상객들을 달래기 위해 선소리꾼은 때에 따라 우스운 사설을 넣기도 하고 때로는 욕설까지 섞어가며 행렬을 이끈다. 그렇기 위해서는 때론 느린 가락으로 행렬을 이끌고 때론 빠른 가락으로 행렬을 이끌기도 한다. 선소리꾼은 관중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마치 축제의 행렬처럼 이끌기도 한다.

각 나라의 장례문화는 그 민족의 정체성과 사고방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로 장례식을 치르는 문화권이 엄숙한 분위기로 장례식을 치르는 나라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이것은 죽은 이가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

으로 생각하는 축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에 빠진 상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장례방식이 우리들과 달라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장례 문화에는 그 민족과 나라의 고인에 대한 고유한 추모 방식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2011년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써니』의 마지막 장면은 고인의 빈소에서 친구들은 학창 시절 함께 추었던 추억의 댄스를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춘다. 자신의 장례식이 친구들에 의해 즐거운 날이 되길 바랐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43대) 아버지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나는 언젠가 사람은 최대한 늦게, 짧게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농담으로 추도사를 시작하여 "아버지는 85세에 보트로 대서양을 나를 듯 달려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따돌렸고 90세엔 스카이다이빙을 했고, 병석에서도 친구인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몰래 가져온 그레이 구스 보드카를 마시는 큰 기쁨을 누렸다."라며 유머를 사용하여 장례식 분위기를 일부러 유쾌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죽음과 슬픈 사별이라는 상황에서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슬픔을 극복하려는 긍정적인 시도였으리라.

또 아프리카 가나에서의 장례식은 평소 고인이 원하던 다양한 형태의 관에 시신을 모신 후 춤과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전문 댄서를 고용하여 춤을 춤) 다양한 퍼포먼스까지 연출하며 관을 운구한다. 즐거운 장례식을 만들기 위함이다.



전 미국 대통령 조지 HW 부시의 장례식에서의 심슨 의원이 유머 넘치는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AP뉴스시스국민일보)

상여소리는 ‘만가(輓歌)’, ‘향도가’, ‘향두가’, ‘상두가’, ‘상부소리’, 회심곡(回心曲), 옥설개, 설소리 등 지역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민중들이 부르는 민요의 일종으로 비전문적이면서 대중성을 가진 노래이기 때문에 작가가 존재하지 않거나 처음 지어 부른 사람이 있더라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구전을 통해 들은 것을 전달하고 또 부르는 사람에 의해 창작적인 내용이 보태어지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사 내용은 덜 개성적일 수 있으나 시대상이나 사회상을 반영하는 보편적

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랫말은 유(儒), 불(佛), 선(仙)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 대체로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산 사람에게는 액이 들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별의 슬픔을 함께 노래하면서 상주를 비롯한 친지들의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요령을 잡았다 하여 ‘요령잡이’ 또는 ‘선소리꾼’이라 불리는 선창자가 요령을 흔들거나 북을 치면서 앞소리를 한다. 보통 목소리도 좋고 노랫말을 잘 외





아프리카 가나의 즐거운 장례식 (사진출처 : JTBC)

우는 사람이 선소리꾼이 되어 앞소리를 메기고 상여를 멘 여러 사람이 뒷소리를 받는 선후창의 방식이며 선소리꾼은 소리와 함께 요령이나 북을 치면서 상여 앞에서 행렬을 주도하며 이끈다. 출상 순서에 따라 죽은 이의 혼이 집을 떠나기 서러워하는 심정을 느리게 부르는 서창(序唱)소리,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행상소리, 묘지에 거의 다 와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자진상여소리, 하관 뒤에 못자리에 물이나 나무뿌리가 관을 침범하지 않도록 무덤 주변의 땅을 다질 때 부르는 달공소리(=회다지소리, 달구소리)로 나누어진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 동작이 일치되어야 하는 힘든 작업으로 주고받는 음정과 박자가 아주 중요하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상여소리는 의식요이면서도 노동요의 성격

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동안 용인에서 상여소리를 잘하기로 소문난 분들은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가졌으며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어 ‘곰보 할아버지’로 불렸으며故고성덕 선생, ‘명창’으로 불릴 정도로 소리를 잘했다고 전하는 정해웅 선생의 부친故정우진 선생이 계셨으며 백암 출신으로 현재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1호 휘모리잡가 기능보유자 박상옥 선생, 2018년 용인시 향토문화 제3호로 인정받은 포곡상여놀이의 포곡 출신 권순기 선생, 현재 용인예총 연예분과 부회장으로 역임 중인 고림리 출신 정해웅 선생이 있다.

상여소리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마지막 의식인 망자의 시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불리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잘 반영하는 노래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분포해 왔으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누구나 가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특징을 지닌 소리였다. 우리 민족의 혼과 정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풍속인 상여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용인의 선소리꾼 - 정해웅 선생

정해웅(68세) 선생은 용인 고림리 출신의 선소리꾼이다. 농부가락, 지경다지기, 상여소리 등을 잘하셔서 ‘명창’으로 불릴 정도로 재능과 끼를 가졌던 부친(정우진)을 보며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상여소리를 접하면서 알게 되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1호 박상옥 선생  
(사진출처 : 용인문학 4호)



포곡 출신 권순기 선생  
(사진출처 : 용인문화원 구술생애사 5권)



고림리 출신 정해웅 선생(사진출처 : 본인 제공)

양반, 상놈 가리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상여소리는 천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혹시 누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 상여소리를 외면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끼를 물려받은 선생은 ‘소리꾼은 소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 적어 둔 ‘회심곡’ 가사 내용을 읽은 후 이 일에 자부심을 갖게고 임하게 되었다. 상여소리 또한 가수가 노래하는 것의 일부이며 관중을 즐겁게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선생은 현재 용인예총 소속 연예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가수, 각종 행사의 전문 MC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용인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포은문화제 2회, 3회, 4회 천장행렬의 선소리꾼으로 참여하여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인 상여소리를 알리기도 하였다.

선생의 선소리 무대는 주로 용인, 수지, 구성, 수원, 발안, 오천 등은 물론 전국 각지까지도 연결이 되었다

고 한다. 상여소리로 그동안 많은 고인들의 마지막길을 모셨으며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였다. 故박용익 전 용인문화원장과 4선 국회의원이었으며 전 MBC 방송사 사장으로 계셨던 故이웅희(李雄熙) 전 문화공보부 장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모시기도 했다.

선생은 장례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했음을 몸소 실감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있다가도 위중해지면 환자를 집으로 모시고 와 임종을 맞도록 하였다. 객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요즘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드물고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임종을 맞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집에서 전통장례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시신을 집으로 운구해 온 후 집 앞이나 마을회관 앞에서 상여에 옮겨 모시고 노제를 지낸 후 상여소리와 함께 장지로 출발한다. 상여 나갈 때, 시신을 하관 할 때, 달공 할 때의 상여소리는 주로 ‘회심곡’ 내용이지만 같은 곡이라도 고인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날의 상황이



어떤지 등등의 이유로 내용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가사가 빠지기도, 첨가되기도 하며 변형되기도 한다. 또 행렬을 하다 보면 가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땐 순발력을 발휘하여 다른 부분을 가져오거나 즉흥적인 가사로 대체한다. 그러면서 관중을 사로잡는다. 이것이 상여소리가 갖는 민요의 즉흥성이고 예측 불가능한 창작성의 매력이다. 선소리꾼과 상여꾼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단합과 협동심이다. 선소리꾼이 앞에서 상여꾼들은 선소리꾼의 요령을 흔들거나 북을 치며 부르는 상여소리에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춰가야 받쳐줘야 한다. 행렬이 장지까지 무탈하게 갈 수 있는가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전통 장례가 급격히 사라지는 현실은 어디 지역이나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용인의 경우엔 2013년 이동읍에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과



2013년 송문리(사진 제공 : 용인학연구소 김지현)

## 2020년 송문리

(사진제공 : 정해웅)



장지로 가는 상여 행렬



북을 치며 달공소리 하는 모습



달공소리에 맞춰 땅을 다진다

화장 장례시설이 들어선 이후 전통 장례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5년 전에만 해도 전통 장례를 치르는 집이 그럭저럭 있어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마을 상조회 또는 장의사를 통해 의뢰가 꽤 들어왔었다고 하니 말이다. 2022년 7월, 처인구 정수리 마을의 상가(喪

家)에서 꽃상여에 태워 장지까지 모시며 했던 선소리가 현재 가장 최근에 한 상여소리이다. 다음번 상여소리는 언제 다시 하게 될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거장 고 장욱진 화백의 말년 화실 ‘용인 장욱진 가옥’

글·사진 | 김명수 \_ 사진작가

우리나라 1세대 서양화가 장욱진(1917~1990) 화백의 말년 화실인 ‘용인 장욱진 가옥’이 기흥구 마북동 244-2에 그림처럼 남아있다. 이 가옥은 장욱진이 즐겨 그린 가족, 새, 나무, 아이, 원두막 등 작고 심플하며 정감 있고 따뜻한 작품을 닮았다. 장욱진 화백은 평생을 “나는 심플하다”를 외치며 단순하고 간결한 삶을 통해 순





수하고 이상적인 내면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404호인 장육진 가옥은 장육진 화백이 1986년부터 세상을 떠난 1990년까지 5년간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한 곳이다. 장육진 가옥은 한옥 2동과 양옥 1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옥은 원래 1884년에 지어진 초가집이었는데 장 화백이 1986년에 기와집으로 수리해 작업 공간과 살림집으로 사용했다. 양옥은 1989년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지었는데 장 화백이 1953년에 그린 '자동차가 있는 풍경'의 빨간 벽돌집을 본떠 직접 설계하고 지었다. 지금은 아파트와 건물로 둘러싸여 있지만 처음에는 앞산에 핀 진달래꽃이 한 눈에 들어왔

던 정겨운 곳이었다.

이곳 장육진 가옥은 도심 속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다. 용인문화재단이 창립 10주년 특별전으로 기획한 '장육진 전'(2022년 6월 28~8월 21일)을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이 관람 후 SNS에 게재하면서 용인포은아트갤러리에 대한 정보와 용인 마북동에 위치한 장육진 고택으로 이어지는 셔틀버스 정보가 공유돼 전시장과 장육진 고택이 더욱 크게 붐비기도 했다. 특별전은 장육진이 용인에 정착한 지 36년 만에 용인에서 최초로 열린 대형 회고전으로 장육진의 평생의 화업을 한 자리에 모은 뜻깊은 행사였다. 서울시립미술관, 양주시립장육진미



술관, (재)장옥진미술문화재단, (재)가나문화재단 등이 소장한 장옥진의 최고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특별전에는 장옥진이 용인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밤과 노인’(1990), 사후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 ‘나무 아래 호랑이’(1986), 부처의 일대기를 압축해 표현한 명륜동 시기의 ‘팔상도’(1976), 새벽마다 기도하는 아내를 그린 1973년 작 ‘진진묘’ 등을 포함한 60점의 회화작품이 전시됐다. 또 이곳 장옥진 가옥에서는 1995년 제작된 장옥진의 ‘선’ 시리즈 목판화 전시가 함께 열렸다.

장옥진 화백은 지난 86년 7월 이곳 한옥을 사





서 부인 고 이순경(1920~2022) 여사와 함께 입주, 말년의 예술혼을 불태웠다. 한국 근·현대 화단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장욱진 화백의 미술사적 가치와 ‘집’에 대한 이상과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다.

미음자 한옥에서 장욱진 화백의 방은 안채의 건넌방이었다. 안방은 부인방이었고, 워낙 작은 공간을 좋아하던 장 화백의 공간은 한사람 누우면 딱 차는 건넌방이었다.

장 화백의 한옥 화실은 사랑채였다. 작은 공간에서 그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그림을 그렸다. 그의 양옥 2층 화실도 작기가 마찬가지다. 장 화백의 심플 정신이 잘 나타나있다. 장 화백은 양옥집을 지을 때 서양 사람들의 지혜가 오래 축적된 전통적인 집인 미국의 콜로니얼 스타일을 그대로 본 떠 짓고 싶어 했다. 이 양옥은 화가의 마지막 집이었다. 그는 생의 끝자락을 용인 가옥에서 보내며 예술혼을 불태우다가 세상을 떠났다.



## 용인의 漢詩 사랑방

# 용인문화원 한시교실(龍仁 文化院 漢詩教室)

김미숙 \_ 용인문화원 한시교실 총무

### 저랑 한시(漢詩) 한 수 하실래요?

한시는 ‘어렵다.’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감동을 느낄 수 없다!’ ‘한문학자들이나 하는 학문이다.’ 저의 이러한 편견을 깨어준 한시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을 [용인한시회 한시교실]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風花日將老 佳期猶渺渺 꽃 잎은 바람에 시들어 가고, 만날 날은 아득하다 기약이 없네.  
不結同心人 空結同心草 내 님과의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헛되이 풀 잎만 맺었는 고.

1,200여년전, 중국 당나라 여류시인 설도(薛濤, 768-832)가 지은 5언절구 『봄날의 소망(春望詞)』 4수 중,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3수입니다. 이 한시를 우리말로 변안한 시에 곡을 붙여 탄생한 국민 가곡 ‘동심초(同心草)’는 시대를 아울러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詩)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시는 항상 우리의 삶에 녹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지어진 시도 물론 좋지만, 그 중에서도 한시는 정말 멋이 있고, 뜻이 깊습니다.

### 왜 한시를 배워야 할까요?

2,500년전, 공자는 “詩(시)는 可以興(가이흥), 可以觀(가이관), 可以群(가이군), 可以怨(가이원), 邇之事父(이지사부), 遠之事君(원지사군), 多識於鳥獸草木之名(다식어조수초목지명).” (“시는 의지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정치의 득실을 볼 수 있으며, 무리 지을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으며, 가까이는 부모를 섬길 수 있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으며, 날짐승, 들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시교(詩敎)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삶의 예각을 넓혀주는 각도계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영혼의 비타민이라 할 수 있는 한시를 배우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 한시교실로 함께 가볼까요?

## 용인문화원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용인한시회 한시교실!

용인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용인중앙시장에 위치한 한시교실은 2002년 발족 이후, 30여년 동안 우리 지역 한시문학의 맥을 잇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전국 우수 백일장에서 다수 입상함으로써 용인의 위상을 드높이고, 용인문화원 고유의 정체성과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민문화학교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한시교실 오프라인 강좌가 재개되면서, 50~60대 중장년층 젊은(?) 회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보다 역동적이며, 진취적인 [지식 나눔 공동체] 로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 한시교실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매주 수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걸쳐 정규수업이 진행됩니다. 지도교수 유향(幽香) 윤효원 선생님은 수십 차례 백일장 장원 수상 경력에 더하여, 모든 한자의 평측(平仄)을 사전처럼 알고 계실 정도의 뛰어난 실력으로 회원들을 경탄케 하십니다. 회원들을 섬세하고 친절하게 이끌어 주시고, 열정적인 회원들 덕분에 항상 힘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1교시(學의 場) 10:00 ~12:00 a.m.]** 공수(拱手)~ 배(拜)! 스승에 대한 예를 갖추어 수업을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중국의 이백(李白), 두보(杜甫), 한국의 정지상(鄭知常), 이규보(李奎報) 같은 훌륭한 시인들의 명시를 감상하고,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을 성현들의 말씀들을 통해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시간, 주어진 시제에 따라, 압운(押韻), 평측(平仄), 대우(對偶) 등을 적용해 자연스럽게 한시 작시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2교시(習의 場) 1:00 ~3:00 p.m.]**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성장한다’는 의미의 교학상장(敎學相長)을 실천하는 2교시에는 선배 회원들이 개발한 한시 입문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를 활용하여 신입회원들 입문 교

육을 도와줍니다. 각자 과제로 지어온 한시를 소개하고, 동료 피드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또한 전통의 한시를 계승하면서도,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 용인한사회 한시교실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FAQs)

**Q** 한자를 많이 알아야 한시를 지을 수 있나요?

**A** **No!** 물론 한자 지식이 많으면, 한시를 감상할 때나 지을 때, 그 멋을 깊이 즐길 수 있다. 하지만, 한시를 통해 한자를 익혀 나갈 때, 다음 4가지 이득과 배움의 즐거움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한자를 익히고, 둘째, 한문을 익히며. 셋째, 시를 익히고, 넷째, 한자로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용인한사회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연령, 성별, 경력 등)

**A** **No!** 용인한사회 회원들은 9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2대에 걸쳐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전직 공무원, 교사, 서예가, 문인화가, 사업가 등 다양한 경륜을 가진 남녀노소 회원들이 서로 조화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시다면, 회원 자격의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 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인한사회 한시교실]에서 함께 한시를 사랑하고, 깊이 알아 가면서, 한시의 멋과 심오한 매력에 푹 빠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제든지 대환영합니다.

구미 · 선산 편

## 한국 정신문화의 원형을 찾아서

김운화 \_ 용인교육지원청 마을교사

주말 이른 아침 남편과 함께 용인시청으로 향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전국역사문화기행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오늘 방문할 지역은 경북 구미와 선산일대이다. 내가 방문했던 선산은 그냥 농촌의 일개 군일뿐이고, 구미는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업 도시인데, 출발 전부터 의문과 기대를 하게 되었다.

문화원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생지로 경상북도 내에서는 포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한다. 선사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해왔고 고인돌이나 삼국 시대를 전후로 형성된 고분군도 형성되어 있고, 특히 신라에 불교를 처음 전파한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해동 불교의 성지 도리사를 비롯한 불교 문화유산과 야은 길재를 연원으로 하는 이른바 영남학파의 한 축을 담당한 선산 사림

의 유교 문화유산이 많이 있다고 한다. 유구한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이 불교와 유교라는 것은 틀림없으니 오늘의 주제가 "한국 정신문화의 원형을 찾아서"라고 붙인 이유도 알 것 같았다. 구미를 향하는 차 안에서 용인문화원 김장환 사무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오늘 우리가 탐방할 곳에 선조들의 유산이 어떤 형태로 자리하고 있을지 빨리 보고 싶은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차가 출발한 지 거의 두 시간 반이 넘어 금오산 입구에 도착했다.

몇 년 전 무주 덕유산 케이블카를 타 본 뒤, 오랜만에 타는 케이블카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덕유산 케이블카보다 크지만, 탑승 인원이 많아서 비좁은 데다 창밖의 풍경도 사람들 틈새로 내다봐야 해서 약간 불편하기도 했다.

금오산은 안동 방면에서 보면 능선이 누워있는 사 람 얼굴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워있는 부처에 빗대 금 오산 와불(臥佛)이라고도 한다는데 함께 탑승한 케이 블카 안전요원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 주는데 정말 일출인지 석양인지 모를 배경 속 산 모 습이 와불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다.

### 금오산(金烏山)

금오산은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에 걸쳐 있는 높이 976m의 산으로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이다.

원래 이름은 대본산(大本山)이었고 중국 오악 중 중악 송산(崇山)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 하여 남송산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의 금오산이라는 명칭은 이곳을 지나던 삼국 시대의 승려 아도(阿道)가 저녁노을 속으로 황금빛 까마귀가 나는 모습을 보고 지은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공원이며 영남 팔경의 하나로 남쪽의 금강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조선 시대까지는 금오산성이 있어 임 진왜란 때 객재우 등이 활약을 펼친 곳이기도 하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50m 정도 걸어 내려오니 바로 해운사다.

신라 말기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폐사되었다가 복원되었으며 건물은 대 응전과 요사채만 있어 단출했는데 복원된 지 70여 년밖에 되지 않는 탓에 고찰의 기운은 전혀 느낄 수 가 없어 아쉬웠다.

대응전 앞마당에서 문화해설사가 절벽 뒤편을 가 리키며 사자 얼굴을 찾아보라고 했다. 아무리 쳐다봐 도 사자 얼굴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데, 먼저 찾 은 남편의 손끝을 보고 설명까지 들으니 그제야 바위 모양이 사자 얼굴처럼 보였다.



### 해운사(海雲寺)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의 말사로, 신라 말기에 도선국사가 창건하였으며, 창건 당시에는 대혈사(大穴寺)라고 하였고, 고려말에 길재가 이 절과 절 뒤에 있는 도선굴에 은거하 며 도학을 익혔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폐사되었다가 1925년 복원되었는데, 이 때 절 이름을 해운암(海雲庵)이라고 바꾸었으며, 1956년 대웅 전을 신축하면서 다시 절 이름을 해운사로 바꾸었다.

해운사를 지나 등산로를 오르다 보니, 커다란 절벽 이 나타났다.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금오산을 울린 다고 해서 명금폭포(鳴金瀑布)라고도 불린다는 대혜 폭포인데, 최근 가물어서 물이 흐른 흔적만 보일 뿐 폭포수를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다. 문화해설사의 설명에 의하면 비 온 뒷날에 와보면 장엄한 폭포를 볼 수 있으며, 폭포수 소리만이 아니라 폭포 아래 형 성된 소에 생기는 무지개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 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대혜폭포 주변에는 ‘자연보호운동 여기서 시작되 다’라는 제목의 안내판이 있다. 1977년 박정희 전 대 통령이 대혜폭포에 와서 깨어진 병과 휴지를 주웠는 데, 이것이 우리나라 자연보호운동의 시초라고 적혀 있었다.

이곳이 시초인지는 의심스러웠지만 대통령 신분으로 몸소 쓰레기를 주웠다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 나를 기념할만한 행위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혜폭포(大惠瀑布)**

금오산 대혜굴의 해발고도 약 400m 지점에 있는 폭포로 높이는 28m다.

폭포 아래에 형성된 넓은 소는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즐기는 곳이라 하여 욕담 또는 선녀탕이라고 한다.

폭포 옆 암벽에는 '욕담(浴潭)'이라는 예서체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조선 시대 인조 때의 학자 여헌 장현광의 문도 중 한 사람인 김 공이 폭포 근처 도선굴 아래에 움막을 짓고 학문을 닦다가 새긴 것이라고 한다.

대혜폭포 오른쪽으로 깎아진 듯 위태로운 벼랑길을 따라 도선굴을 향해 올라간다. 길이 좁고 발을 디뎌야 할 돌들이 반들거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 기억이 난다. 도선굴은 아담한 크기를 하고 있었지만, 난리가 있을 땐 이 좁은 동굴에 100~200명까지 몸을 숨겼다고도 한다.

문화해설사가 우리 일행을 위해 오카리나를 연주 해주셨는데, 도선굴에서 들리는 “넬라판타지아”와

능선을 타고 흐르는 바람, 그 속에서 바라보는 금오산 풍경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도선굴을 내려오던 길에 메타쉐콰이어 열매를 이용하여 팔찌를 만들어 주는 숲 해설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금오산입구 메타쉐콰이어 길을 추억할 것 같다.

**도선굴(道詵窟)**

도선굴은 자연동굴로 풍수지리설을 처음 도입한 통일신라의 승려인 도선 대사가 도를 깨우쳤다고 전해지는 장소다.

그 외에도 고려의 문종의 넷째 아들로 천태종의 개조인 대각국사 의천과 야은 길재 등이 찾아와 은거할 만큼 절경이지만, 오랜 세월 오르는 길이 없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1973년 예야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구미 면장과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통로를 내고 동굴 입구 벽에 기록을 남겨두었다고 한다.

도선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멀리 구미공단과 낙동강, 해평면 냉산이 한눈에 보인다.

오후 일정의 첫 방문지는 채미정이다.

채미정은 야은 길재(吉再; 1353~1419)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정자이며, '채미(採薇)'는 '고사리를 캔다'는 뜻으로 길재 선생이 고려가 망한 후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벼슬에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은거 생활을 한 것을 중국의 백이 숙제가 고사리를 캐던 고사에 비유하여 명명한 것이라고 한다.

“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데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

채미정 입구에는 위와 같은 길재의 ‘회고가(懷古歌)’가 새겨진 시비가 세워져 있는데, 누구나 한 번쯤 학창시절에 읊조려봤을 법한 유명한 내용이다.

채미정 앞에 하마비(下馬碑)가 있고 다리 건너기 전 입구에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글씨로 쓰인 ‘채미정 정화기념비’가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나무 다리를 석교로 교체하고 담장과 각 건물의 석축을 새로 하였다고 한다.

채미정 출입문인 흥기문(興起門)을 지나 안쪽에 자리한 특이한 구조의 채미정 마루에 빙 둘러앉았다. 경모각과 유허비각, 단청이 되어있지 않은 고풍스러운 구인재(求仁齋)를 둘러보며, 목은(牧隱) 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단순히 고려 말 삼은(三隱) 중의 1명으로만 알고 있던 길재 선생이 조선 시대에 얼마나 추앙받았는지, 또 조선 사람과 성리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을 들으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경모각에 안치된 숙종 어필 오언절구에 쓰인 [聖] 글자가 줄에 맞지 않게 위로 삐죽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존중을 의미한다고 하니 선인들의 사려 깊은



생각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 채미정(採薇亭)

채미정은 조선 시대 영조 44년(1768)에 고려의 삼은(三隱) 중의 1명인 야은(冶隱) 길재(吉再) 선생을 기리고자 건립된 정자이다.

길재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불사이군을 내세우며 고향인 구미 금오산으로 내려와 재야에서 평생을 보낸 조선 성리학이 강조하는 '충효'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를 길러내 길재, 김숙자, 김종직, 김굉필로 이어지는 영남학파의 거두가 되었다.

길재의 충절은 조선 시대 내내 유생은 물론이고 역대 왕들도 아주 높게 평가했다.

세종을 비롯한 역대 왕들은 길재의 후손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관직에 특별 임용하는 특혜가 대대로 이어졌고, 숙종은 친히 야은 길재를 기리는 어제시를 짓기도 했다.

“

금오산 아래로 돌아와 은거하니 歸臥烏山下(귀와오산하)  
 청렴한 기풍은 업자름에 비하리라 淸風比子陵(청풍비자릉)  
 성주께서 그 미덕을 찬양하심은 聖王成其美(성왕성기미)  
 후인들에 절의를 권장함일세 勸人節義興(권인절의흥)

”

건물은 특이하게 벽체가 없고 기둥만 16개로 된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중앙 한 칸에 온돌방을 만들고 사방을 마루로 둘러렸으며, 방의 네 면에 들어열개문을 설치하여 문만 열어 올리면 전체가 마루가 되는 특이한 구조의 정자다.

이런 구조는 전라도, 특히 담양의 송강정, 면암정, 소쇄원의 광풍각, 명옥헌과 비슷하다고 한다.

다음 탐방지는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신라 최초의 사찰 도리사다.

도리사는 제법 경사가 있는 곳에 자리했고, 한참 더운 시간에 이동하는 것이라 경내를 돌아보기도 힘들었다. 경내에 들어서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영남의 3대 선원 중 제일이라 ‘제일도리’라는 별칭을

가진 태조선원(太祖禪院)이었다. 태조선원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선방으로 길재 선생이 이곳에서 스님들에게 글을 배웠고, 성철 스님도 이곳에서 정진했다고 한다. 현판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오세창 선생의 글씨라고 한다.

도리사 극락전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단청의 색바램이 사찰의 연륜을 느끼게 했다. 극락전 앞마당엔 화엄석탑(華嚴石塔)이라 불리는 석탑이 있다. 전체 높이가 3.3m로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라고 하는데 탑에 대해 잘 모르는 필자로서는 특이한 것에 대한 설명이 생소했다.

도리사에는 석종형의 세존사리탑이 있다. 이곳에서 금동육각사리함과 사리가 발견되어 당시 많은 불자가 몰려왔고, 이후 전국신도회장인 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의 도움으로 도리사의 성역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극락전 마당을 두른 담장 한쪽에 난 작은 문으로 내려오면 아도화상 사적비와 아도화상이 좌선했다는 좌선대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아도화상과 모례장자의 칩닝쿨에 대한 흥미로운 설화도 읽을 수 있었다.

절을 나와 서쪽 테크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전망대가 있다, 이곳은 아도 스님이 손가락을 곧게 가리켜 김천의 직지사 터를 잡았다는 ‘西臺(서대)’로, 전망대 앞이 탁 트여있어 직지사가 있는 황악산이 멀리 보였고 낙동강 물줄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오월의 이른 더위를 잊게 할 정도로 시원했다.



### 도리사(桃李寺)

구미시 해평면 냉산(지금의 태조산)에 있는 절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일선지(一善志)〉 등에 의하면 수행처를 찾다다니던 아도가 이곳 산 밑에 이르자 때가 한창 겨울인데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자두)이 산허리에 만개한 것을 보고, 눌지왕 2년(419)에 신라 최초의 불교 신도인 모례에게 시주받아 절을 짓고 〈도리사〉라고 사명을 붙였다고 한다.

모례장자의 시주 관련해서도, 아도화상이 모례장자 앞에 작은 망태기를 놓고 곡식 두말을 망태기에 시주하시오 했다는데, 모례장자가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았고 결국 전 재산을 모두 시주했다는 전설이 전해져왔다.

“

도리사 앞에는 도리꽃 피었더니 桃李山前桃李開(도리산전도리개)  
 묵호자가버린 뒤 아도가 왔네 墨胡已去道士來(묵호이거도사래)  
 뉘 알리오, 빛나던 신라 때 모습 誰知赫赫新羅業(수지혁혁신라업)  
 모례의 움집 속에 재뿐인 것을 終始毛郎窳裏灰(종시모랑음리회)

”

영남 사람의 조종이며, 선산부사를 지냈던 조선 시대 김종직의 도리사라는 시에 도리사 창건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의 도리사는 아도가 창건했다는 바로 그 도리사는 아니다. 본래의 도리사는 폐사되었고, 후대에 도리사의 부속 암자였던 금당암을 중심으로 하여 중창한 절이 현재의 도리사다.

조선 시대 숙종 3년(1677) 큰 화재로 대웅전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이 소실되었고, 그 뒤 영조 5년(1729) 목조아미타좌불상의 금칠을 새로 하여 산 내 암자였던 금당암으로 위치를 옮기고 암자 이름을 도리사로 바꿨다.



도리사 경내에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칠성각 등의 법당과 요사가 있으며 각 건물 내에는 관계 현판들이 보존되어 있으며, 불상 탕화 등이 봉안되어 있다.

석조물로는 석탑과 세존사리탑, 아도화상사적비 및 자운비, 도리사 불량담시주질비(佛糧沓施主秩碑), 아도화상 좌선대가 보존되어 있다.

도리사 경내를 둘러보며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니 더위에 몸이 지쳐서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정도가 지난 후에야 금오서원에 도착했다.

금오서원은 선산 읍내를 벗어난 원동의 야트막한 남산 산비탈에 계단식으로 터를 다져 모두 다섯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서원으로 들어서는 읍청루 좌우엔 속사인 동재와 서재가 있고 이보다 한 단 높은 터에 강당인 정학당이 있었다. 우리 일행은 정학당 대청에 앉아 넓은 들판과 낙동강 물줄기를 마주하며 문화해설사가 읊어주는 '칠조(七條) 내용을 묵상하였다.

떼 지어 무례한 짓 하지 말 것, 술과 고기는 삼갈 것,  
서원 건물 주위는 더럽히지 말 것, 서책이나 기물을  
손상하지 말 것,  
서원에서 노래하고 춤추지 말 것, 의관은 부정하게  
하지 말 것,  
대화는 조용하고 음담패설 하지 말 것.

이 칠금을 범한 자 이미 왔으면 되돌아가고 아직 오지 않았으면 아예 오지를 말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를 보니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학업에 임했는지 알 수 있었다.

## 금오서원(金烏書院)

금오서원은 고려의 충신인 야은 길재의 학문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선조 3년(1570) 금오산 아래 세워진 서원으로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선조 35년(1602) 지금의 남산 기슭으로 위치를 옮겨 복원되었다.

길재는 '불사이군', '절의정신'의 표상으로 고려의 신하였지만 조선에서 추앙받는 충신이 되었다.

길재의 출생지인 봉계리를 향해 있는 금오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며 경내에는 길재를 포함 김종직, 정봉, 박영, 장현광 등 다섯 선현의 위패를 모신 상현묘와 정학당, 내삼문이 있다.

금오서원에서 학문을 강론하는 장소였던 정학당은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서원의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건축학적, 미학적 가치가 뛰어나 임진왜란 이후 건립된 조선 후기 강당 건축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서원이 위치한 선산은 이중환의 택리지에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반은 일선(선산)에 있다"라고 할 정도의 지역으로, 이러한 서원을 통해 길재 이후 영남 사람의 한 맥을 잇는 김종직, 하위지, 김숙자, 이맹전, 장현광 등의 유학자를 배출하였고 다양한 유교 문화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 시대 문인인 노경임이 저술한 『송선지』의 「도통상승차제도(道統相承次第圖)」에서 도통의 흐름을 정몽주-길재-김숙자-김광필-정봉-박영이라고 제시하였는데, 김숙자는 길재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배워 아들인 김종직에게 전했고, 김광필은 김종직이 선산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정봉은 김광필의 문하에서 배워 박영의 스승이 되었다.

박영의 송당학파는 금오서원이 건립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길재의 『야은집』을 발간해 길재에서 박영으로 이어지는 도통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송당학파는 이후 서경덕의 화담학파, 이황의 퇴계학파, 조식의 남명학파 등에 편입되면서 길재의 도학 사상이 영남지역에 전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금오서원을 나와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죽장리 오층석탑으로 향했다.

오층석탑이 있는 서황사는 과거 죽장사가 있었던 터라고 한다. 서황사 앞마당에는 천년의 흔적이 있는 오층석탑이 우뚝 솟아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익산 미륵사지석탑 이후, 이렇게 큰 탑을 처음 보았던 필자는 그 크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럴만한 것이 죽장리 오층석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5층 석탑이었고, 구미지역의 유일한 국보였다.

오층석탑에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설화가 있다고 한다.

신라시대 다정한 오누이가 살았는데 둘이서 힘자랑을 하다가 누가 더 큰 탑을 빨리 쌓는지 내기를 했고 그때 누이가 쌓은 탑이 바로 죽장리 오층석탑이라고 한다.

기단부(基壇部) 위에 탑신부(塔身部)와 상륜부(相輪部)를 올린 신라 석탑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데, 바닥 돌에서 상륜부까지 100여 개가 넘는 많은 돌로 결구한 것이 특이하다. 또한, 지붕들의 낙수면이 층단을 이루는 모습은 일반적인 석탑이 아닌 전탑(塹塔)에서 흔히 볼 수 있으므로, 이 석탑은 모전석탑(模塹石塔)의 유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오월의 이른 무더위 속에 이곳저곳 둘러보며 제법 걸어 힘들었지만, 기대 이상 많은 것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되는 뿌듯한 하루였다.

의문을 가지고 출발했던 구미·선산 지역 역사기행을 통해 불교와 유교 문화유산을 접하면서 그 속에 자리한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기행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수고하신 용인문화원의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죽장리 오층석탑(竹杖里 五層石塔)**  
선산읍에서 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죽장사(竹杖寺) 터에 서 있는데 높이가 10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5층 석탑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변에는 주춧돌과 기와 조각이 널려 있다.  
이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인 2층 받침돌을 갖추고 있지만, 각 층의 몸돌 양쪽에는 모서리 기둥이 없어 이형(異型)적인 모습도 보인다.

## 친일 상징물 전시관 조성



본 문화원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국에 세운 팔굉일우(八紘一宇)비를 포함한 <친일 상징물 전시관>을 개관하였다. 3.1절 103주년을 맞아 용인 중앙시장에 위치한 구 문화원(김량장동) 건물 창고를 개조하여 조성한 이 전시관에는 친일파 송병준 선정비 및 그의 아들 송종현 영세기념비와 함께 팔굉일우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팔굉일우'는 일제가 1940년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면서 부르짖던 내선일체와 대동아공영의 상징 표어로 '전 세계가 하나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2008년 처인구 양지초등학교에서 발견된 팔굉일우비는 송병준의 아들 송종현이 친필로 쓴 것으로 왼쪽 측면에 '개교 30년 기념 소화 16년 9월 1日 동창회 후원회 증정'이라 쓰여 양지초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1941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팔굉일우비는 일제 침략과 지배 이데올로기를 증언하는 자료이자 친일 인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료로서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역사적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 ‘제103주년 용인3·21만세운동 기념식 및 만세길 걷기’ 행사 진행



지난 3월 19일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3·1만세운동 기념공원에서  
는 제103주년 용인3·21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 및 만세길 걷기행  
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용인 최초의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원삼면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기념식뿐만 아니라 유관  
순 열사 어록 낭독, 3·1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1.5km 만세길 걷기도  
진행이 되었다.



## 용인시민문화대학 운영



용인문화원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문화학교’를 ‘용인시민문화대학’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면개편에 따라 강사를 공개모집하였으며 현재 캘리그래피, 보태니컬아트, 실버댄스스포츠 등 15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정된 만큼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약 10개월의 기간동안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은 12월에 진행되는 ‘우리문화한마당’에서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하며 솜씨를 뽐낼 예정이다.

한편 용인시민문화대학 접수는 용인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 모집이다.



## 전국역사문화기행



코로나19로 3년동안 중단됐던 ‘전국역사문화기행’이 다시 재개되었다.

전국역사문화기행은 용인문화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매달 토요일 하루 동안 답사지를 기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코스, 전문적인 해설 덕분에 시민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울러 하루 동안 한 지역을 알차게 돌아보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만족감이 크다.

전국역사문화기행은 지난 5월 경북 구미·선산을 시작으로 6월에는 강원 삼척, 7월에는 전남 장성을 둘러보았다.

매달 넷째주 토요일 답사를 진행하며 접수는 매달 1일 전화접수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35,000원으로 선착순 접수다.

세부일정, 답사지역 등은 용인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만주 독립군의 어머니 ‘정현숙 지사’ 서거 30주년 추념 및 표지석 제막식



지난 8월 15일,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만주 독립군의 어머니, 정현숙 지사 생가터에서 <정현숙 지사 서거 30주년 추념 및 표지석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정현숙 지사는 용인 출신의 여성독립운동가로 시아버지 오인수 의병장으로부터 시작된 ‘용인 3대 독립운동가 가문’의 일원으로 민족과 향토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빼앗긴 나라를 구하고자 ‘조국 독립’을 위해 남편 오광선 광복군 장군을 비롯하여 두 따님, 오희영, 오희옥 지사를 광복군으로 키워낸 여장부 정현숙, 하루 12번씩 독립군의 밥을 하던 만주의 억척 어머니 정현숙 지사의 생가터에 들어선 표지석을 보며 많은 이들이 ‘독립정신’을 되새겨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이트(yongin100th.co.kr) →



## 용인문화원 한시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축하 한시 전달식 진행



지난 8월 31일 용인문화원 한시반 회원이 지은 이상일 시장 취임 축하 한시 전달식이 시장실에서 있었다.

한시반 이관희 회장, 박강욱 부회장, 이원규 회원, 문화원에서는 최영철 부원장이 함께 동행을 하였다.

한시 내용은 시민을 편안케 하고 용인발전에 힘써달라는 덕담이다.

한편, 한시반은 10월부터 한시강독입문과정 기초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한시를 해석하고 시를 지어보고 싶은 시민분들은 용인문화원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참가단체 모집 2022년 용인향토문화유적답사

### ◎ 2022년 용인향토문화유적답사 안내

구 분	내 용
참가비	1인 10,000원~15,000원 (코스별 상이)
신청 인원	25명 이상 단체 신청
접수방법	용인문화원 홈페이지 접수
문화원 제공	버스, 중식, 입장료, 해설사
신청기간	2022년 5월 ~ 12월 31일 ※7월~8월 제외
답사대상	용인시민 (신분증 확인)
답사시간	09:00~ 17:00 (집합 장소 선택 가능)
답사코스	10개 코스 中 1개 코스 선택
문의	☎ 031-324-9600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7:00)

### ◎ 답사코스

코 스	지 역	세부코스	참가비(1인)
제1코스	모현권	정몽주묘소 → 등잔박물관 → 총렬서원 → 왕산리고인돌 → 남구만묘소	10,000
제2코스	이동·남사·포곡권	서리백자요지 → 처인성 → 이한응묘소 → 채제공묘소 → 팔공일우비 전시장	10,000
제3코스	수지권	용인시박물관 → 심곡서원 → 조광조묘소 → 김세필묘역	10,000
제4코스	원삼권	기후변화체험센터 → 와우정사 → 농촌테마파크 → 고초골 공소(근대문화유산) → 3.21만세기념공원	10,000
제5코스	양지권	은이성지 → 골배마실 → 양지향교 → 허씨5문장묘소	10,000
제6코스	구성권	용인시박물관 → 용인향교 → 민영환묘소 → 마북동비석군 → 보정동고분군	10,000
제7코스	백암·원삼권	대장금테마파크 → 허씨5문장묘소 → 미평리약사여래불	10,000
제8코스	백암권	한택식물원 → 반계유형원묘소 → 예아리박물관	15,000
제9코스	기흥권	한국민속촌 → 경기도박물관 → 백남준아트센터	15,000
제10코스	독립운동 유적 코스	김혁공원 → 임옥여동상 → 해주오씨3대기적비 → 독립운동가의 집 → 3.21만세기념공원	10,000

## 참가자 모집 2022년 용인시민문화대학

### ◎ 2022년 용인시민문화대학 안내

구 분	내 용
수강료	월 30,000원
등록방법	용인문화원 홈페이지 접수
모집방법	수시모집 / 선착순 모집
수강기간	2022년 3월 ~ 11월 (※12월 우리문화 한마당 진행예정)
문의	☎ 031-324-9633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7:00)

### ◎ 2022년 용인시민문화대학 강좌 안내

강좌명	요일	시간	강사명
고전	월요일	10:00~12:00	안종운
캘리그래피	월요일	10:00~12:00	심소영
보태니컬아트	화요일	10:00~12:00	최현숙
한국무용	화요일	10:00~12:00	심규순
라인댄스	화요일, 목요일	12:00~13:00	조현주
유화	화요일	10:00~12:00	안준섭
수채화	화요일	13:00~15:00	김수경
경기민요	화요일	13:00~15:00	왕안숙
실버댄스스포츠	수요일	13:00~15:00	전옥자
가야금	수요일	15:00~17:00	김정숙
민화	목요일	10:00~12:00	정경화
서예	목요일	10:00~12:00	장정숙
판소리	목요일	13:00~15:00	주서운
생활풍수	금요일	14:00~16:00	정화영
수묵화조화	금요일	10:00~12:00	정태균

## 참가자 모집 합창단 모집

### ◎ 문화원합창단

구 분	내 용
자격	용인거주, 20세 이상 63세 이하 여성
운영시간	매주 월·금요일 10:00~12:00(주2회/2시간)
운영장소	용인시문화예술원 1층 실기연습실
활동내용	연1회 정기연주회, 합창대회, 지역행사 출연 등
문의	☎ 031-324-9600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7:00)

### ◎ 실버합창단

구 분	내 용
자격	용인거주, 60세이상 남녀
운영시간	매주 월·금요일 13:00~15:00(주2회/2시간)
운영장소	용인시문화예술원 1층 실기연습실
활동내용	연1회 정기연주회, 합창대회, 지역행사 출연 등
문의	☎ 031-324-9600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7:00)

### ◎ 가곡반

구 분	내 용
자격	용인거주, 나이불문 남녀노소 합창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운영시간	매주 수요일 10:30 ~ 12:30
운영장소	용인시문화예술원 1층 실기연습실
활동내용	기초부터 배우는 합창의 세계
문의	☎ 031-324-9600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7:00)

## 참가자 모집 2022 전국역사문화기행 참가자 모집

### ◎ 전국역사문화기행 안내

구 분	내 용
참가비	문화위원 25,000원 / 일반 시민 35,000원
참가조건	용인시민 (용인시 소재 직장인 가능)
접수방법	매월 1일 오전 9시 전화접수
문화원 제공	버스, 중식, 입장료, 해설사, 간식 등
문의	☎ 031-324-9600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7:00)

### ◎ 월별일정

회차	답사일	답 사 지	세 부 일 정
140	05.28(토)	경북 구미/선산	금오서원, 죽장동 오층석탑, 쌍암고택, 북애종택, 석조여래좌상
141	06.25(토)	강원 삼척	죽서루, 천은사, 미로정원, 초곡용굴춧대바위
142	07.16(토)	전남 장성	백양사, 필암서원, 고경명 신도비, 남문창의비, 편백나무자연휴양림
143	08.27(토)	충북 괴산	화양구곡, 화양서원, 만동묘, 홍명희고가, 김시민 장군 사당, 각연사
144	09.24(토)	전북 익산	미륵사지, 쌍릉, 표충 송영구 묘소, 삼정승소나무, 연동리 석불좌상
145	10.22(토)	경남 함안	말이산고분군, 방이산마애불, 고려동유적지, 주세붕 묘역
146	11.26(토)	강원 고성	청간정, DMZ박물관, 건봉사, 화진포, 통일전망대
147	12.17(토)	경기 화성	공룡알 화석지, 제암리 독립기념관, 남양성모성지, 우리꽃식물원, 남이장군묘